

<최종보고서>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 연구

2010. 9

提 出 文

귀하

본 보고서를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總 括〉

Invest KOREA 투자정보팀장 박용수

〈研究責任者〉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홍식

〈研究參與者〉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성봉

Summary

- 제조업 부문의 전반적인 투자부진과 더불어 자동화 투자확대,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우리 경제 자체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일자리 창출의 유력한 대안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 전체적으로 취업유발 효과가 큰 산업 및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노력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 등 정부의 정책의제 연계 산업부문 및 고성장 양상을 보이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고용창출에 있어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더욱 촉진되어야 할 산업분야의 도출 및 관련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
-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각 산업별 외국인투자의 경제기여도 및 유망업종 선정
 -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투기업의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 업종별, 기업규모별, 투자 목적별, 투자 기간 별 등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외투기업의 고용창출효과 분석
 - 투자금액대비 고용인 수를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고용의 양에 대한 분

석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함께 분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고용증대를 위한 투자유치 타겟업종 및 기업을 선정하여 ①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외국인유치방안, ②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의 유치 촉진을 위한 전반적 환경개선방안, ③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 유지와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치 관리방안, 그리고 ④ 고용창출효과에 따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방안 등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업종별 외국인투자 고용효과는 두 가지 측면, 즉 고용의 양적인 측면 (①외국인투자 업종별 고용창출 규모)과 질적인 측면 (②투자금액당 업종별 고용창출 계수와 ③외국인투자 업종별 1인당 인건비 수준)에서 분석하였음.

○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업종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산업연관분석			기업데이터분석
순 위	외국인투자 고용규모 기준	투자의 고용유발계수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1인당 인건비 기준
1	도소매	교육 및 보건	금융 및 보험
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수송장비
3	통신 및 방송	사회 및 기타서비스	통신 및 방송
4	금융 및 보험	도소매	정밀기기
5	운수	건설	교육 및 보건
6	비금속광물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사회 및 기타서비스
7	건설	인쇄 및 복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8	전기 및 전자기기	공공행정 및 국방	건설
9	광산품	기타	운수 및 보관
10	음식점 및 숙박	기타제조업제품	도소매
11	사회 및 기타서비스	정밀기기	광산품
12	목재 및 종이제품	운수	전력, 가스 및 수도
13	일반기계	금속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14	화학제품	일반기계	음식점 및 숙박
15	금속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물
16	인쇄 및 복제	금융 및 보험	목재 및 종이제품
17	교육 및 보건	목재 및 종이제품	음식료품
18	섬유 및 가죽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제품
19	수송장비	광산품	공공행정 및 국방
20	전력, 가스 및 수도	수송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21	제1차 금속제품	음식료품	일반기계
22	음식료품	통신 및 방송	금속제품
23	정밀기기	농림수산물	전기 및 전자기기
24	농림수산물	전기 및 전자기기	석유 및 석탄제품
25	기타제조업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26	공공행정 및 국방	제1차 금속제품	인쇄, 출판 및 복제
27	석유 및 석탄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 이와 같이 도출된 고용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와 개별기업차원의 고용자료를 연계하여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고용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핵심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상대적 인건비 수준보다는 우수인력 및 기술력 등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 둘째, 내수시장 확보목적의 투자 (내수비중이 높을수록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장기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투자 (투자기간이 오래될수록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중소 및 중견규모의 투자 (투자금액이 중소(100억 이하) 및 중견규모(100억-1000억)인 경우가 10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도출함.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외국인투자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은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인 2002년 이후 2008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위까지 보면, ① 도소매, ②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③ 통신 및 방송, ④ 금융 및 보험, ⑤ 운수, ⑥ 비금속광물제품, ⑦ 건설 ⑧ 전기 및 전자기기, ⑨ 광산품, ⑩ 음식점 및 숙박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고용유발계수(투자금액 10억원 당 고용유발인원수)에서 상위 10개 업종을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2005년을 기준으로 상위 10위를 보면, ① 교육 및 보건, ② 음식점 및 숙박, ③ 사회 및 기타서비스, ④ 도소매, ⑤ 건설, ⑥ 섬유 및 가죽제품, ⑦ 인쇄 및 복제, ⑧ 공공행정 및 국방, ⑨ 기타, ⑩ 기타제조업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에 의한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각각 고용효과가 높은 구체적인 세부 업종들을 모두 잠재적인 타겟업종으로 포괄한 다음,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업종 성격상 외국인투자 유치가능성이 높지 않은 업종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선정
-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투자유치 타겟 업종은 비즈니스서비스업(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교육 및 보건업, 관광업(음식점 및 숙박), 물류(운수), 전자 및 전자기기 그리고 비금속광물제품 등 7대 업종으로 정리됨.

<표> 외국인투자 고용창출 효과가 큰 투자유치 타겟 업종의 선정

산업연관분석상 외국인투자 고용창출효과 높은 업종		낮은 생산성 및 업종 성격상 투자유치 가능성이 낮은 업종 배제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7대 타겟 업종
외국인투자 고용규모가 큰 업종 상위 10위	외국인투자 고용유발계수 상위 10위		
A	B	C	D=(A+B)-C
① 도소매 ② 부동산/사업서비스 ③ 통신 및 방송 ④ 금융 및 보험 ⑤ 운수 ⑥ 비금속광물제품 ⑦ 건설 ⑧ 전기 및 전자기기 ⑨ 광산품 ⑩ 음식점 및 숙박	① 교육 및 보건 ② 음식점 및 숙박 ③ 사회/기타서비스 ④ 도소매 ⑤ 건설 ⑥ 섬유 및 가죽제품 ⑦ 인쇄 및 복제 ⑧ 공공행정 및 국방 ⑨ 기타 ⑩ 기타제조업제품	① 도소매 ② 사회/기타서비스 ③ 건설 ④ 광산품 ⑤ 섬유 및 가죽제품 ⑥ 인쇄 및 복제 ⑦ 공공행정 및 국방 ⑧ 기타 ⑨ 기타제조업제품	① 사업서비스업 ② 금융 및 보험업 ③ 운수(물류) ④ 관광업(음식점/숙박) ⑤ 교육 및 보건업 ⑥ 전기 및 전자기기 ⑦ 비금속광물제품

-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통계상 비즈니스(사업)서비스업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적극적 의미의 서비스제공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타겟업종에서 제외함.
- ** 운수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통계상 운수 및 보관(물류)로 구분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물류업으로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 업종 명칭을 물류업으로 설정함.
- *** 음식점 및 숙박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광업으로 통칭하고 있어서 타겟 업종 명칭을 관광업으로 설정함.

☐ 앞에서 제시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업종별로 전략적 유치 타겟 지역(국가)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고용효과가 큰 업종별 투자유치 타겟 지역(국가) 선정

타겟업종	투자누적금액 상위 5개국	전략적 유치 타겟 지역(국가)
금융 및 보험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영미지역, 서유럽지역, 일본
사업서비스	네덜란드, 일본, 미국, 중국, 케이만군도	영미지역, 네덜란드, 일본
관광	호주,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 홍콩	미국, 호주, 일본, 홍콩, 이태리
물류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전자/전자기기	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비금속광물	일본,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 한편, 전략적 유치 타겟 기업은 앞서 선정한 전략적 유치 타겟 지역(국가)의 타겟업종내 선도기업으로 국내에 아직 투자진출을 하지 않은 기업들을 기준으로 선정

<표> 고용효과가 큰 업종별 투자유치 타겟 기업

① 금융 및 보험업

연 번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수
1	Columbia Community Credit Union	Banking	미국	53,188.7	209
2	Keypoint Credit Union	Banking	미국	50,372.0	184
3	The Thomson Company Inc	Banking	캐나다	7,165.1	53,700
4	Nrw Bank	Banking	독일	4,751.4	11,705
5	Nippon Life Insurance Company	Life Insurance	일본	6,689,872.0	67,438
6	Meiji Yasuda Life Insurance Company	Life Insurance	일본	46,650.1	40,485
7	CUNA Mutual Insurance Society	Credit Insurance	미국	2,764.0	4,500
8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Company	Property/Casualty Insurance	미국	32,064.0	68,000
9	China Reinsurance (Group) Corp.	Reinsurance	중국	4,335.5	200
10	Toa Reinsurance	Reinsurance	일본	1,347.7	357

<표> 고용효과가 큰 업종별 투자유치 타겟 기업(계속)

② 비즈니스 서비스업

연 번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수
1	Universal Outdoor Pty Limited	Advertising & Marketing	호주	1,201.7	5,644
2	Recruit Co, Ltd	Staffing	일본	3,571.6	7,477
3	Beijing Foreign Enterprise Human Resources Service Co, Ltd	Human Resources & Staffing, Consulting	중국	1,504.8	889
4	China International Intellectech (Shanghai) Corporation	Human Resources & Staffing, Consulting	중국	1,294.6	150
5	Worley parsons Services Pty Limited	Technical &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호주	4,471.4	32,200
6	Dekra Se	Technical &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독일	2,543.1	22,000
7	Lloyd's Register Group	consulting & risk management services	영국	1,239.0	1,812
8	The MITRE Corporation	consulting, engineering, technical research services	미국	1,263.3	7,000
9	Imtech Deutschland GmbH & Co Kg	Technical &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독일	1,080.8	4,300
10	Chenega Corpo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training, manufactu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미국	1,077.4	4,500

<표> 고용효과가 큰 업종별 투자유치 타겟 기업(계속)

③ 관광업

연 번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수
1	Zensho Co, Ltd	Restaurants & Cafes	일본	3,742.7	5,151
2	Spotless Services Australia Limited	Restaurants & Cafes	호주	1,872.5	35,000
3	Crown Melbourne Limited	Restaurants & Cafes	호주	1,158.0	8,000
4	The Grape Management Pty Ltd	Hotel and Motel - Lodging	호주	38,955.3	--
5	Hotel Royal Limited	Hotel and Motel - Lodging	싱가포르	18,249.8	180
6	Aboutrooms Com Ltd.	Hotel and Motel - Lodging	호주	5,066.6	--
7	Swift Hotels (Management) Ltd.	Hotel and Motel - Lodging	영국	1,708.0	40,000
8	Bristol Bay Native Corporation	Hotel and Motel - Lodging	미국	1,294.9	1,022
9	Maruhan Co, Ltd	Amusement Parks & Arcades	일본	23,675.4	10,457
10	Dynam Co, Ltd	Amusement Parks & Arcades	일본	9,600.0	3,957

<표> 고용효과가 큰 업종별 투자유치 타겟 기업(계속)

④ 물류

연 번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수
1	Toll (Fhl) Pty Ltd	Express Delivery Services	호주	2,981.3	100
2	Jfe Logistics Corporation	Express Delivery Services	일본	2,050.8	2,628
3	Purolator Courier Ltd	Express Delivery Services	캐나다	1,278.2	12,500
4	General Logistics Systems Germany Gmbh & Co Ohg	Express Delivery Services	독일	1,199.2	13,000
5	APM Terminals Management B.V.	Port, Harbor & Marine Terminal Management	네덜란드	3,118.2	120
6	PSA International Pte Ltd	Port, Harbor & Marine Terminal Management	싱가포르	2,953.4	5,000
7	Van Oord nv	Port, Harbor & Marine Terminal Management	네덜란드	2,672.4	4,500
8	Wallenius Wilhelmsen Logistics AS	Logistics Services	노르웨이	2,144.6	3,300
9	Pacific Carriers Limited	Logistics Services	싱가포르	1,308.8	200
10	Aliança Navegação e Logística Ltda.	Marine Shipping Logistics Services	브라질	1,116.1	1,200

<표> 고용효과가 큰 업종별 투자유치 타겟 기업(계속)

⑤ 전자 및 전기기기

연 번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 수
1	Phoenix Contact Gmbh & Co Kg	Electrical Products	독일	1,621.2	3,600
2	Bticino Spa	Electrical Products	이탈리아	1,199.4	3,163
3	Continental Teves Ag & Co Ohg	Electronic Components	독일	5,451.8	130,000
4	Qimonda Ag	Electronic Components	독일	4,966.4	11,802
5	Magyar Suzuki Zartkoruen Mukodo Reszvenytarsasag	Electronic Components	헝가리	2,334.0	3,917
6	Conti Temic Microelectronic Gmbh	Electronic Components	독일	1,958.9	7,500
7	Wuxi Sharp Electronic Components Co , Ltd	Electronic Components	중국	1,919.6	9,430
8	Gaoxian Electronic (Shenzhen) Co , Ltd	Electronic Components	중국	1,835.9	1,200
9	Stmicroelectronics Sdn Bhd	Electronic Components	말레이시아	1,773.9	3,000
10	Diehl Stiftung & Co Kg	Electronic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독일	2,729.3	12,150

<표> 고용효과가 큰 업종별 투자유치 타겟 기업(계속)

⑥ 비금속광물

연 번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 수
1	Momentive Specialty Chemicals, Inc.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미국	6,093.0	6,800
2	Diester Industrie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프랑스	2,712.4	52
3	Duluxgroup (Australia) Pty Ltd	Paints, Coatings & Other Finishing Product Manufacturing	호주	6,209.7	3,000
4	Sasol Germany Gmbh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독일	1,355.9	1,400
5	Imerys Pigments, Inc.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미국	1,076.0	2,517
6	Tangshan Sanyou Group Co , Ltd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중국	1,006.4	70
7	Cepsa Quimica Sa	Industrial Organic Chemicals	스페인	2,489.2	1,035
8	Grupo Petrotemex, S A De C V	Industrial Organic Chemicals	멕시코	2,245.8	1,300
9	Actega Terra Gmbh	Paints, Coatings & Other Finishing Product Manufacturing	독일	1,596.5	4,789
10	Shin-Etsu Handotai Co. Ltd.	Semiconductor Equipment Manufacturing	일본	2,449.8	1,760

- 이와 같이 산업연관분석 및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투기업의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고용증대를 위한 투자유치 타겟 업종 및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투자유치 촉진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업종 분야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투자유치 촉진 방안 요약

타겟업종	업종별 차별화된 투자유치 촉진 방안	근거 및 관련 사항
금융 및 보험업	- 서울의 국제금융지로서의 개선된 위상 활용	- 세계 금융중심지 경쟁력 개선 1위(도이치뱅크)
	- 서울국제금융지구(여의도) 및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의 개발계획 활용	- 2009년 12월 정부의 개발계획 확정 발표
사업 서비스업	- 글로벌서비스기업과 국내 관련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여 투자유치	- 비즈니스서비스기업의 성공요인은 서비스의 현지화 정도와 관련
	- 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 활용	- 2010년 5월 입법: 비즈니스서비스업 관련 투자여건개선에 초점
관광업	- 고급화된 관광레저 수요증대를 고려한 투자유치전략의 수립	- 마리나리조트, 골프레지던스, 프라이버시보장형 리조트 등
	- 잠재력이 큰 틈새 호텔분야 비즈니스 모델의 제시를 통한 투자유치	-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합리적 가격의 비즈니스호텔분야
물류	- 물류인프라 부문보다는 제3자물류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집중	- 제3자 물류의 경우 고용 및 관련 산업의 생산성 제고효과가 높음
	- 국내 관련기업과의 전략적 제휴형 투자유치	- 물류노하우, IT, 공급망관리, 경영컨설팅 등 국내 관련 기업과 협력
전자/전기기기	- 국내 전자기업의 신사업기회 모색 차원에서 잠재적 글로벌 협력기업 유치	- IK가 글로벌 산업추세와 주요 신기술 개발 외국기업의 발굴
비금속광물	- 소재산업의 핵심부분이기 때문에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한 투자유치	- 원료생산지(러시아 및 중국), 시장의 인접성과 인프라를 연계

- 한편,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및 환경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업종별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규제 및 환경 개선방안

타겟업종	업종별 규제 및 환경개선 방안	근거 및 관련 사항
금융 및 보험업	- 제2금융권 및 보험 분야 일부 규제 완화	- ‘금융관련 FDI 유치방안 보고서(자본 시장연구원)’
	-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내외 금융기관간 공정경쟁 제고	- 외환거래시 거래원본 제출 부담 등
사업 서비스업	- 법률, 회계, 세무 서비스의 추가개방	- 한미FTA의 비준 조속 추진
	-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 한·인도 CEPA 협정을 활용한 인도의 고급IT인력의 확대도입
관광업	- 중급 비즈니스호텔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 관광업 개별형 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1천만 투자로 하향조정
	- 고급관광레저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용지 공급 등 투자여건 개선	- 투자유치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 확대
물류	- 제3자 국제물류전문기업의 육성정책 추진	- 외국의 전문물류기업과 국내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적극 지원
의료	- 의료산업화 촉진을 통한 개방 노력 전개	-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의료인력의 경쟁력 제고
		-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제고
교육	- 외국대학의 투자재산 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상적인 재산상승분을 인정하는 방안 검토	- 특수목적의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제한 완화 추진

-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투자금액과 고용유발효과의 관계에서 투자금액이 중소(100억 이하) 및 중견 규모(100억-1000억)인 경우가 1000억 이상의 투자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비록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규모 이하의 투자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 및 중견규모의 투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투자금액 위주의 투자유치 성과관리 시스템을 고용유발효과 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 유치와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치 관리방안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 유지와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관리방안

구분	장기적 비즈니스기회 발굴형 투자에 대한 유치전략	투자금액에서 고용유발효과로 투자유치 성과관리체계의 개편
고용효과가 높은 투자의 특징	- 우수인력 및 기술력 활용투자 - 내수시장 확보목적 투자 - 투자기간이 긴 투자	- 소규모(100억 이하) 및 중견규모(100억-1000억)의 투자가 10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보다 고용효과 더 높음
투자유치 관리방안	- IK에 업종에 관계없이 한국을 거점으로 장기적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조직을 설치하여 투자유치전략 수립	- IK의 투자유치 실적목표에서 금액목표의 비중을 축소하고 고용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목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개편

□ 마지막으로 고용창출효과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외국인투자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파급효과의 평가에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할 필요성

<표> 고용창출효과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구분	개선방안	필요사항
1. 조세감면제도에 고용요소 반영	- 확정적 감면보장 방식에서 “최대한도”방식으로 변경: 최장 10년, 그 수준은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여 외투위원회 결정 - 조세감면 결정을 투자 및 고용창출 이행의무와 연계	-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인센티브 평가조직을 IK에 설치
2.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에 고용요소와 투자금액 요소를 결합한 조세감면제도를 도입	- 금융업을 제외한 입주대상 서비스업에 대해서 투자금액 500만불, 고용 100인 이상의 경우 5년 조세감면 제공
3. 2010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외투인센티브 고용요소 관련 사항	- 조세감면한도를 투자금액의 최대 70%까지 한정하고, 고용창출효과가 크면 최대 90%까지 제공하는 방안은 고용요소를 고려했다기 보다는 투자인센티브 제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상기 1호의 경우처럼 개선하는 것이 필요	

차례

Summary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내용 및 범위	2
II. 현황분석	4
1.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및 특징	4
1.1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4
1.2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	6
2.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고용창출 효과분석	14
2.1 분석모형: 산업연관분석	14
2.2 분석자료	15
2.3 분석 결과	21
3. 기업 자료를 이용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창출 현황 및 효과분석	36
3.1 외국인 투자 업종별 고용 현황 및 효과 분석	36
3.2 외국인 투자의 고용의 질(quality) 분석	48
3.3. 외국인투자 업종별 투자금액 대비 고용현황 및 효과분석 ..	65
4. 국내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효과 비교	74
4.1 국내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고용효과 비교 방법	74
4.2 산업별 국내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고용효과 비교 ..	75
4.3 각 산업별 외투기업의 고용 비중	79

5.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업종 분석	82
5.1. 다양한 기준에 의한 고용효과 분석	82
6. 실증분석결과의 투자유치관련 시사점	107
6.1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업종	107
6.2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	109
III. 해외사례 조사	109
1.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정책, 사례 등 외국 현황	109
1.1 영국	109
1.2 프랑스	111
2.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 사례 등 외국 현황	113
2.1 싱가포르	113
2.2 대만	117
IV. 정책제안 및 방안 도출	120
1.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	120
1.1 해당 업종의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 및 글로벌 기업 도출	120
1.2 전략적 유치 타겟 지역(국가) 및 기업 도출, 선정	124
1.3 업종 분야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치 촉진 방안 등	132
2.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의 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및 환경 개선 등 여건조성 방안	138
2.1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의 유치 촉진을 위한 전반적 환경 개선 방안	138
2.2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의 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및 환 경 개선방안	142

3.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 유지와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 유치 관리방안	146
3.1 장기적인 비즈니스기회 발굴형 투자유치전략 수립	146
3.2 투자유치 성과관리체계를 투자금액에서 고용유발효과 중심으로 개편	147
4. 고용창출 효과에 따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방안	149
4.1 현행 외국인투자지원제도상 고용에 대한 고려	149
4.2 고용창출 효과에 따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방안	150
[참고문헌]	155
[부록]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및 생산유발효과	15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제조업 부문의 전반적인 투자부진과 더불어 자동화 투자확대,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우리 경제 자체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일자리 창출의 유력한 대안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난 바 있음
 - LG경제연구원(2006)은 2000~2005년간 전체 취업자 증가자 (256만명)의 20% (52만명)가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창출되었다고 분석
 - 대한상공회의소(2004)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진출 당시보다 1개사당 평균 고용인원이 57.4% 늘었으며, 신규투자 형태인 경우 136.7%, 기존기업 인수 형태인 경우 17.2%, 그린필드형 신규투자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한국노동연구원(2009)에서 실시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고용효과 분석’에서 보면, 실제로 2000~2007년간 외투기업의 고용증가율이 3.7%로 동기간 국내 전 사업체의 연평균 근로자 증가율 2.5% 대비 1.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내용과 관련 외투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가 최근 상황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재분석 및 외투기업의 양적인 고용창출 기여도가 지속·제고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 도출 필요
- 또한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 및 고부가가치 지식산업화와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및 고부가가치

치 제조업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외국인투자가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약화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임을 말해 주는 것임
-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 전체적으로 취업유발 효과가 큰 산업·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노력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 외투기업에 지원 확대 필요

□ 이에 본 연구의 목표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 등 정부의 정책의제 연계 산업부문 및 고성장 양상을 보이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아울러, 고용창출에 있어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더욱 촉진되어야 할 산업분야의 도출 및 관련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병행

2. 연구내용 및 범위

□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투기업의 고용창출 현황 등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촉진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 유망 업종을 선별, 해당 산업의 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 이를 위하여 먼저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

- 기간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시기별, 산업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파악

-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계수 등을 통해 각 산업별 외국인투자의 경제 기여도 분석 및 유망업종 선정
-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투기업의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 업종별, 기업 규모별, 투자 목적별, 투자 기간 별 등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외투기업의 고용창출효과 분석
- 아울러 외투기업의 고용의 질(quality)적인도 함께 분석
 - 투자금액대비 고용인 수를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고용의 양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함께 분석
-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고용증대를 위한 투자유치 타겟업종을 선정하여 정책제안
-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정책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제안
 -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외국인유치방안
 -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의 유치 촉진을 위한 전반적 환경개선방안
 -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 유지와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치 관리방안
 - 고용창출효과에 따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방안

II. 현황분석

1.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및 특징

1.1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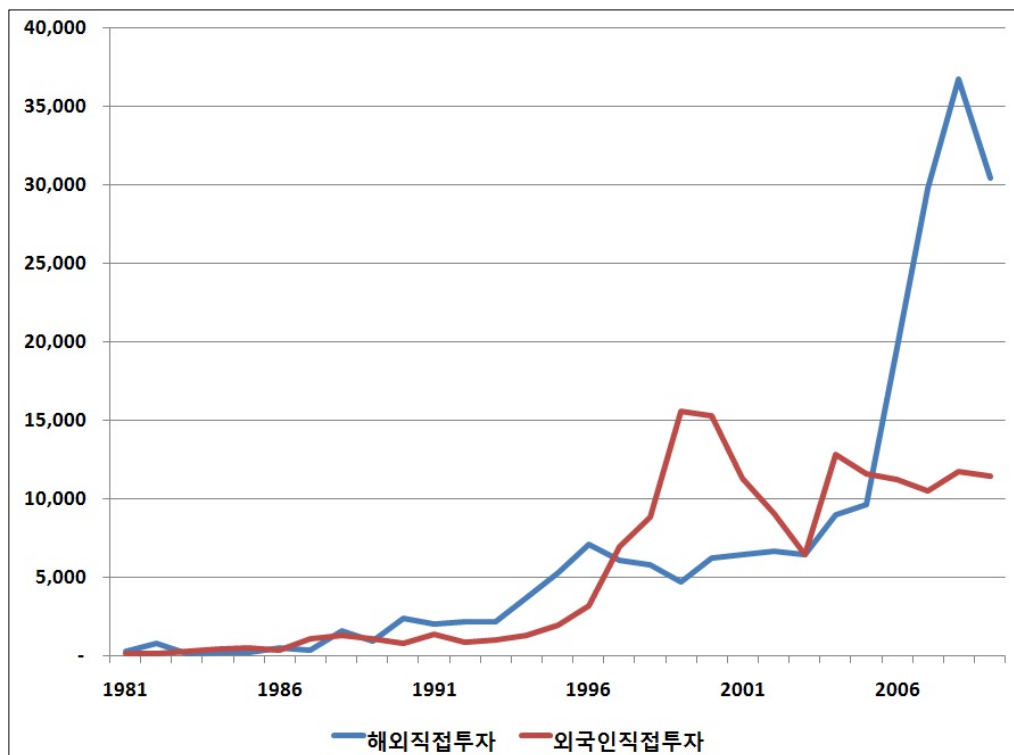
□ 한국의 직접투자 현황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 직접투자 추이 비교

- <그림 II-1>은 1981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으로 유입된 신고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액과 한국에서 유출된 해외 직접투자액을 나타냄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 졌으나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함.
-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자유화 확대와 부실기업 정리 및 구조조정의 진행, 그리고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촉진 등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등으로 크게 증가함.
-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 중반까지는 정부의 외환규제에 의해 한정된 영역에서 소규모로 실시되었으나 1980년 중반 이후 계속되는 무역흑자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많은 규제완화, 임금상승, 노사관계 악화 등에 의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기 시작함
- 외국인직접투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50억불을 넘어서면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150억불 이상 유입되어 가장 높은 외국인직접투자가 나타났으나, 이후 2003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약 110~120억불 사이에서 안정된 형태를 나타냄.

- 반면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 처음으로 50억불을 넘어섰지만, 외환위기 이후 2004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6년부터 해외직접투자는 매우 크게 늘어나 외국인직접투자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냄.

<그림 II-1>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추이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주 :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1.2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

□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전환
- <표 II-1>은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로 나타냄
- 제조업의 비중은 1980년과 1990년 각각 70.4%와 64.8%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는 산업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20~30%대를 기록
-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1980년과 1990년에는 각각 25.6%와 35.0%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60% 이상의 비중을 나타냄
- 이와 같이 직접투자의 중심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된 것은 한국의 산업이 고도화되고, 선진국화되는 과정에서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비용측면의 유리함이 사라지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II-1>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건수-건, 금액-백만불, 비중-%)

년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건수	83	260	832	748	713	684	601	544
	금액	101	520	6,877	3,078	4,253	2,692	3,007	3,725
	비중	70.4	64.8	45.1	26.6	37.8	25.6	25.7	32.4
서비스업	건수	15	217	3,260	2,857	2,340	2,803	3,067	2,528
	금액	37	281	8,129	8,301	6,627	7,613	8,387	7,594
	비중	25.6	35.0	53.3	71.8	58.9	72.4	71.6	66.1
기타 산업	건수	3	5	54	64	55	73	76	59
	금액	6	2	259	187	368	210	317	165
	비중	4.0	0.3	1.7	1.6	3.3	2.0	2.7	1.4
전체	건수	101	482	4,146	3,669	3,108	3,560	3,744	3,131
	금액	143	803	15,265	11,566	11,247	10,516	11,711	11,484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주요 투자유입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북미주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아시아, 유럽 중심의 투자유입으로의 전환
- <표 II-2>은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를 북미주, 아시아, 유럽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 북미주의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1980년, 1990년, 2000년에 각각 7800만 달러, 3억 3600만 달러, 60억 4200만 달러를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는 유입지역이었으며, 이 기간동안 미국이 가장 높은 외국인직접투자를 나타냄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미주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감소하

였으며 이에 따라 비중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짐

- 반면,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경우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최근까지 가장 높은 투자액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전환됨
- 이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는 과거 북미주에 중심으로 투자유입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유럽, 아시아, 북미주 순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음

<표 II-2> 주요 투자유입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백만불)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143	803	15,265	11,566	11,247	10,516	11,711	11,484
북아메리카	78	336	6,042	3,108	1,948	3,191	1,904	2,167
미국	71	318	2,921	2,690	1,711	2,329	1,328	1,486
캐나다	-	8	520	193	83	51	90	303
버뮤다	-	0	1,385	40	8	31	41	24
케이만군도	-	10	898	144	95	560	329	213
버진아일랜드	-	-	256	24	41	137	113	132
아시아	43	257	4,717	3,514	4,009	2,335	3,280	3,704
일본	43	236	2,452	1,881	2,111	990	1,423	1,934
싱가포르	-	14	297	389	557	516	916	436
홍콩	1	3	123	820	165	132	242	773
말레이시아	-	-	1,408	211	66	75	53	84
중국	-	0	76	68	40	385	336	161
대만	-	4	251	13	18	17	144	7
유럽	16	207	4,479	4,874	5,233	4,630	6,483	5,364
독일	9	62	1,627	705	484	439	685	570
영국	2	45	86	2,308	698	338	1,231	1,950
프랑스	-	22	616	85	1,173	439	538	110
벨기에	2	5	165	54	567	79	72	32
네덜란드	2	36	1,775	1,150	800	1,991	1,230	1,901
아일랜드	-	0	49	42	614	60	115	5

자료 :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투자목적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Greenfield형 외국인직접투자와 M&A형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표 II-3>은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를 Greenfield형 직접투자와 M&A형 직접투자로 나타냄
- Greenfield형 직접투자와 M&A형 직접투자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건수에서는 Greenfield형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금액에서도 Greenfield형 투자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건수 차이에 비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Greenfield형 투자가 건수를 많이 차지하고 비중도 높지만, 건당으로 계산하여 보면 건당 투자액은 M&A형 투자가 더욱 크게 나타남.

<표 II-3> 투자목적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건수-건, 금액-백만불, 비중-%)

	Greenfield			M&A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1998	1,138	3,775	42.6	263	5,077	57.4
1999	1,836	10,419	67.0	268	5,125	33.0
2000	3,819	12,391	81.2	326	2,865	18.8
2001	3,045	8,638	76.5	297	2,649	23.5
2002	2,126	7,011	77.1	284	2,084	22.9
2003	2,281	3,528	54.5	288	2,943	45.5
2004	2,738	6,625	51.8	339	6,167	48.2
2005	3,297	6,297	54.4	371	5,268	45.6
2006	2,743	6,930	61.7	364	4,310	38.3
2007	3,215	8,029	76.4	344	2,481	23.6
2008	3,412	7,279	62.2	332	4,431	37.8
2009	2,863	8,109	70.6	268	3,375	29.4

자료 :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외국인직접투자 비교

○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미미

- 한국의 경우 규모면에서나 GDP대비 비중 면에서 동아시아 주요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균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더 낮은 외국인직접투자 수준을 나타냄.
- <표 II-4>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을 나타냄. 2008년 현재 절대 규모면에서 아세안 주요 9개국 중에서 한국은 필리핀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 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전체기간을 통해서 살펴봐도 증가율 면에서도 낮은 수준이며 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뒤처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표 II-4>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중국	57	3,487	40,715	72,406	72,715	83,521	108,312
홍콩	710	3,275	61,924	33,618	45,054	54,365	63,003
인도네시아				8,336	4,914	6,928	7,919
일본	278	1,753	8,323	2,775	6,506	22,549	24,426
한국	17	759	9,004	7,055	4,881	2,628	7,603
말레이시아	934	2,611	3,788	4,064	6,060	8,401	8,053
필리핀	114	550	2,240	1,854	2,921	2,916	1,520
싱가포르	1,236	5,575	16,484	14,374	27,680	31,550	22,725
태국	189	2,575	3,349	8,048	9,460	11,238	10,091
베트남	2	180	1,289	2,021	2,400	6,739	8,050

자료 : UNCTAD website

주: UNCTAD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와 지식경제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규모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음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은 규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규모를 감안하여 살펴보면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표 II-5>와 <표 II-6>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액(flow)과 저장액(stock)을 GDP로 나누어 비교하여 나타냄.
- 먼저 유입액을 200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은 GDP의 약 0.9%로 나타나, 일본, 필리핀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2008년도 전세계 평균 GDP 대비 유입액의 경우 2.78%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3.63%, 아시아 개도국 평균의 경우 3.49%로 나타나 한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진국 평균도 2.32로 나타나, 경제 발전정도가 높은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됨을 나타냄.

<표 II-5> 동아시아 국가 및 주요국들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Flow)

(단위 : %)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중국	0.02	0.86	3.41	3.14	2.62	2.46	2.49
홍콩	2.46	4.26	36.62	18.90	23.74	26.30	29.24
인도네시아				2.92	1.35	1.60	1.55
일본	0.03	0.06	0.18	0.06	0.15	0.51	0.50
한국	0.03	0.29	1.76	0.89	0.55	0.27	0.90
말레이시아	3.67	5.71	4.04	2.95	3.87	4.50	3.63
필리핀	0.35	1.24	2.95	1.88	2.48	2.02	0.90
싱가포르	10.55	15.11	17.78	12.00	20.27	19.55	12.93
태국	0.58	3.02	2.73	4.56	4.58	4.58	3.70
베트남	0.07	2.78	4.14	3.83	3.94	9.47	8.86
전세계 평균	0.50	0.94	4.33	2.16	2.99	3.62	2.78
개도국 평균	0.30	0.91	3.77	3.14	3.57	3.70	3.63
선진국 평균	0.56	0.99	4.53	1.83	2.76	3.53	2.32
아시아 개도국 평균	0.04	1.04	3.58	3.11	3.53	3.51	3.49

자료 : UNCTAD website

- 이러한 결과는 유입량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입된 모든 외국인직접투자를 모두 합친 저량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저량액은 10.71%로 나타나 일본, 중국과 같이 GDP 규모가 큰 국가를 제외한 동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은 비단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균, 개도국 평균, 아시아 개도국 평균 심지어 선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임.

<표 II-6> 동아시아 국가 및 주요국들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Stock)
(단위 : %)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중국	0.35	5.12	16.21	11.82	10.55	9.62	8.69
홍콩	616.82	262.26	269.32	294.20	391.13	569.63	387.84
인도네시아				14.41	14.96	13.66	13.10
일본	0.31	0.33	1.08	2.22	2.46	3.03	4.14
한국	1.78	1.97	7.45	13.25	13.42	12.50	10.71
말레이시아	20.33	22.57	56.24	32.23	34.34	41.03	33.01
필리핀	2.82	10.22	23.92	15.17	14.39	13.84	12.73
싱가포르	45.66	82.57	119.26	162.44	179.06	188.05	185.57
태국	3.03	9.66	24.38	34.24	37.33	38.62	38.47
베트남	59.10	25.49	66.07	58.93	55.08	56.59	53.18
전세계 평균	6.51	8.77	18.05	22.28	25.43	28.66	24.38
개도국 평균	12.06	13.74	25.47	25.96	27.64	30.73	24.73
선진국 평균	4.87	8.10	16.04	21.04	24.54	27.48	24.60
아시아 개도국 평균	16.60	16.24	25.87	23.62	26.08	30.00	23.18

자료 : UNCTAD website

2.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고용창출 효과분석

2.1 분석모형: 산업연관분석

□ 산업연관분석의 특징 및 장점

- 산업연관분석은 산업간 관계에 근거하여 산업간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비록 선형계획법에 의한 단순한 분석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는 분석 방법임
- 첫째,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재화의 산업간 순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유리
- 둘째, 거시미시분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 투자, 수출 등의 변화에 따른 부문별 생산, 고용, 수입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경제계획의 수립 및 예측 또는 산업구조정책의 방향설정 등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
- 셋째, 산업연관분석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부문의 생산 및 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실시에 따른 생산, 고용, 수입, 물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유리
- 넷째, 임금, 이윤 등 부가가치 변동에 따른 산업부문별 가격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특정 부문의 가격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정을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와 산업연관표

-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효과를 전후방 연관효과로 나누어서 파악
- 전후방 효과로 나누는 이유는 산업연관표가 기본적으로 국민소득 통계와 동일하게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작성되므로 국민소득 통계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나, 국민소득 통계에서 제외된 중간생산물의 산업간 거래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임(한국은행, 2004)
- 따라서 직접적인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 고용효과까지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순환 과정을 이용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¹⁾

2.2 분석자료

□ 외국인직접투자 자료의 조정

- 이상에서 논의한 산업분석모형을 이용하기 위한 자료는 지식경제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 자료임
- 그러나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 원자료를 다음과 같이 재조정하였음
 - 첫째, 연도의 구분을 신고기준으로 정의함. 이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신고기준에 의하면 모든 투자의 연도구분이 가능하나 상당부분의 자료가 실제 투자기준의 연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²⁾

1) 산업연관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및 생산유발효과”를 참조하기 바람
2) 예를 들어 1980-2003년 기간 중 신고연도로 계산된 건수는 14,067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투자연도로 기록된 건수는 11,347건에 불과하여 투자연도를 사용하는 경우 2,720건이 누락된다.

- 둘째, 실제투자액을 사용함. 많은 연구들이 자료의 한계성에 의해 신고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본 논문의 목적 즉, 구체적인 고용유발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투자액을 사용해야 함
-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연도는 신고연도를 사용하고 액수는 신고액이 아닌 투자액으로 정의함. 산업연관분석에서는 5년 간격의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도의 차이가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원자료를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정리함³⁾
-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는 1962년부터 2008년까지의 외국인투자기업현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원시자료를 통해 측정가능함. 이중 1990년 이후의 자료만을 정리하여 분석함.

□ 산업연관분석 자료와 외국인직접투자 자료의 결합⁴⁾

- 외국인직접투자 자료를 산업연관표 대분류와 맞춰 28분류로 재정리하여 결합
- 산업분류의 경우 직접투자의 자료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산업연관표상의 28분류로 전환하여 사용⁵⁾
- 또한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는 달러를 기준으로 기록된 반면, 산업연관표상의 취업계수는 10억 원 단위로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자

3)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산업연관표는 85-90-95년을 연결한 접속경상표이다.

4) 본 연구에서 산업연관분석 자료와 외국인직접투자 자료의 결합은 최강석외(2010)의 방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5) 외국인직접투자 데이터의 경우 산업분류가 산업연관표에서와 같이 중분류, 소분류로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연관표상의 28분류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료를 연결하기 위해 직접투자 자료를 각 연도의 환율을 이용하여 10억 원 단위로 환산함

-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나누는 기준은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발표하는 산업분류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참고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비교하여 재구성함
- 1차 산업은 산업연관표상의 1번과 2번인 농림어업과 광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제조업은 산업연관표상의 3번부터 16번까지로 정의하였고, 서비스업은 건설업과 전기·가스·수도를 포함해 17번부터 27번까지로 정의⁶⁾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원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음.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과정을 적용
- 외국인직접투자의 파급효과를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이 아닌 도착금액을 기준으로 효과를 계산
- 실제 투자활동에 이어지는 금액의 크기는 신고금액보다 해당기간의 도착금액에 더 의존하므로 실제도착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
- 외국인직접투자 원자료가 미화 달러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원화가치로 적절하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
-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미화달러대 원화 기준환율의 연간 평균치를 적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파급효과를 계산
- 투자년도를 원자료 상의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

6) 건설업의 경우 비교역재라는 특성으로 서비스업과 유사하여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분류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세한 분류는 <부표 1>에 실려 있다.

- 원자료 상에 신고년도는 명시되어 있는 반면 실제 투자년도는 기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신고년도를 투자년도로 사용
-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의 기간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이다. 분석의 편의상 1기를 1990년부터 1995년으로, 2기를 1996년부터 2001년으로, 3기를 2002년부터 2008년까지로 정의. 또한 산업연관표가 5년 단위로 발표되는 점을 감안하여 1기에는 1995년도 산업연관표를, 2기에는 2000년도 산업연관표를, 3기에는 2005년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원자료 간의 산업분류를 매칭.

□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 <표 II-7>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군의 지난 20년간 국내 투자실적을 나타냄
- 1기(1990년-1995년)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기업군의 투자실적은 77억불로 집계되었으며 819건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투자실적을 나타낸 분야는 통신 및 방송 산업이며, 금융 및 보험, 전기 및 전자기기에서 높은 투자실적을 나타냄.
- 2기(1996년-2001년)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기업군의 투자실적은 약 251억불로 집계되었으며 3,882건으로 나타남. 1기에 비해 제조업분야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높은 투자실적을 나타낸 산업은 비금속광물제품 산업에서 나타났으며, 통신 및 방송 산업, 금융 및 보험 산업에서 높은 투자실적을 나타냄.
- 3기(2002년-2008년)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기업군의 투자실적은 약

477억불로 집계되었으며 9,040건으로 나타남. 대체적으로 서비스 산업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높은 투자실적을 나타내는 산업은 통신 및 방송 산업이며, 비금속광물제품 산업, 금융 및 보험 산업에서 높은 투자실적을 나타냄.

<표 II-7>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전체)

(단위: 미화 백만 불)

산업명	1기(1990년-1995년)		2기(1996년-2001년)		3기(2002년-2008년)	
	건수	도착금액	건수	도착금액	건수	도착금액
농림수산물	0	0.0	10	224.5	25	2.8
광산물	13	6.1	50	1,971.2	69	2,372.8
음식료품	8	4.9	10	34.5	14	12.4
섬유및 가죽제품	29	536.1	67	1,202.8	81	401.2
목재및 종이제품	49	521.1	92	1,203.4	139	1,234.1
인쇄 및 복제	10	5.2	32	413.3	58	543.5
석유 및 석탄제품	15	331.6	27	1,387.3	34	693.2
화학제품	24	38.4	64	849.5	107	686.3
비금속광물제품	25	516.8	190	3,449.6	389	6,288.8
제1차 금속제품	15	73.5	45	53.2	68	127.1
금속제품	18	49.7	69	203.0	89	545.0
일반기계	73	274.7	152	1,075.9	207	1,112.2
전기 및 전자기기	27	882.0	81	1,432.9	230	3,643.1
정밀기기	7	3.9	29	44.3	31	87.7
수송장비	0	0.0	6	332.3	32	329.4
기타제조업제품	0	0.0	0	0.0	2	0.2
전력, 가스 및 수도	5	17.8	14	9.5	40	463.1
건설	321	818.4	1,933	1,397.7	4,953	1,801.2
도소매	23	13.1	128	1,977.6	380	3,470.5
음식점 및 숙박	11	257.0	126	214.9	413	378.2
운수	7	177.9	85	1,609.0	131	2,941.8
통신 및 방송	26	1,918.4	75	2,688.2	174	13,354.8
금융 및 보험	6	1,230.0	77	2,003.1	289	4,575.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88	81.8	408	1,279.1	803	2,334.5
공공행정 및 국방	3	9.5	28	6.1	43	19.2
교육 및 보건	10	4.7	48	24.1	140	121.6
사회및 기타서비스	6	14.9	36	75.9	99	204.2
기타	0	0.0	0	0.0	0	0.0
합계	819	7,787.7	3,882	25,163.0	9,040	47,744.1

자료 : 지식경제부

2.3 분석 결과

1) 취업효과

□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 취업유발효과의 70% 가량은 서비스산업에서 유발
 - <표 II-8>은 각각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취업유발인원을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정리한 결과임
 -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보면, 1기에서는 1차 산업이 5,188명(2.85%), 제조업이 47,712명(26.18%), 서비스업이 129,314명(70.97%)으로 전체 취업 유발효과는 182,215명으로 나타남.
 - 2기에서는 1차 산업이 54,932명(10.46%), 제조업이 137,432명(26.17%), 서비스업이 332,862명(63.37%)으로 전체 취업 유발효과는 525,227명으로 나타남.
 - 3기에서는 1차 산업이 32,629명(5.07%), 제조업이 126,904명(19.70%), 서비스업이 484,630명(75.23%)으로 전체 취업 유발효과는 664,163명으로 나타남.
 -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유발된 취업효과는 1,351,605명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볼 때 1차 산업의 취업유발인원 비중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대부분의 취업인구유발이 나타남
 - 특히 서비스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취업유발인원이 3기간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1차 산업과 서비스업은 생산유발액의 비중보다 취업유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제조업은 생산유발에 비해 취업유발이 작게 나타남
- 이는 1차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같은 10억 원이 유입되더라도 1차 산업이나 서비스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
- 제조업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는 이유는 고용환경의 변화와 설비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표 II-8>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취업유발효과

	1990~1995	1996~2001	2002~2008
1차 산업	5,188 (2.85)	54,932 (10.46)	32,629 (5.07)
제조업	47,712 (26.18)	137,432 (26.17)	126,904 (19.70)
서비스업	129,314 (70.97)	332,862 (63.37)	484,630 (75.23)
계	182,215	525,227	644,163

주: 단위는 명이며, ()는 전체에서의 비중으로 %임.

- 고용유발효과도 70% 가량은 서비스산업에서 유발
- <표 II-9>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고용유발인원을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정리한 결과임
- 고용유발효과의 결과도 취업유발효과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나 효과의 크기는 자영업, 무급근로자를 제외하고 측정되기 때문에 더 작게 나타남.
-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유발효과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고용유발효과는 1기에 141,700명, 2기에 360,807명, 3기에 476,536명으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유발된 고용인원은 총 979,043명으로 나타남.

<표 II-9>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유발효과

	1990~1995	1996~2001	2002~2008
1차 산업	1,598 (1.13)	23,459 (6.50)	17,585 (3.69)
제조업	45,037 (31.78)	123,690 (34.28)	115,257 (24.19)
서비스업	95,065 (67.09)	213,657 (59.22)	343,694 (72.12)
계	141,700	360,807	476,536

주: 단위는 명이며, ()는 전체에서의 비중으로 %임.

2) 각 산업별 취업효과

□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 취업유발효과는 서비스산업에서 크게 발생하지만, 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기간에 따라 변함
- <표 II-10>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냄.
- 1기에 전체 산업에서 유발된 취업인원은 182,215명으로 나타남. 음식점 및 숙박, 금융 및 보험 그리고 통신 산업 순으로 취업유발인원이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남. 2기에 유입된 외투기업의 직접투자금액은 약 252억불로 전기에 비해 절대적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산업에서 유발된 취업인원은 525,227명으로 나타남. 도소매, 금융 및 보험, 운수산업 순으로 취업유발인원이 타 산업에 비해 큼. 3기에 유입된 외투기업의 직접투자금액은 약 477억불이며, 644,163명의 취업을 유발함. 도소매, 운수 그리고 통신 및 방송 산업 순으로 취업유발인원이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남.
-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서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남. 이는 서비스 산업이 취업계수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취업유발효과는 1기에 음식점 및 숙박, 금융 및 보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기와 3기를 거치면서 도소매업, 운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이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냄.
- 1차 산업과 제조업 부분에서는 비금속광물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에서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남.

<표 II-10>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산업명	1기 (1990년-1995년)	순위	2기 (1996년-2001년)	순위	3기 (2002년-2008년)	순위
농림수산물	3,976	12	31,603	5	15,094	12
광산물	1,212	20	23,329	9	17,535	11
음식료품	796	21	2,037	23	2,447	23
섬유 및 가죽제품	12,043	4	23,133	10	6,627	19
목재 및 종이제품	6,152	10	16,001	12	12,657	13
인쇄 및 복제	1,260	19	10,426	15	8,487	17
석유 및 석탄제품	485	23	1,065	25	627	27
화학제품	2,632	14	11,288	14	8,783	16
비금속광물제품	6,951	8	33,413	4	36,595	6
제1차 금속제품	1,544	18	2,567	21	2,502	22
금속제품	1,852	17	7,459	19	10,040	15
일반기계	3,759	13	14,382	13	10,570	14
전기 및 전자기기	9,243	6	9,764	16	20,898	9
정밀기기	230	26	1,141	24	1,739	24
수송장비	290	25	3,731	20	3,611	20
기타제조업제품	475	24	1,025	26	1,321	25
전력, 가스 및 수도	772	22	2,338	22	3,323	21
건설	11,403	5	23,732	8	24,479	8
도소매	8,452	7	136,423	1	159,874	1
음식점 및 숙박	41,075	1	27,046	6	30,351	7
운수	6,271	9	35,385	3	69,593	2
통신 및 방송	19,062	3	16,743	11	57,271	4
금융 및 보험	31,935	2	47,094	2	49,988	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821	11	25,413	7	62,691	3
공공행정 및 국방	179	27	112	27	805	26
교육 및 보건	2,276	15	9,256	18	7,054	18
사회 및 기타서비스	2,068	16	9,320	17	19,201	10
합계	182,215		525,227		644,163	

- 고용유발효과는 취업유발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보다 낮게 나타남
- <표 II-11>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냄.
- 1기에 전체 산업에서 유발된 고용인원은 141,700명으로 나타나며, 금융 및 보험, 통신 및 방송, 음식점 및 숙박 순으로 고용유발인원이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남. 2기에 전체 산업에서 유발된 고용 인원은 360,807명으로 나타나며, 도소매, 금융 및 보험, 운수산업 순으로 고용유발인원이 타 산업에 비해 큼. 3기에 전체 산업에서 유발된 고용인원은 479,536명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 운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순으로 고용유발인원이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남.
- 취업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주로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1차 산업과 제조업 부분에서는 비금속광물 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에서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남.

<표 II-11>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산업명	1기 (1990년-1995년)	순위	2기 (1996년-2001년)	순위	3기 (2002년-2008년)	순위
농림수산물	400	24	2,335	22	1,436	24
광산물	1,198	18	21,124	6	16,149	9
음식료품	739	21	1,498	23	1,769	22
섬유 및 가죽제품	10,371	5	20,161	8	5,546	18
목재 및 종이제품	5,841	8	13,894	10	11,190	12
인쇄 및 복제	1,202	17	8,628	15	6,985	16
석유 및 석탄제품	482	22	1,052	25	619	27
화학제품	2,582	13	10,805	13	8,384	14
비금속광물제품	6,789	7	30,803	3	33,766	6
제1차 금속제품	1,527	16	2,461	20	2,429	21
금속제품	1,763	15	6,226	17	8,366	15
일반기계	3,658	11	13,176	11	9,745	13
전기 및 전자기기	9,121	6	9,470	14	20,258	8
정밀기기	224	26	1,054	24	1,632	23
수송장비	286	25	3,664	19	3,531	19
기타제조업제품	452	23	798	26	1,037	25
전력, 가스 및 수도	772	20	2,338	21	3,317	20
건설	10,886	4	22,539	5	24,274	7
도소매	3,000	12	55,282	1	73,280	1
음식점 및 숙박	17,450	3	11,750	12	14,217	10
운수	4,837	9	25,557	4	47,975	5
통신 및 방송	18,936	2	16,250	9	55,797	3
금융 및 보험	31,732	1	46,768	2	49,489	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164	10	20,237	7	56,526	2
공공행정 및 국방	179	27	112	27	805	26
교육 및 보건	2,028	14	8,304	16	6,443	17
사회 및 기타서비스	1,081	19	4,520	18	11,571	11
합계	141,700		360,807		476,536	

3) 투자 목적별 취업유발 효과

□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 외국인직접투자를 목적별로 M&A와 greenfield형으로 구분하여 목적별 외국인직접투자의 취업유발효과 측정

-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자료로 인해 개별기업의 투자를 목적별로 나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산업별 목적별 외국인 직접투자를 본 연구의 분석기간에 맞게 재정리하여 각 산업의 목적별 비율을 구함.⁷⁾

- 산업별 목적별로 구해진 비율에 각 기간의 총투자금액을 인센티브 수혜기업들의 투자실적과 외국인투자 전체 실적을 적용하여 각 산업과 기간에 대해 M&A형 투자와 greenfield형 투자로 나누어 자료를 정리함.

○ 목적별 취업유발효과는 Greenfield형 투자가 M&A형 투자에 비해 크게 나타남.

- <표 II-12>과 <표 II-13>은 목적별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실적을 바탕으로 도출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취업 및 고용파급효과를 목적별로 나타낸 표임⁸⁾.

- 1기(1990년-1995년)에 유입된 외투기업의 직접투자 중에서 M&A형 투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취업 및 고용 유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Greenfield형 투자에 의해 발생한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는 189,628명(고용인원 146,656명)으로 나타남

7) 목적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부표2>을 참조하기 바람.

8)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목적별 자료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한된 자료는 연도별로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앞서 <표 2-10>~<표 2-11>에서 살펴본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음.

- 2기(1996년-2001년)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전체에 유발한 취업유발인원 중 143,589명은 M&A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이며, 393,190명은 Greenfield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임. 자영업자나 무임금 가사노동자를 제외한 고용유발인원 중 109,505명은 M&A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고용인원이며, 259,862명은 Greenfield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고용인원임.
- 3기(2002년-2008년)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전체에 유발한 취업유발인원 중 198,517명은 M&A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이며, 465,146명은 Greenfield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임. 고용유발인원을 살펴보면 148,528명은 M&A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고용인원이며, 341,870명은 Greenfield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고용인원임.

<표 II-12>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목적별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산업명	1기(1990년-1995년)		2기(1996년-2001년)		3기(2002년-2008년)	
	M&A	Greenfield	M&A	Greenfield	M&A	Greenfield
농림수산물	0	4,081	4,124	27,342	3,611	12,083
광산물	0	1,238	2,126	19,089	4,751	13,494
음식료품	0	817	541	1,556	589	1,959
섬유및 가죽제품	0	12,571	12,713	10,218	1,622	5,461
목재및 종이제품	0	6,265	10,693	5,871	2,139	10,724
인쇄 및 복제	0	1,299	7,068	3,672	1,277	7,865
석유 및 석탄제품	0	497	347	770	228	408
화학제품	0	2,694	4,162	7,312	3,089	5,921
비금속광물제품	0	7,121	17,851	16,185	8,949	27,734
제1차 금속제품	0	1,557	834	1,791	978	1,583
금속제품	0	1,875	2,871	4,915	4,362	6,040
일반기계	0	3,815	4,155	10,090	3,658	7,079
전기 및 전자기기	0	9,265	2,996	7,573	6,665	13,919
정밀기기	0	235	372	793	506	1,263
수송장비	0	299	1,156	2,387	1,475	2,166
기타제조업제품	0	490	310	729	365	986
전력, 가스 및 수도	0	790	872	1,480	1,532	1,901
건설	0	11,492	1,653	23,443	9,438	15,934
도소매	11	8,613	24,153	113,083	48,825	115,584
음식점 및 숙박	0	44,572	6,999	20,957	6,041	25,863
운수	0	6,538	5,531	35,312	31,347	41,262
통신 및 방송	0	19,078	5,500	11,478	7,661	49,718
금융 및 보험	0	33,800	14,788	33,531	26,776	26,117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	6,000	6,367	19,350	16,422	48,515
공공행정 및 국방	0	195	39	77	306	524
교육 및 보건	0	2,313	3,035	6,441	2,185	5,025
사회및 기타서비스	0	2,118	2,333	7,744	3,721	16,018
기타	0	0	0	0	0	0
합계	13	189,628	143,589	393,190	198,517	465,146

<표 II-13>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목적별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산업명	1기(1990년-1995년)		2기(1996년-2001년)		3기(2002년-2008년)	
	M&A	Greenfield	M&A	Greenfield	M&A	Greenfield
농림수산물	0	411	305	2,020	344	1,150
광산물	0	1,223	1,925	17,285	4,375	12,427
음식료품	0	758	398	1,145	426	1,417
섬유및 가죽제품	0	10,825	11,079	8,905	1,357	4,571
목재및 종이제품	0	5,948	9,286	5,098	1,891	9,482
인쇄 및 복제	0	1,239	5,850	3,039	1,051	6,473
석유 및 석탄제품	0	494	343	761	225	402
화학제품	0	2,643	3,984	6,999	2,949	5,652
비금속광물제품	0	6,955	16,456	14,920	8,258	25,591
제1차 금속제품	0	1,540	800	1,717	950	1,537
금속제품	0	1,785	2,396	4,102	3,635	5,033
일반기계	0	3,713	3,806	9,244	3,372	6,526
전기 및 전자기기	0	9,142	2,906	7,345	6,461	13,492
정밀기기	0	228	344	733	474	1,185
수송장비	0	295	1,135	2,344	1,443	2,117
기타제조업제품	0	466	241	567	286	774
전력, 가스 및 수도	0	790	872	1,480	1,529	1,898
건설	0	10,971	1,570	22,265	9,359	15,801
도소매	4	3,057	9,787	45,824	22,379	52,979
음식점 및 숙박	0	18,936	3,041	9,105	2,830	12,115
운수	0	5,043	3,995	25,505	21,610	28,445
통신 및 방송	0	18,952	5,338	11,139	7,464	48,437
금융 및 보험	0	33,585	14,686	33,300	26,510	25,856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	4,293	5,070	15,409	14,807	43,744
공공행정 및 국방	0	195	39	77	306	524
교육 및 보건	0	2,061	2,723	5,779	1,995	4,589
사회및 기타서비스	0	1,107	1,131	3,756	2,242	9,654
기타	0	0	0	0	0	0
합계	5	146,656	109,505	259,862	148,528	341,870

4) 투자금액 대비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 10억원당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는 도소매, 음식 및 숙박, 농림수산품이 높게 나타남

- <표 II-14>은 어떤 산업에서 최종수요 또는 투자가 10억 증가하는 경우, 전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유발인원을 합한 계수를 나타냄. 예를 들어 설명하면, 1995년에 농림수산업에 10억원의 최종수요 또는 투자가 증가하는 경우, 전 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인원을 모두 합하면 91.381명이고, 고용인원을 모두 합하면 13.853명임.

- 1기에 투자대비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을 살펴보면, 음식점 및 숙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림수산품, 사회 및 기타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2기에는 농림수산품이 투자대비 가장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냈으며, 음식점 및 숙박, 도소매업이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냄. 3기에서도 2기와 거의 유사하게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남.

- 이러한 취업유발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취업유발효과는 낮아짐. 그 이유는 첫째, 자본의 물가수준이 높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둘째, 자본이 증가하여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도 나타나는 현상임.

○ 산업별 고용유발효과는 취업유발효과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냄.

- <표 II-15>는 어떤 산업에서 최종수요 또는 투자가 10억 증가하는 경우, 전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유발인원 중에서 자영업자, 무임금 가사 노동자를 제외한 순수한 고용유발효과를 합한 계수를 나타냄.

- 1기에 투자대비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음식 및 숙박업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및 기타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기에서는 교육 및 보건이 투자대비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및 기타서비스,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3기에도 교육 및 보건, 음식점 및 숙박, 사회 및 기타서비스, 도소매업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남.
-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자영업자, 무임금 가사 노동자를 제외한 결과이기 때문이며, 농림수산품의 경우 취업유발효과는 높게 나타나지만, 취업유발인원중 상당부분이 자영업 또는 무임금 가사 노동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작게 나타남.

<표 II-14>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단위: 명/10억 원)

	1995년		2000년		2005년	
	취업	순위	취업	순위	취업	순위
농림수산물	91.381	2	67.703	1	51.058	1
광산품	21.947	21	12.089	21	10.445	21
음식료품	49.482	6	35.885	5	24.663	6
섬유 및 가죽제품	40.853	7	21.444	10	17.198	8
목재 및 종이제품	22.872	19	14.824	18	12.288	16
인쇄 및 복제	36.226	12	25.370	8	17.080	9
석유 및 석탄제품	3.987	28	1.371	28	0.975	28
화학제품	20.980	23	11.388	22	8.480	24
비금속광물제품	26.190	17	14.552	19	11.044	19
제1차 금속제품	15.021	26	7.807	26	5.147	26
금속제품	28.278	16	18.524	15	12.879	15
일반기계	25.809	18	16.105	16	12.238	17
전기 및 전자기기	21.427	22	10.085	24	8.339	25
정밀기기	31.898	13	19.033	14	13.898	14
수송장비	22.656	20	14.114	20	9.932	22
기타제조업제품	37.885	9	22.487	9	16.404	11
전력, 가스 및 수도	11.941	27	5.684	27	3.633	27
건설	31.578	14	20.847	11	16.624	10
도소매	62.982	5	46.547	3	30.430	3
음식점 및 숙박	196.240	1	49.983	2	37.796	2
운수	30.418	15	19.453	13	15.426	12
통신 및 방송	17.810	25	10.075	25	9.673	23
금융 및 보험	36.255	11	15.914	17	10.456	2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0.530	24	10.944	23	11.691	18
공공행정 및 국방	38.340	8	20.694	12	14.711	13
교육 및 보건	36.344	10	26.755	7	20.182	7
사회 및 기타서비스	71.735	3	40.166	4	24.859	5
기타	69.941	4	32.070	6	27.756	4

자료 :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표 II-15>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단위: 명/10억 원)

	1995년		2000년		2005년	
	고용	순위	고용	순위	고용	순위
농림수산물	13.853	25	7.667	24	7.227	23
광산물	19.075	18	9.862	19	8.299	19
음식료품	18.339	21	9.473	20	7.961	21
섬유 및 가죽제품	32.828	5	17.030	8	13.213	6
목재 및 종이제품	18.715	19	11.205	18	9.416	17
인쇄 및 복제	30.562	7	19.174	5	13.031	7
석유 및 석탄제품	3.199	28	1.061	28	0.750	28
화학제품	17.224	22	8.889	21	6.657	25
비금속광물제품	22.714	15	11.883	16	8.807	18
제1차 금속제품	12.452	26	6.231	26	4.032	26
금속제품	23.976	13	14.433	12	10.034	13
일반기계	22.072	16	13.086	15	9.964	14
전기 및 전자기기	18.451	20	8.130	23	6.891	24
정밀기기	27.583	10	15.626	10	11.581	11
수송장비	19.419	17	11.560	17	8.197	20
기타제조업제품	32.414	6	16.459	9	12.178	10
전력, 가스 및 수도	10.417	27	4.968	27	3.171	27
건설	27.319	11	17.871	7	14.833	5
도소매	25.506	12	20.195	3	15.174	4
음식점 및 숙박	86.679	1	19.820	4	16.457	2
운수	23.012	14	13.889	13	10.708	12
통신 및 방송	15.726	23	7.568	25	7.527	22
금융 및 보험	33.208	4	14.617	11	9.600	1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4.981	24	8.491	22	9.840	15
공공행정 및 국방	33.940	3	18.696	6	12.954	8
교육 및 보건	30.311	8	22.601	1	17.370	1
사회 및 기타서비스	38.555	2	20.708	2	15.452	3
기타	29.752	9	13.620	14	12.565	9

자료 :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3. 기업 자료를 이용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창출 현황 및 효과분석

3.1 외국인 투자 업종별 고용 현황 및 효과 분석

1) 분석자료

- ☐ 외국인투자 업종별 고용현황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KOTRA가 2010년 수행한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 본 자료는 주요 외투기업으로서 외국투자가(투자기업) 1인의 지분이 10% 이상이며 투자액 50만 달러 이상인 기업 3,014개를 조사대상(모수)으로 선정하여,
 - 이중 1,000개 기업을 표본추출 후 설문조사와 함께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구축
 - 산업과 관련해서는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 이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단순히 외국인투자 업종별 고용 현황 및 효과 분석 뿐만 아니라 투자국별, 투자 동기별, 투자금액별 등 다양한 기준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2) 다양한 기준에 의한 고용 현황 및 고용창출 효과

가. 투자국별

□ 투자국별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

- 아시아권 국가보다는 미국, 유럽 국가들 기업들의 고용비중이 높게 나타남.
- 네덜란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가 기업비중대비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 독일, 프랑스 순으로 높은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싱가포르와 일본은 기업비중대비 고용 비중이 1이하로 나타나 평균적인 고용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16> 투자국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평균 고용인원	총 고용인원	고용 비중(B)	고용수준 (B)/(A)
네덜란드	77	7.42	302.60	23,300	10.20	1.38
미국	240	23.12	277.68	66,365	29.06	1.26
일본	258	24.86	194.67	50,030	21.91	0.88
싱가포르	36	3.47	87.77	3,072	1.35	0.39
독일	83	8.00	265.18	21,745	9.52	1.19
홍콩	33	3.18	238.88	7,883	3.45	1.09
프랑스	53	5.11	246.93	13,087	5.73	1.12
영국	48	4.62	168.40	8,083	3.54	0.77
기타	210	20.23	203.36	34,775	15.23	0.75
총합	1,038	100.00	-	228,340	-	-

나. 투자동기별

(가) 수직적 VS 수평적

□ 투자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 투자목적별로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자산투자 목적, 수출전초지기, 수평적 투자 순으로 높은 고용수준을 나타냄.
- 가장 높은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부분은 자산투자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직접투자로 기업비중은 약 21.18%이며, 고용비중은 29.03%로 나타나 평균보다 약 37% 높은 고용수준을 나타냄.
- 반면 수직적 FDI는 기업비중도 낮을 뿐만 아니라 고용수준도 평균보다 매우 낮음.

<표 II-17> 투자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평균 고용인원	총 고용인원	고용 비중(B)	고용수준 (B)/(A)
수평적(horizontal) FDI	592	59.14	208.49	123,006	53.87	0.91
수출전초 기지(exporting platform)	126	12.59	234.85	29,591	12.96	1.03
수직적(vertical) FDI	60	5.99	132.62	7,957	3.48	0.58
자산투자 목적	212	21.18	317.17	66,289	29.03	1.37
기타	11	1.10	149.70	1,497	0.66	0.60
총합	1,001	100		228,340		

- 주: 1) 수평적 FDI는 투자동기가 “내수시장 진출”인 기업을 나타냄.
 2) 수출전초 기지는 투자동기가 “수출을 위한 기지로 활용”, “동북아 거점으로 활용”인 기업을 나타냄.
 3) 수직적 FDI는 투자동기가 “저렴한 인건비”, “우수한 인력활용”, “국내 기술 습득”인 기업을 나타냄.
 4) 자산투자 목적은 투자동기가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인 기업을 나타냄.

(나) 노동 VS 자본

□ 생산요소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 생산요소 목적별로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역시 노동관련 목적의 투자기업에서 고용수준이 높게 나타남.

- 노동관련 목적과 자본관련 목적의 기업비중은 거의 비슷하지만 고용수준은 노동관련 목적의 경우가 평균보다 약 27% 높게 나타남.

<표 II-18> 생산요소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평균 고용인원	총 고용인원	고용 비중(B)	고용수준 (B)/(A)
노동관련 목적	298	29.77	292,241	86,211	37.76	1.27
자본관련 목적	284	28.37	215,408	61,176	26.79	0.94
R&D 및 정보관련 목적	133	13.29	162,782	21,650	9.48	0.71
기타	286	28.57	209,551	59,303	25.97	0.91
총합	1,001	100		228,340		

주: 1) 노동관련 목적은 생산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근로자의 업무능력대비 인건비 수준이 낮음”, “노동력 수급이 용이함”, “근로자의 의욕이나 기술수준이 높음”인 기업을 나타냄.

2) 자본관련 목적은 생산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토지나 건물의 확보가 용이함”, “원자재 조달이 용이함”인 기업을 나타냄.

3) R&D 및 정보관련 목적은 생산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R&D 성과가 기대됨”,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인 기업을 나타냄.

(다) 내수시장 VS 수출시장

□ 시장요소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 시장요소 목적별로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내수시장 목적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수출시장 목적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보다 고용수준이 높음.
- 내수시장 목적의 기업비중은 62.54%이며 고용비중은 64.81%로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 반면, 수출시장 목적은 기업비중에서 24.78%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비중은 이보다 다소 낮은 20.74%를 기록하여, 평균보다 낮은 고용수준을 나타냄.
- 종합하면, 수출시장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외국인투자 기업보다는 국내시장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외국인투자 기업이 더 많이 나타나며 고용수준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II-19> 시장요소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평균 고용인원	총 고용인원	고용 비중(B)	고용수준 (B)/(A)
내수시장 목적	626	62.54	237.53	147,983	64.81	1.04
수출시장 목적	248	24.78	191.74	47,359	20.74	0.84
기타	127	12.69	263.98	32,998	14.45	1.14
총합	1,001	100		228,340		

주: 1) 내수시장 목적은 시장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현지 내수시장의 크기가 매력적임”, “한국 시장의 성장속도가 빠름”, “고부가가치 상품 수요가 많음”인 기업을 나타냄.
 2) 수출시장 목적은 시장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제 3국에 수출하기에 좋음”, “Test Market으로서 적합함”,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요처가 많음”인 기업을 나타냄.

□ 내수비중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내수비중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내수비중이 25%~50%의 기업에서 고용수준이 높게 나타남.

- 기업비중을 살펴보면, 100% 내수인 기업이 4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5% 이상 ~ 100% 미만인 25.45%, 50% 이상 ~ 75% 미만인 11.25%, 0% 이상 ~ 25% 미만인 10.62%, 25% 이상 ~ 50% 미만인 9.57%의 기업비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20> 내수비중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평균 고용인원	총 고용인원	고용 비중(B)	고용수준 (B)/(A)
0% 이상 ~ 25% 미만	101	10.62	248.97	24,897	11.07	1.04
25% 이상 ~ 50% 미만	91	9.57	300.74	27,367	12.17	1.27
50% 이상 ~ 75% 미만	107	11.25	282.19	30,194	13.43	1.19
75% 이상 ~ 100% 미만	242	25.45	236.97	57,110	25.39	1.00
100%	410	43.11	209.12	85,320	37.94	0.88
총합	951	100.00	-	224,888	-	-

(라) 생산목적 VS 유통목적

□ 연관산업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 연관산업 목적별로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통구조 연관산업에 이점을 목적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생산구조 연관산업에 목적을 둔 외국인직접투자기업보다 고용수준이 높음.

- 생산구조 연관 목적의 기업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53.75%), 고용비중은 49.29%로 나타나,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반면, 유통구조 연관 목적은 기업비중에서는 19.98%로 낮게 나타나지만, 고용비중에서는 24.32%를 나타내, 평균보다 약 22%가량 고용수준이 높게 나타남.
- 생산구조 연관산업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외국인투자 기업이 유통구조 연관산업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외국인투자 기업이 더 많이 나타나지만, 고용수준은 유통구조 연관산업에 목적을 둔 기업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II-21> 연관산업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평균 고용인원	총 고용인원	고용 비중(B)	고용수준 (B)/(A)
생산구조 연관 목적	538	53.75	209.97	112,544	49.29	0.92
유통구조 연관 목적	200	19.98	279.06	55,533	24.32	1.22
기타	263	26.27	231.78	60,263	26.39	1.00
총합	1,001	100		228,340		

- 주: 1) 생산구조 연관 목적은 연관산업 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전후방 연관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음”, “유사산업 및 클러스터가 잘 발달되어 있음”,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음”인 기업을 나타냄.
- 2) 유통구조 연관 목적은 연관산업 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유통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음”, “육상, 항공 및 해운 운송이 편리함”인 기업을 나타냄.
- 3) 기타는 연관산업 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투자 및 운영자금의 조달이 용이함” 또는 기타, 응답하지 않은 기업을 나타냄.

(마) 행정 인프라 VS 생활환경 인프라

□ 지역선택 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 지역선택 동기별로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행정 인프라에 유인을 가지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생활환경 인프라에 유인을 가지는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보다 고용수준이 높음.
- 생활환경 인프라의 기업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46.55%), 고용비중은 45.34%로 나타나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행정 인프라의 기업비중은 비중은 28.17%로 나타나며, 고용비중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30.81%)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따라서, 생활환경 인프라에 유인을 가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비중이 높지만, 지방자치행정 인프라에 유인을 가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용수준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22> 지역선택 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평균 고용인원	총 고용인원	고용 비중(B)	고용수준 (B)/(A)
지방자치행정 인프라	282	28.17	251.24	70,347	30.81	1.09
생활환경 인프라	466	46.55	223.13	103,530	45.34	0.97
기타	253	25.27	216.98	54,463	23.85	0.94
총합	1,001	100		228,340		

- 주: 1) 지방자치행정 인프라는 지역선택 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인센티브가 좋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이 적극적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및 절차가 합리적임”인 기업을 나타냄.
- 2) 생활환경 인프라는 지역선택 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생활이 안정되고 치안상태가 양호함”, “주거 및 의료, 교육, 문화 환경이 좋음”,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좋음”인 기업을 나타냄.

다. 연구개발 활동별

□ 연구개발활동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 연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연구활동을 하지 않거나, 연구 전담부서를 운영하지 않는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보다 고용수준이 높음.
- 연구 전담부서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의 비중은 63.9%으로 나타나지만, 고용비중은 39.28%로 나타나 고용수준은 평균보다 크게 낮게 나타남.
- 반면, 연구 전담부서 운영을 하는 기업의 비중은 기업비중이 36.10%로 나타나지만, 고용비중은 60.72%로 나타나 평균보다 약 68%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23> 연구개발활동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평균 고용인원	총 고용인원	고용 비중(B)	고용수준 (B)/(A)
연구 전담부서 운영	361	36.10	385.07	138,626	60.72	1.68
연구 전담부서 운영하지 않음	639	63.90	141.46	89,683	39.28	0.61
총합	1,000	100.00	-	228,309	-	-

주: 1) 연구 전담부서 운영은 “연구소 운영”, “연구전담부서 운영”인 기업을 나타냄.

2) 연구 전담부서 운영하지 않음은 “연구전담부서 없이 연구개발 수행”, “연구개발을 하지 않음”인 기업을 나타냄.

라. 기업규모별

□ 매출액 규모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 매출액 규모별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출액이 높을수록 고용수준도 높아짐

- 기업비중대비 고용비중은 1조 이상에서 22.37%를 나타내 기업비중대비 고용비중이 7.53으로 평균의 7배이상을 기록하였으며, 1,000억 이상 ~ 1조 미만은 1.92를, 100억이상 ~ 1,000억 미만은 0.51을, 100억 미만은 0.13을 나타냄.

<표 II-24> 매출액 규모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평균 고용인원	총 고용인원	고용 비중(B)	고용수준 (B)/(A)
100억 미만	218	23.12	30.06	6,492	3.02	0.13
100억 이상 ~ 1,000억 미만	451	47.83	117.13	52,825	24.58	0.51
1,000억 이상 ~ 1조 미만	246	26.09	440.49	107,479	50.02	1.92
1조 이상	28	2.97	1716.96	48,075	22.37	7.53
총합	943	100.00	-	214,871	-	-

□ 직접투자율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직접투자율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0% 이상 ~ 25% 미만인 기업의 고용수준이 높게 나타남.
- 기업비중을 살펴보면, 100% 투자기업이 52.61%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0% 이상 ~ 50% 미만이 21.18%, 50% 이상 ~ 100% 미만이 26.21%를 차지함.
- 기업비중대비 고용비중을 살펴보면, 100% 투자기업이 0.9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50% 이상 ~ 100% 미만이 1.05로 평균보다 다소 높게, 0% 이상 ~ 50% 미만 1.17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직접투자율이 낮을수록 고용수준이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25> 직접투자율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평균 고용인원	총 고용인원	고용 비중(B)	고용수준 (B)/(A)
0% 이상 ~ 50% 미만	211	21.18	264.22	55,487	24.68	1.17
50% 이상 ~ 100% 미만	261	26.21	239.11	62,169	27.65	1.05
100%	524	52.61	206.11	107,176	47.67	0.91
총합	996	100.00	-	224,832	-	-

마. 투자기간별

□ 투자기간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 투자기간별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투자기간이 길수록 고용수준도 높아짐
- 기업비중을 살펴보면, 0~10년이 58.8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11~20년이 25.53%, 21~30년이 10.35%, 30년 이상이 5.23%로 나타나, 투자기간이 길수록 기업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고용비중에서 0~10년은 기업비중보다 낮게 47.81%로 나타나 평균보다 낮은 고용수준을 나타내며, 11~20년은 기업비중과 고용비중이 거의 유사하게(25.44%) 나타나며, 21~30년은 기업비중대비 고용비중이 1.29로, 30년 이상은 2.56으로 나타남.
- 따라서 투자기간이 길수록 기업비중은 낮지만, 고용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I-26> 투자기간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평균 고용인원	총 고용인원	고용 비중(B)	고용수준 (B)/(A)
0~10년	586	58.89	181.08	105,206	47.81	0.81
11~20년	254	25.53	221.24	55,973	25.44	1.00
21~30년	103	10.35	285.72	29,429	13.37	1.29
30년 이상	52	5.23	566.19	29,442	13.38	2.56
총합	995	100.00	-	220,050	-	-

바. 기업업종별

□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이 고용수준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제조업 기업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됨
- 기업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 기업이 49.95%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 기업이 15.78%, 금융 및 보험업이 11.9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7.69%를 차지함.
- 기업비중대비 고용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12로 나타나 평균보다 높은 고용수준을 나타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0.92, 금융 및 보험업이 0.8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0.78로 나타남.
-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고용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제조업이 기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됨.

<표 II-27>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평균 고용인원	총 고용인원	고용 비중(B)	고용수준 (B)/(A)
제조업	500	49.95	256.56	128,022	56.07	1.12
도매 및 소매업	158	15.78	210.22	33,005	14.45	0.92
금융 및 보험업	120	11.99	193.83	22,872	10.02	0.8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7	7.69	178.83	13,770	6.03	0.78
기타 산업	146	14.59	212.99	30,671	13.43	0.92
총합	1,001	100.00	-	228,340	-	-

3.2 외국인 투자의 고용의 질(quality) 분석

1) 분석자료

☐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수준을 고용의 질 (quality)의 대용변수로 사용하고
자 함.

○ 일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을 경우 고용의 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고용의 질은 나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의 수준을 기업의 고용의 질(quality)를 나타
내는 대용변수로 활용하고자 함.

☐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신용평가 자료의 활용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이용

- KOTRA 자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수준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인건비 현황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한국 기업의 고용현황과 인건비 현황은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이용함.
- 한국신용평가의 기업자료는 약 18,000여개의 기업의 고용현황과 인건비 현황을 포함하고 있음.

□ KOTRA 자료와 한국신용평가 자료 결합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매치

- KOTRA 자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음.
- 이를 이용하여 기업 전문자료인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자료를 매치하여 자료를 결합함.

2) 다양한 기준에 의한 고용의 질(quality) 분석

가. 기업특성별

□ 투자국별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현황

- 평균임금은 영국이 8,52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6,291만원으로 높게 나타남

- 영국과 싱가포르는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내지만, 앞의 분석에서 이 두 나라의 고용수준은 낮은 형태를 나타냄.
- 따라서, 영국과 싱가포르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일자리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많이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독일과 일본 기업은 평균임금의 약 80%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28> 투자국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1인당 임금	1인당임금/ 전체평균	고용수준
네덜란드	31	6.4	5,402	1.12	1.38
미국	107	22.11	5,200	1.08	1.26
일본	149	30.79	3,829	0.80	0.88
싱가포르	17	3.51	6,291	1.31	0.39
독일	44	9.09	3,801	0.79	1.19
홍콩	12	2.48	5,037	1.05	1.09
프랑스	30	6.2	4,807	1.00	1.12
영국	25	5.17	8,520	1.77	0.77
기타	69	14.26	4,930	1.03	0.75
총합	484	100.00	4,807		-

나. 투자동기별

(가) 수직적 VS 수평적

□ 투자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 수평적 FDI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평균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평적 FDI의 경우 1인당 임금이 5,559만원으로 나타나 가장 높게 나타남.
- 수평적 FDI의 경우 고용수준은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일자리 수는 낮게 제공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반면, 자산투자 목적은 일자리 수는 많이 제공하지만,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II-29> 투자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1인당 임금	1인당임금/ 전체평균	고용수준
수평적(horizontal) FDI	279	57.88	5,559	1.16	0.91
수출전초 기지(exporting platform)	66	13.69	3,070	0.64	1.03
수직적(vertical) FDI	28	5.81	5,141	1.07	0.58
자산투자 목적	106	21.99	3,715	0.77	1.37
기타	3	0.62	4,997	1.04	0.60
총합	482	100.00	4,807		

- 주: 1) 수평적 FDI는 투자동기가 “내수시장 진출”인 기업을 나타냄.
 2) 수출전초 기지는 투자동기가 “수출을 위한 기지로 활용”, “동북아 거점으로 활용”인 기업을 나타냄.
 3) 수직적 FDI는 투자동기가 “저렴한 인건비”, “우수한 인력활용”, “국내 기술 습득”인 기업을 나타냄.
 4) 자산투자 목적은 투자동기가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인 기업을 나타냄.

(나) 노동 VS 자본

□ 생산요소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 생산요소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동관련 목적은 1인당 임금이 평균수준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며, 고용수준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 자본관련 목적의 경우에는 1인당 임금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30> 생산요소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1인당 임금	1인당임금/ 전체평균	고용수준
노동관련 목적	145	30.08	4,788	1.00	1.27
자본관련 목적	152	31.54	3,255	0.68	0.94
R&D 및 정보관련 목적	55	11.41	4,633	0.96	0.71
기타	130	26.97	6,635	1.38	0.91
총합	482	100.00	4,807		

- 주: 1) 노동관련 목적은 생산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근로자의 업무능력대비 인건비 수준이 낮음”, “노동력 수급이 용이함”, “근로자의 의욕이나 기술수준이 높음”인 기업을 나타냄.
 2) 자본관련 목적은 생산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토지나 건물의 확보가 용이함”, “원자재 조달이 용이함”인 기업을 나타냄.
 3) R&D 및 정보관련 목적은 생산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R&D 성과가 기대됨”,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인 기업을 나타냄.

(다) 내수시장 VS 수출시장

□ 시장요소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 내수시장 목적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금수준이 수출시장 목적보다 더 높게 나타남.
- 내수시장 목적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인당 임금은 5,072만원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수출시장 목적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1인당 임금이 약 3,828만원으로 나타나 평균의 약 80%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31> 시장요소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1인당 임금	1인당임금/ 전체평균	고용수준
내수시장 목적	309	64.11	5,072	1.06	1.04
수출시장 목적	117	24.27	3,828	0.80	0.84
기타	56	11.62	5,203	1.08	1.14
총합	482	100.00	4,807		

주: 1) 내수시장 목적은 시장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현지 내수시장의 크기가 매력적임”, “한국 시장의 성장속도가 빠름”, “고부가가치 상품 수요가 많음”인 기업을 나타냄.
 2) 수출시장 목적은 시장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제 3국에 수출하기에 좋음”, “Test Market으로서 적합함”,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요처가 많음”인 기업을 나타냄.

□ 내수비중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 내수시장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내수비중별로 임금현황을 살펴본 결과 내수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1인당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00% 내수시장에 비중을 둔 기업은 1인당 임금이 6,683만원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약 39% 높게 나타남.

- 따라서, 100% 내수시장에 비중을 둔 기업은 일자리 수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II-32> 내수비중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1인당 임금	1인당임금/ 전체평균	고용수준
0% 이상 ~ 25% 미만	47	10.02	3,441	0.72	1.04
25% 이상 ~ 50% 미만	44	9.38	3,653	0.76	1.27
50% 이상 ~ 75% 미만	58	12.37	3,699	0.77	1.19
75% 이상 ~ 100% 미만	155	33.05	3,780	0.79	1.00
100%	165	35.18	6,683	1.39	0.88
총합	469	100.00	4,807		-

(라) 생산목적 VS 유통목적

□ 연관산업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 유통구조 연관 목적보다는 생산구조 연관 목적의 임금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

- 생산구조 연관 목적은 1인당 임금이 4,714만원으로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유통구조 연관 목적 보다는 약 연간 48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통구조 연관 목적의 경우 고용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1인당 임금이 평균보다 낮은 일자리로 평가할 수 있음.

<표 II-33> 연관산업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1인당 임금	1인당임금/ 전체평균	고용수준
생산구조 연관 목적	265	54.98	4,714	0.98	0.92
유통구조 연관 목적	97	20.12	4,233	0.88	1.22
기타	120	24.9	5,388	1.12	1.00
총합	482	100.00	4,807		

주: 1) 생산구조 연관 목적은 연관산업 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전후방 연관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음”, “유사산업 및 클러스터가 잘 발달되어 있음”,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음”인 기업을 나타냄.

2) 유통구조 연관 목적은 연관산업 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유통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음”, “육상, 항공 및 해운 운송이 편리함”인 기업을 나타냄.

3) 기타는 연관산업 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투자 및 운영자금의 조달이 용이함” 또는 기타, 응답하지 않은 기업을 나타냄.

(마) 행정 인프라 VS 생활환경 인프라

□ 지역선택 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 생활환경 인프라를 선택한 기업의 임금수준이 행정 인프라를 선택한 기업보다 높게 나타남.

- 생활환경 인프라와 지방자치행정 인프라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생활환경 인프라는 1인당 임금이 약 5,085만원으로 지방자치행정 인프라의 3,584만원에 비해 약 1,50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행정 인프라의 경우 고용수준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지만, 임금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34> 지역선택 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1인당 임금	1인당임금/ 전체평균	고용수준
지방자치행정 인프라	145	30.08	3,584	0.75	1.09
생활환경 인프라	218	45.23	5,085	1.06	0.97
기타	119	24.69	5,700	1.19	0.94
총합	482	100.00	4,807		

주: 1) 지방자치행정 인프라는 지역선택 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인센티브가 좋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이 적극적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및 절차가 합리적임”인 기업을 나타냄.
 2) 생활환경 인프라는 지역선택 요소와 관련된 지역선택의 동기가 “생활이 안정되고 치안상태가 양호함”, “주거 및 의료, 교육, 문화 환경이 좋음”,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좋음”인 기업을 나타냄.

다. 연구개발 활동별

□ 연구개발활동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 연구 전담부서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연구 전담부서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의 산업 성격과 많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제조업일 가능성이 높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제조업의 임금수준이 서비스 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남⁹⁾.
- 이러한 이유로 고용수준은 연구 전담부서 운영을 하는 기업이 평균임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용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35> 연구개발활동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1인당 임금	1인당임금/ 전체평균	고용수준
연구 전담부서 운영	209	43.36	3,075	0.64	1.68
연구 전담부서 운영하지 않음	273	56.64	6,094	1.27	0.61
총합	482	100.00	4,807		-

주: 1) 연구 전담부서 운영은 “연구소 운영”, “연구전담부서 운영”인 기업을 나타냄.

2) 연구 전담부서 운영하지 않음은 “연구전담부서 없이 연구개발 수행”, “연구개발을 하지 않음”인 기업을 나타냄.

9) 자세한 내용은 산업별 임금수준의 결과를 참조하기 바람.

라. 기업규모별

□ 매출액 규모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 매출액 규모에 따른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매출액 규모가 낮을수록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00억 미만의 1인당 임금이 5,317만원, 100억 이상 ~ 1,000억 미만이 4,804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1,000억 이상 ~ 1조 미만은 4,571만원, 1조 이상은 4,178만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따라서 매출액이 높은 기업이 일자리는 많이 제공하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은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II-36> 매출액 규모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1인당 임금	1인당임금/ 전체평균	고용수준
100억 미만	45	9.59	5,317	1.11	0.13
100억 이상 ~ 1,000억 미만	263	56.08	4,804	1.00	0.51
1,000억 이상 ~ 1조 미만	140	29.85	4,571	0.95	1.92
1조 이상	21	4.48	4,178	0.87	7.53
총합	469	100.00	4,807		-

□ 직접투자율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 직접투자율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음

- 직접투자율이 100%인 기업의 경우에는 1인당 임금이 5,697만원으로 평균보다 약 19% 더 높게 나타남.
- 50% 이상 ~ 100%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4,504만원, 0% 이상 ~ 50% 미만은 3,493만원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직접투자율이 100%인 기업의 경우 고용수준은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일자리 수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하지만, 임금수준은 높은 일자리로 판단됨.

<표 II-37> 직접투자율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1인당 임금	1인당임금/ 전체평균	고용수준
0% 이상 ~ 50% 미만	128	26.56	3,493	0.73	1.17
50% 이상 ~ 100% 미만	132	27.39	4,504	0.94	1.05
100%	222	46.06	5,697	1.19	0.91
총합	482	100.00	4,807		-

마. 투자기간별

□ 투자기간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 투자기간별로 살펴보면 11~20년인 기업이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1~20년인 기업의 1인당 임금이 5,332만원으로 평균보다 1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1~30년인 경우에는 3,756만원, 30년 이상은 3,726만원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종합하면 투자기간이 긴 기업들이 고용수준이 높게 나타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임금수준은 낮은 일자리로 판단됨.

<표 II-38> 투자기간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1인당 임금	1인당임금/전체평균	고용수준
0~10년	259	54.18	4,912	1.02	0.81
11~20년	128	26.78	5,332	1.11	1.00
21~30년	58	12.13	3,756	0.78	1.29
30년 이상	33	6.90	3,726	0.78	2.56
총합	478	100.00	4,807		-

바. 기업업종별

□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 산업별로 살펴보면 산업에 따른 임금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가장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1인당 임금이 약 1억 1,60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약 7,124만원으로 나타남.
- 반면 제조업은 1인당 임금이 2,944만원으로 나타나 임금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수준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일자리 제공면에서는 낮게 나타나지만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로 평가할 수 있음.

<표 II-39>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기업수	기업 비중(A)	1인당 임금	1인당임금/ 전체평균	고용수준
제조업	262	54.36	2,944	0.61	1.12
도매 및 소매업	87	18.05	6,237	1.30	0.92
금융 및 보험업	35	7.26	11,608	2.41	0.8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5	7.26	7,124	1.48	0.78
기타 산업	63	13.07	5,345	1.11	0.92
총합	482	100.00	4,807		-

○ 보다 자세히 산업연관표 기준의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통신 및 방송이 가장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 및 보험의 경우 1인당 평균임금이 1억 7,440만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송장비가 1억, 1,345만원, 통신 및 방송이 1억 150만원으로 나타나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남.

- 반면, 인쇄, 출판 및 복제는 1,293만원으로 가장 1인당 임금이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화학제품이 1,763만원, 석유 및 석탄제품이 1,827만원으로 나타나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서의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제조업에서는 임금수준이 낮게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평균임금과 임금구간 현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표 II-40> 세부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평균임금

산 업	산업번호	기업수	평균임금	순위
농림수산물	01	4	3,275	15
광산물	02	14	4,396	11
음식료품	03	3	3,031	17
섬유 및 가죽제품	04	13	3,967	13
목재 및 종이제품	05	64	3,235	16
인쇄, 출판 및 복제	06	4	1,293	26
석유 및 석탄제품	07	12	1,827	24
화학제품	08	20	1,763	25
비금속 광물제품	09	27	2,424	20
제1차 금속제품	10	10	2,704	18
금속제품	11	16	2,357	22
일반기계	12	31	2,402	21
전기 및 전자기기	13	25	2,009	23
정밀기기	14	1	9,607	4
수송장비	15	4	11,346	2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6	-	-	-
전력, 가스 및 수도	17	3	4,209	12
건설	18	98	6,400	8
도소매	19	30	5,101	10
음식점 및 숙박	20	9	3,277	14
운수 및 보관	21	12	5,625	9
통신 및 방송	22	28	10,150	3
금융 및 보험	23	7	17,440	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4	36	6,529	7
공공행정 및 국방	25	3	2,593	19
교육 및 보건	26	2	8,235	5
사회 및 기타서비스	27	5	7,045	6
기타	28	-	-	-
합계	-	481	4,793	-

<표 II-41> 세부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구간 현황

산 업	2000만원 미만	2000 ~ 4000만원	4000 ~ 6000만원	6000 ~ 8000만원	8,000 ~ 1 억원	1억원 이상
농림수산물	0	3	1	0	0	0
광산물	3	4	4	2	0	1
음식료품	1	1	1	0	0	0
섬유 및 가죽제품	3	7	1	0	1	1
목재 및 종이제품	23	20	16	3	2	0
인쇄, 출판 및 복제	4	0	0	0	0	0
석유 및 석탄제품	7	5	0	0	0	0
화학제품	16	4	0	0	0	0
비금속 광물제품	12	11	3	1	0	0
제1차 금속제품	3	6	1	0	0	0
금속제품	10	4	1	1	0	0
일반기계	15	13	2	1	0	0
전기 및 전자기기	19	4	0	2	0	0
정밀기기	0	0	0	0	1	0
수송장비	0	2	1	0	0	1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	0	0	0	0	0
전력, 가스 및 수도	0	1	2	0	0	0
건설	4	7	35	25	19	8
도소매	3	10	9	4	1	3
음식점 및 숙박	3	2	3	1	0	0
운수 및 보관	0	4	4	2	1	1
통신 및 방송	0	3	2	4	4	15
금융 및 보험	0	0	0	1	0	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	5	7	8	4	6
공공행정 및 국방	1	1	1	0	0	0
교육 및 보건	1	0	0	0	0	1
사회 및 기타서비스	1	2	0	0	0	2
기타	0	0	0	0	0	0
합계	135	119	94	55	33	45

3.3. 외국인투자 업종별 투자금액 대비 고용현황 및 효과분석

1) 투자금액당 고용창출 효과 분석 방법

□ 외국인투자 금액당 고용현황과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KOTRA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자료의 결합을 통하여 분석

○ KOTRA 자료의 외국인투자 지분율, 고용인 수, 그리고 투자금액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자료를 결합하여 투자금액당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

○ 본 연구에서 투자금액당의 기준은 10억원임.

2) 다양한 기준에 의한 투자금액당 고용창출 효과

가. 기업특성별

□ 투자국별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창출 효과

○ 투자국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는 홍콩, 프랑스가 높게 나타남.

- 투자국별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 10억원당 고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홍콩, 프랑스가 각각 19.97명, 14.77명으로 나타나, 평균인 9.06명보다 크게 나타남.

-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투자금액 10억원당 약 5.41명의 고용창출이 나타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42> 투자국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A) / (B)
네덜란드	7.55	0.83
미국	7.17	0.79
일본	8.61	0.95
싱가포르	5.41	0.60
독일	8.68	0.96
홍콩	19.97	2.20
프랑스	14.77	1.63
영국	6.07	0.67
기타	11.18	1.23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투자금액당 고용효과(B)	9.06	

주) 투자금액당의 기준은 10억원임.

나. 투자동기별

(가) 수직적 VS 수평적

□ 투자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창출 효과

- 투자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는 수평적 FDI 목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투자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 10억원당 고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평적 FDI 목적과 수직적 FDI 목적의 고용효과가 각각 11.13명, 9.57명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수출전초 기지 목적, 자산투자 목적은 투자금액당 고용효과가 7.41명, 4.94명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표 II-43> 투자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창출 효과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A) / (B)
수평적(horizontal) FDI	11.13	1.23
수출전초 기지(exporting platform)	7.41	0.82
수직적(vertical) FDI	9.57	1.06
자산투자 목적	4.94	0.55
기타	1.06	0.12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투자금액당 고용효과(B)	9.06	

주) 투자금액당의 기준은 10억원임.

(나) 노동 VS 자본

□ 생산요소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창출 효과

○ 생산요소 목적별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창출 효과는 R&D 및 정보관련 목적 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생산요소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 10억원당 고용효과는 R&D 및 정보관련 목적이 14.42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보다 약 59%정도 높은 결과임.

- 다음으로 자본관련 목적(10.22명), 노동관련 목적(7.50)명 순으로 나타나며, 자본관련 목적은 평균보다 약 13% 높게 나타나며, 노동관련 목적은 평균보다 약 17% 낮게 나타남.

<표 II-44> 생산요소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A) / (B)
노동관련 목적	7.50	0.83
자본관련 목적	10.22	1.13
R&D 및 정보관련 목적	14.42	1.59
기타	7.14	0.79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투자금액당 고용효과(B)	9.06	

주) 투자금액당의 기준은 10억원임.

(다) 내수시장 VS 수출시장

□ 시장요소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 시장요소 목적별로 살펴본 결과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는 내수시장 목적이 수출시장 목적보다 높게 나타남.
- 내수시장 목적으로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는 10.07명으로 평균보다 약 11% 높게 나타난 반면, 수출시장 목적의 경우에는 5.98명으로 평균보다 약 34% 낮게 나타나, 내수시장 목적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용의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45> 시장요소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A) / (B)
내수시장 목적	10.07	1.11
수출시장 목적	5.98	0.66
기타	10.05	1.11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투자금액당 고용효과(B)	9.06	

주) 투자금액당의 기준은 10억원임.

□ 내수비중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 더 나아가 내수비중별로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내수비중이 높을수록 투자대비 고용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수비중별로 살펴보면, 100% 내수를 목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투자금액당 고용효과가 11.94명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약 32% 높게 나타난 반면 0% ~ 75%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표 II-46> 내수비중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A) / (B)
0% 이상 ~ 25% 미만	6.95	0.77
25% 이상 ~ 50% 미만	4.58	0.51
50% 이상 ~ 75% 미만	5.49	0.61
75% 이상 ~ 100% 미만	10.35	1.14
100%	11.94	1.32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투자금액당 고용효과(B)	9.06	

주) 투자금액당의 기준은 10억원임.

(라) 생산목적 VS 유통목적

□ 연관산업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표 II-47> 연관산업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A) / (B)
생산구조 연관 목적	10.33	1.14
유통구조 연관 목적	10.31	1.14
기타	5.02	0.55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투자금액당 고용효과(B)	9.06	

주) 투자금액당의 기준은 10억원임.

(마) 행정 인프라 VS 생활환경 인프라

□ 지역선택 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 지역선택 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는 행정인프라와 생활환경 인프라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 기타를 제외한 지방자치행정 인프라와 생활환경 인프라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는 각각 10.88명, 10.22명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II-48> 지역선택 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현황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A) / (B)
지방자치행정 인프라	10.88	1.20
생활환경 인프라	10.22	1.13
기타	4.38	0.48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투자금액당 고용효과(B)	9.06	

주) 투자금액당의 기준은 10억원임.

다. 연구개발 활동별

□ 연구개발활동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 연구개발활동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는 연구 전담부서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연구개발활동별 투자금액 고용효과는 연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7.30명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19% 낮게 나타나는 반면, 연구 전담

부서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 10.50명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1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49> 연구개발활동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A) / (B)
연구 전담부서 운영	7.30	0.81
연구 전담부서 운영하지 않음	10.50	1.16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투자금액당 고용효과(B)	9.06	

주) 투자금액당의 기준은 10억원임.

라. 기업규모별

□ 매출액 규모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 매출액 규모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는 100억 이상 ~ 1,000억 매출규모를 가지는 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는 100억 이상 ~ 1,000억 매출규모의 기업이 10.66명으로 평균보다 18% 더 높게 나타나는 반면, 1,000억 이상 ~ 1조 미만 기업, 1조 이상 기업에서 각각 7.60명, 2.46명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50> 매출액 규모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A) / (B)
100억 미만	9.92	1.09
100억 이상 ~ 1,000억 미만	10.66	1.18
1,000억 이상 ~ 1조 미만	7.60	0.84
1조 이상	2.46	0.27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투자금액당 고용효과(B)	9.06	

주) 투자금액당의 기준은 10억원임.

□ 직접투자율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 직접투자율별로 살펴본 결과 직접투자율이 높을수록 고용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접투자율별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를 살펴보면 100%인 기업에서 11.78명, 50% 이상 ~ 100% 미만에서 11.49명, 0% 이상 ~ 50% 미만의 기업에서 1.78명으로 나타나 직접투자율이 높을수록 높은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를 나타냄.

<표 II-51> 직접투자율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A) / (B)
0% 이상 ~ 50% 미만	1.78	0.20
50% 이상 ~ 100% 미만	11.49	1.27
100%	11.78	1.30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투자금액당 고용효과(B)	9.06	

주) 투자금액당의 기준은 10억원임.

마. 투자기간별

□ 투자기간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 투자기간별로 살펴본 결과 투자기간이 길수록 투자금액당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최초 투자시기 이후 30년 년이상 지난 기업에서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는 10.33명, 21~30년에서 9.96명, 11~20년 8.69명, 0~10년 8.79명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투자기간이 길수록 투자금액당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II-52> 투자기간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A) / (B)
0~10년	8.79	0.97
11~20년	8.69	0.96
21~30년	9.96	1.10
30년 이상	10.33	1.14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투자금액당 고용효과(B)	9.06	

주) 투자금액당의 기준은 10억원임.

바. 기업업종별

□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금융 및 보험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19.44명으로 평균보다 약 115%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산업의 경우 각각 9.01명, 8.21명, 1.89명, 8.51명으로 나타나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표 II-53>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A) / (B)
제조업	9.01	0.99
도매 및 소매업	8.21	0.91
금융 및 보험업	1.89	0.2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9.44	2.15
기타 산업	8.51	0.94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투자금액당 고용효과(B)	9.06	

주) 투자금액당의 기준은 10억원임.

4. 국내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효과 비교

4.1 국내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고용효과 비교 방법

□ KOTRA와 한국신용평가 자료와 결합하여 분석

- 국내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효과의 비교는 KOTRA 자료와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 국내기업 자료는 한국신용평가 자료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부산업별로 전체 고용효과와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를 구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전체 고용효과와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는 앞서 살펴본 절에서 나타난 결과를 이용하여 구성함.

4.2 산업별 국내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고용효과 비교

□ 세부 산업별 국내기업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효과

○ 국내기업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효과는 더 크게 나타남.

-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기업의 평균 고용인수는 179.9명인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평균 고용인수는 292.0명으로 나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약 62% 가량 평균 고용인수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산업별로는 전력, 가스 및 수도, 섬유 및 가죽제품, 공공행정 및 국방, 음식점 및 숙박 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전력, 가스 및 수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국내기업보다 11.62배 높은 평균고용을 나타냈으며, 섬유 및 가죽제품(4.54배), 공공행정 및 국방(3.25배), 음식점 및 숙박(3.04배) 등이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수송장비, 운수 및 보관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평균고용이 국내기업의 평균고용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54> 세부 산업별 국내기업과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효과

산 업	산업번호	국내기업 고용효과(A)	외투기업 고용효과(B)	(B) / (A)
농림수산물	01	122.1	102.3	0.84
광산물	02	262.3	464.3	1.77
음식료품	03	122.3	85.5	0.70
섬유 및 가죽제품	04	134.4	610.5	4.54
목재 및 종이제품	05	225.1	175.1	0.78
인쇄, 출판 및 복제	06	157.1	434.3	2.76
석유 및 석탄제품	07	138.5	297.7	2.15
화학제품	08	136.0	247.4	1.82
비금속 광물제품	09	373.6	236.4	0.63
제1차 금속제품	10	107.4	293.1	2.73
금속제품	11	151.1	329.3	2.18
일반기계	12	110.7	297.9	2.69
전기 및 전자기기	13	372.7	401.0	1.08
정밀기기	14	75.3	21.0	0.28
수송장비	15	485.3	22.5	0.05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6	108.5	-	-
전력, 가스 및 수도	17	102.5	1191.3	11.62
건설	18	83.2	118.9	1.43
도소매	19	258.9	603.6	2.33
음식점 및 숙박	20	201.3	613.0	3.04
운수 및 보관	21	389.1	77.7	0.20
통신 및 방송	22	391.2	322.0	0.82
금융 및 보험	23	743.6	484.6	0.6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4	106.7	258.0	2.42
공공행정 및 국방	25	44.5	144.7	3.25
교육 및 보건	26	190.5	559.0	2.93
사회 및 기타서비스	27	79.9	88.6	1.11
기타	28	382.7	-	-
전체	-	179.9	292.0	1.62

□ 세부 산업별 국내기업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 외국인투자기업보다 국내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기업의 평균 투자금액당 고용인수는 12.9명인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평균 투자금액당 고용인수는 9.1명으로 나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약 30% 가량 평균 투자금액당 고용인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산업별로는 금속제품, 제 1차 금속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금속제품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국내기업보다 32% 높은 평균고용을 나타냈으며, 제 1차 금속제품(1.3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1.27) 등이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수송장비, 섬유 및 가죽제품, 교육 및 보건, 공공행정 및 국방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평균고용이 국내기업의 평균고용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55> 세부 산업별 국내기업과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투자금액당 고용효과

산 업	산업번호	국내기업 투자금액당 고용효과(A)	외투기업 투자금액당 고용효과(B)	(B) / (A)
농림수산물	01	16.4	18.2	1.11
광산물	02	17.7	29.1	1.65
음식료품	03	13.4	5.8	0.43
섬유 및 가죽제품	04	12.9	2.6	0.20
목재 및 종이제품	05	8.8	5.3	0.60
인쇄, 출판 및 복제	06	18.7	7.3	0.39
석유 및 석탄제품	07	9.4	6.3	0.67
화학제품	08	12.8	2.6	0.21
비금속 광물제품	09	15.4	4.7	0.31
제1차 금속제품	10	10.8	14.2	1.32
금속제품	11	14.4	20.4	1.41
일반기계	12	11.5	7.4	0.64
전기 및 전자기기	13	15.5	12.5	0.81
정밀기기	14	10.6	3.2	0.30
수송장비	15	5.9	0.1	0.01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6	10.2	-	-
전력, 가스 및 수도	17	5.5	0.9	0.16
건설	18	12.0	8.8	0.74
도소매	19	12.9	5.2	0.40
음식점 및 숙박	20	23.7	24.9	1.05
운수 및 보관	21	12.0	5.2	0.43
통신 및 방송	22	3.8	1.2	0.31
금융 및 보험	23	5.9	3.2	0.5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4	12.4	15.7	1.27
공공행정 및 국방	25	8.1	2.1	0.26
교육 및 보건	26	16.1	3.8	0.24
사회 및 기타서비스	27	16.2	13.6	0.84
기타	28	65.0	-	-
전체	-	12.9	9.1	0.70

4.3 각 산업별 외투기업의 고용 비중

□ 세부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비중

- 한국신용평가 자료와 기업서베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비중을 살펴본 결과, 제 1차 금속제품, 도소매, 음식 및 숙박 산업의 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II-56>은 외국인 투자가 존재하는 기업의 고용인수는 모두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으로 정의했을 경우의 고용비중을 나타내며, <표 II-57>은 외국인 투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기업의 고용인수 중 외국인 투자지분 만큼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업의 고용으로 가중합계를 했을 경우의 고용비중을 나타냄.
- <표 II-56>과 <표 II-57>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을 살펴보면, 제 1차 금속제품, 도소매, 음식 및 숙박 산업의 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수송장비, 정밀기기, 전력, 가스 및 수도, 운수 및 보관 산업은 고용 비중이 낮은 산업으로 나타남

<표 II-56> 세부 산업별 국내기업과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비중(단순합계)

산 업	기업수		고용인수		외투기업 고용비중 (B)/(A+B)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농림수산물	58	4	6,988	505	6.74%
광산물	404	15	106,076	6,864	6.08%
음식료품	99	4	12,069	382	3.07%
섬유 및 가죽제품	660	14	88,818	8,459	8.70%
목재 및 종이제품	622	66	140,342	11,234	7.41%
인쇄, 출판 및 복제	346	6	53,815	3,160	5.55%
석유 및 석탄제품	280	21	39,418	5,617	12.47%
화학제품	967	24	131,346	6,066	4.41%
비금속 광물제품	827	45	309,185	10,421	3.26%
제1차 금속제품	209	13	22,695	3,572	13.60%
금속제품	354	21	54,001	6,389	10.58%
일반기계	837	38	92,185	11,752	11.31%
전기 및 전자기기	880	52	328,287	20,523	5.88%
정밀기기	61	1	4,593	24	0.52%
수송장비	102	4	49,545	42	0.08%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9	0	2,061	-	-
전력, 가스 및 수도	878	3	89,938	3,653	3.90%
건설	1,773	99	146,869	12,461	7.82%
도소매	586	34	147,703	24,525	14.24%
음식점 및 숙박	199	17	41,745	8,744	17.32%
운수 및 보관	265	12	102,983	1,067	1.03%
통신 및 방송	324	29	124,561	11,527	8.47%
금융 및 보험	109	14	81,196	6,641	7.5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652	47	284,686	10,253	3.48%
공공행정 및 국방	163	3	7,219	468	6.09%
교육 및 보건	62	2	12,477	455	3.52%
사회 및 기타서비스	413	8	33,098	610	1.81%
기타	146	0	55,872	-	-
전체	14,295	596	2,569,771	175,414	6.39%

주) 기준 - 외국인직접투자가 있는 경우 모두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으로 간주

<표 II-57> 세부 산업별 국내기업과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고용비중(가중합계)

산 업	기업수		고용인수		외투기업 고용비중 (B)/(A+B)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농림수산물	58	4	6,988	505	6.74%
광산물	404	15	110,573	2,367	2.10%
음식료품	99	4	12,229	222	1.78%
섬유 및 가죽제품	660	14	93,019	4,258	4.38%
목재 및 종이제품	622	66	144,610	6,966	4.60%
인쇄, 출판 및 복제	346	6	53,961	3,014	5.29%
석유 및 석탄제품	280	21	41,327	3,708	8.23%
화학제품	967	24	134,631	2,781	2.02%
비금속 광물제품	827	45	311,939	7,667	2.40%
제1차 금속제품	209	13	23,742	2,525	9.61%
금속제품	354	21	55,780	4,610	7.63%
일반기계	837	38	96,685	7,252	6.98%
전기 및 전자기기	880	52	335,931	12,879	3.69%
정밀기기	61	1	4,593	24	0.52%
수송장비	102	4	49,571	16	0.03%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9	0	2,061	-	-
전력, 가스 및 수도	878	3	93,037	554	0.59%
건설	1,773	99	147,568	11,762	7.38%
도소매	586	34	150,518	21,710	12.61%
음식점 및 숙박	199	17	43,494	6,995	13.85%
운수 및 보관	265	12	103,348	702	0.67%
통신 및 방송	324	29	127,454	8,634	6.34%
금융 및 보험	109	14	81,578	6,259	7.1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652	47	289,658	5,281	1.79%
공공행정 및 국방	163	3	7,515	172	2.23%
교육 및 보건	62	2	12,794	138	1.07%
사회 및 기타서비스	413	8	33,215	493	1.46%
기타	146	0	55,872	-	-
전체	14,295	596	2,623,691	121,494	4.43%

주 : 기준 - 외국인직접투자가 있는 경우 지분을 만큼을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으로 간주

5.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업종 분석

□ 본 절에서는 앞의 분석을 종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의 양, 고용의 질(quality), 그리고 투자금액당 고용의 양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을 도출하고자 함.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을 도출함에 있어서 단순한 양의 개념을 넘의 투자금액당 고용의 양, 그리고 앞에서 분석한 고용의 질까지 고려함.

○ 아래에서 ‘고용의 효율성’은 ‘투자금액당 고용효과’를 나타냄

5.1. 다양한 기준에 의한 고용효과 분석

1) 기업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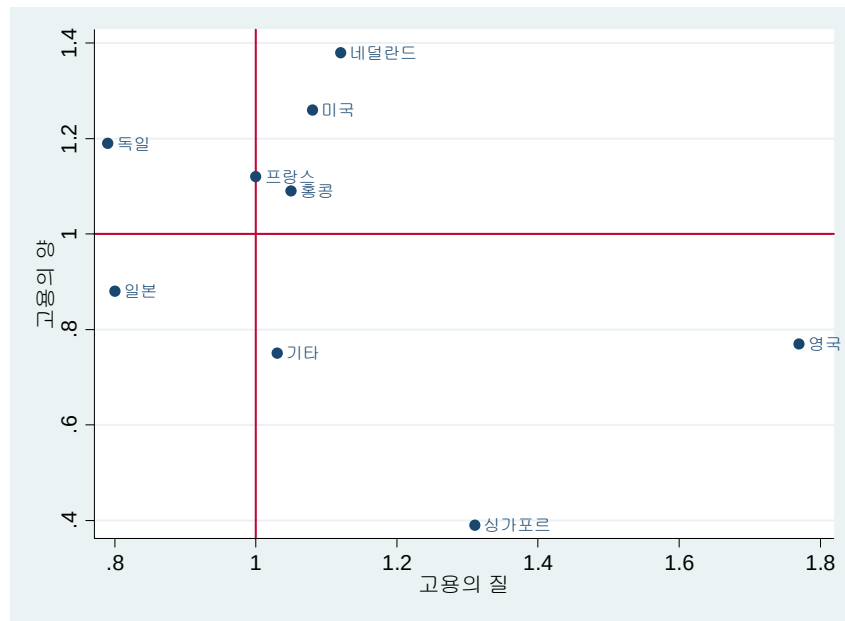
□ 투자국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효과 분석

○ 고용의 양에서는 네덜란드과 미국이, 고용의 질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네덜란드가, 고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프랑스와 홍콩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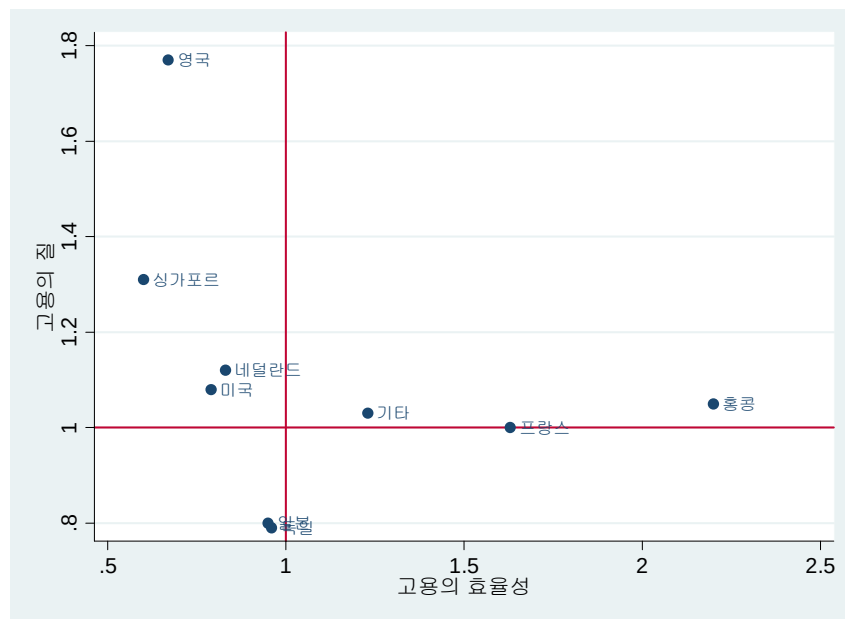
- 고용의 양에서는 네덜란드, 미국, 독일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일본, 영국, 싱가포르는 낮게 나타남.

-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미국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독일과 일본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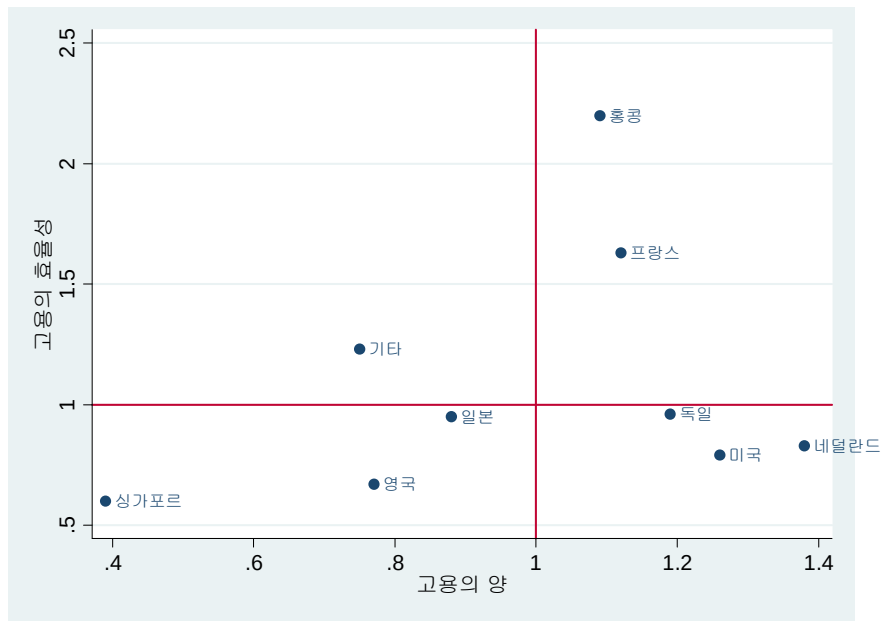
- 고용의 효율성에서는 프랑스와 홍콩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싱가포르, 영국, 미국, 네덜란드가 낮게 나타남.



<그림 II-2> 투자국별 고용의 질과 양



<그림 II-3> 투자국별 고용의 질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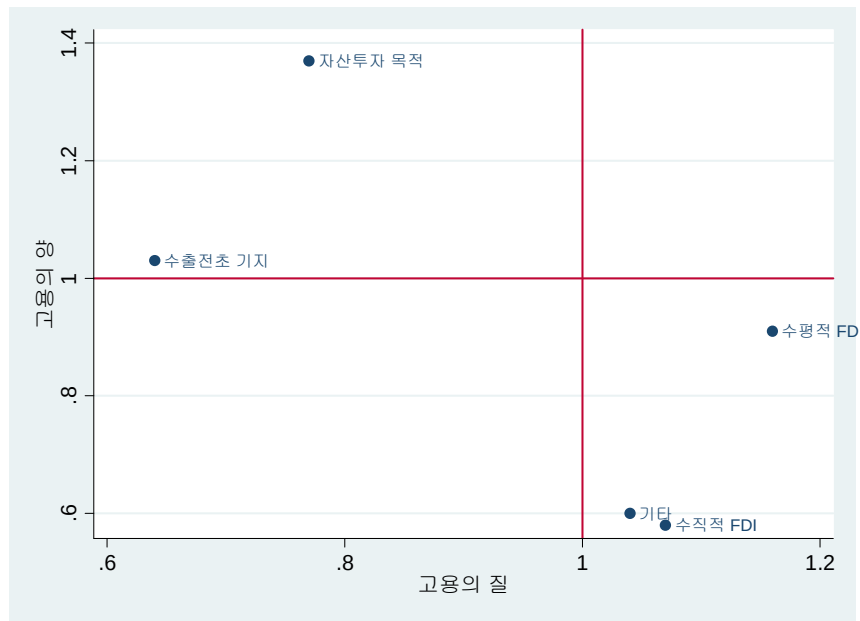
<그림 II-4> 투자국별 고용의 양과 효율성

2) 투자동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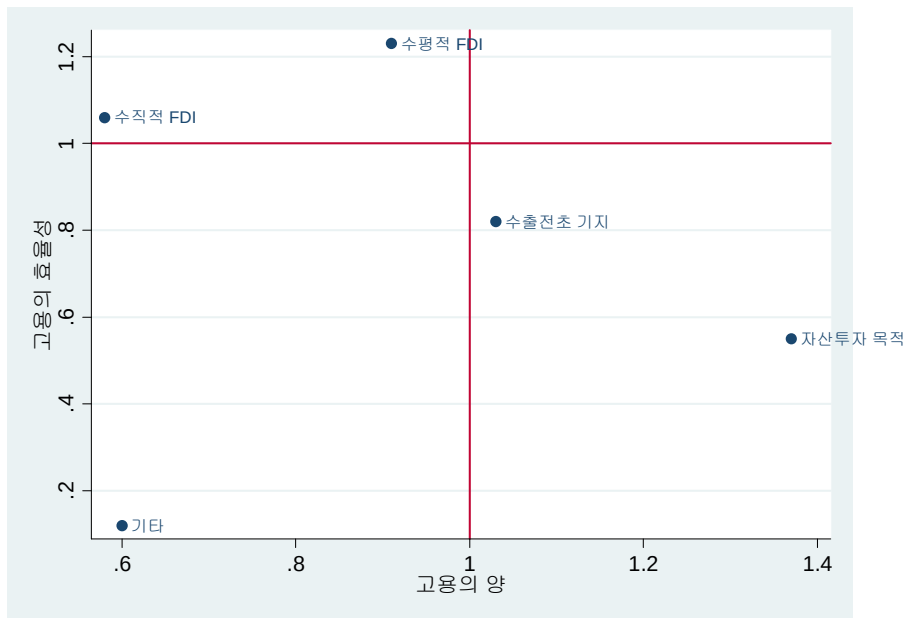
(가) 수직적 VS 수평적

□ 투자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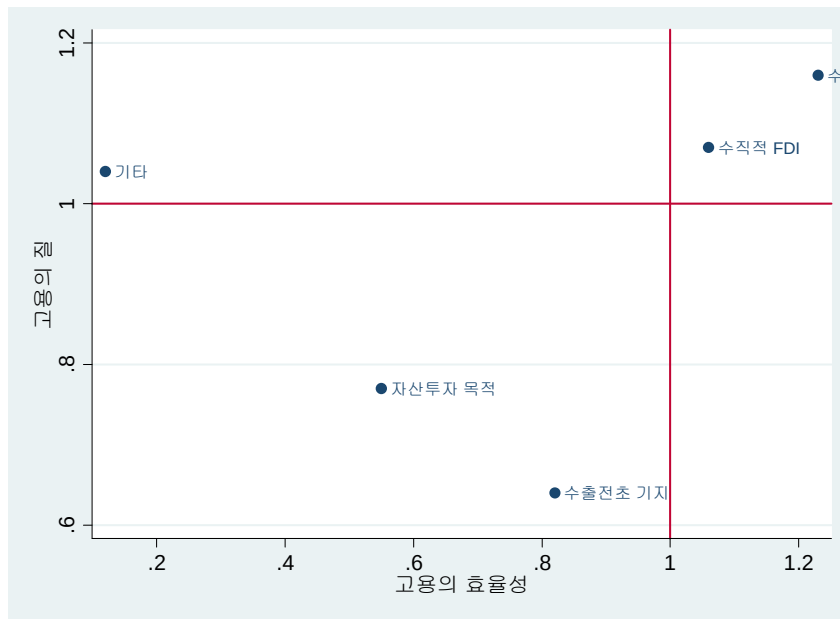
- 고용의 양에서는 자산투자 목적과 수출전초기지가 고용의 질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평적 FDI와 수직적 FDI가 높게 나타남.
- 고용의 양에서는 자산투자 목적과 수출전초기지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수평적 FDI와 수직적 FDI는 낮게 나타남.
- 고용의 질적인 측면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평적 FDI와 수직적 FDI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산투자 목적과 수출전초기지가 낮게 나타남.



<그림 II-5> 투자동기별 고용의 질과 양



<그림 II-6> 투자동기별 고용의 양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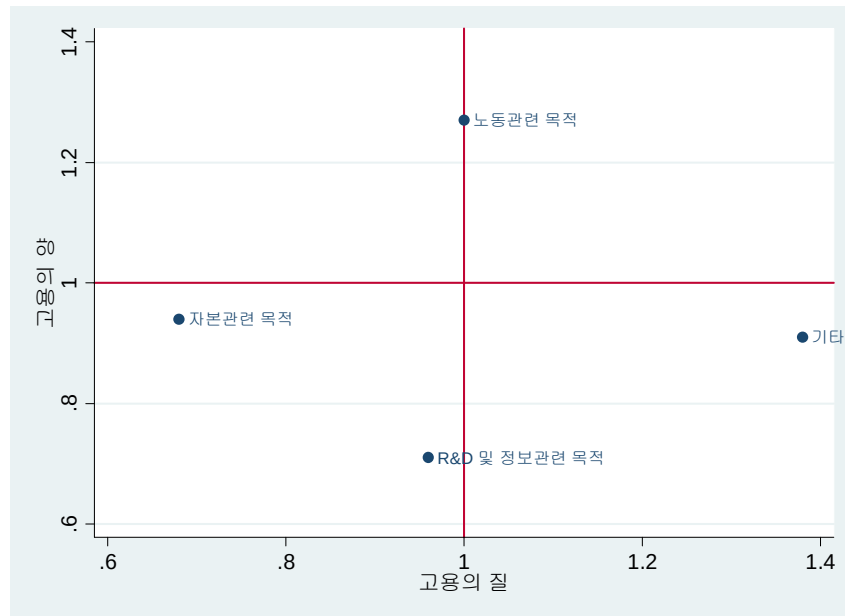


<그림 II-7> 투자동기별 고용의 질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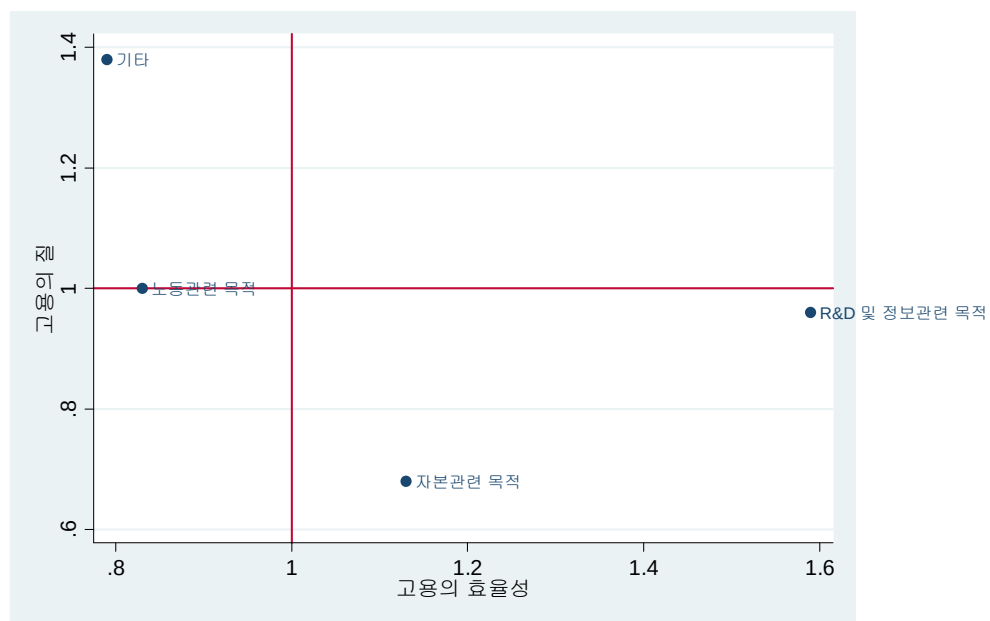
(나) 노동 VS 자본

□ 생산요소 목적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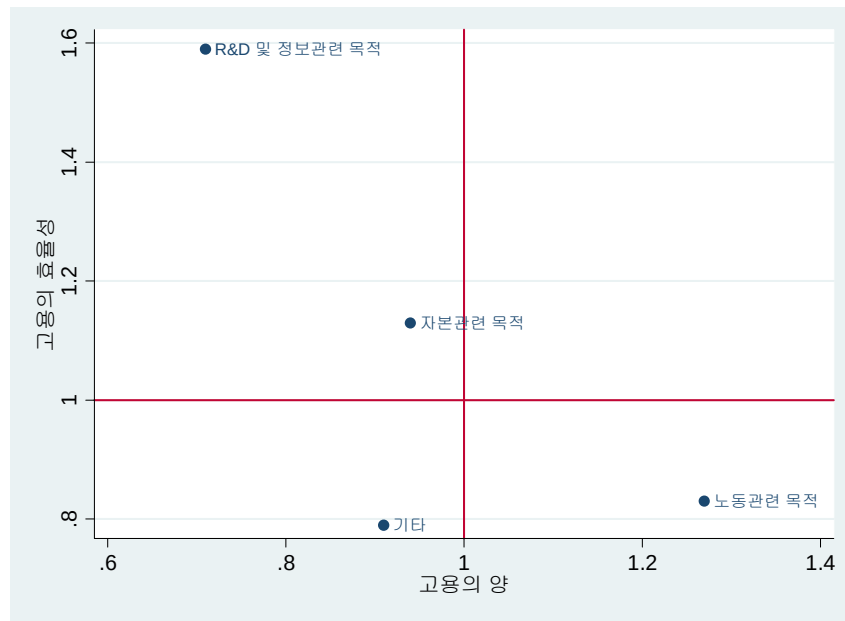
- 고용의 양에서는 노동관련 목적이, 고용의 질에서는 기타목적이, 고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R&D 및 정보관련 목적과 자본관련 목적이 높게 나타남.
- 고용의 양에서는 노동관련 목적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기타 목적, R&D 및 정보관련 목적, 자본관련 목적이 낮게 나타남.
-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타 목적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노동관련 목적과 R&D 및 정보관련 목적은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자본관련 목적은 매우 낮게 나타남.
- 고용의 효율성에서는 R&D 및 정보관련 목적, 자본관련 목적이 노동관련 목적과 기타목적은 매우 낮게 나타남.



<그림 II-8> 생산요소 목적별 고용의 양과 질



<그림 II-9> 생산요소 목적별 고용의 질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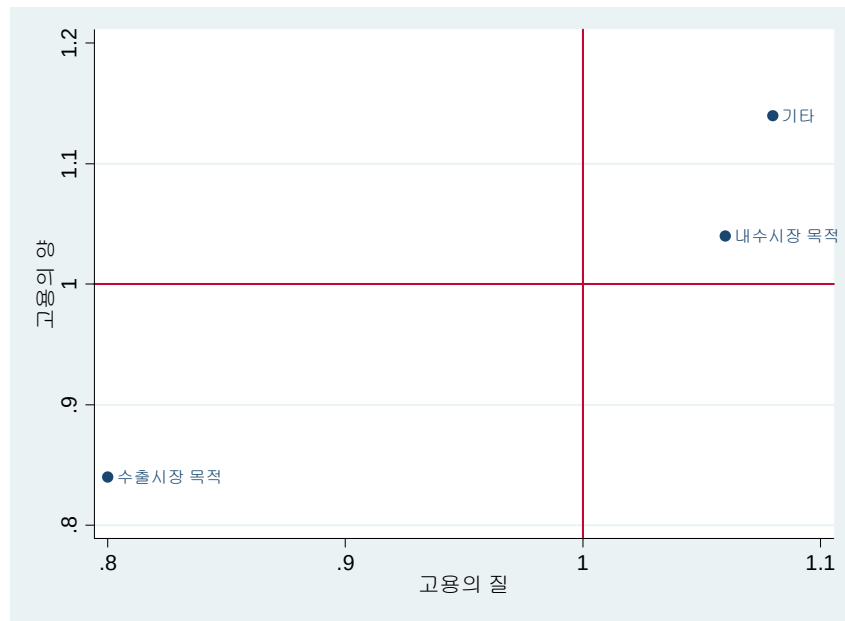


<그림 II-10> 생산요소 목적별 고용의 양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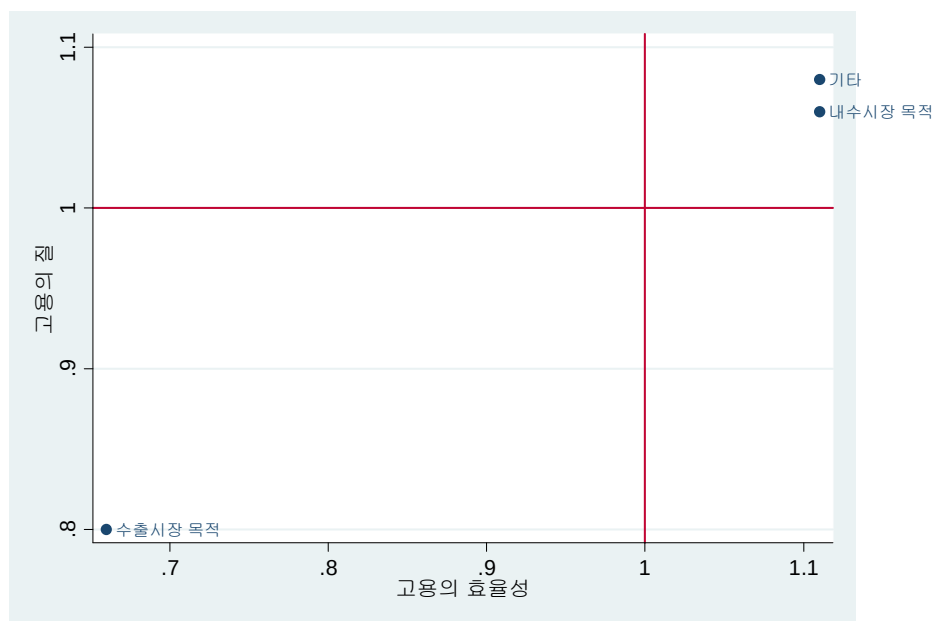
(다) 내수시장 VS 수출시장

□ 시장요소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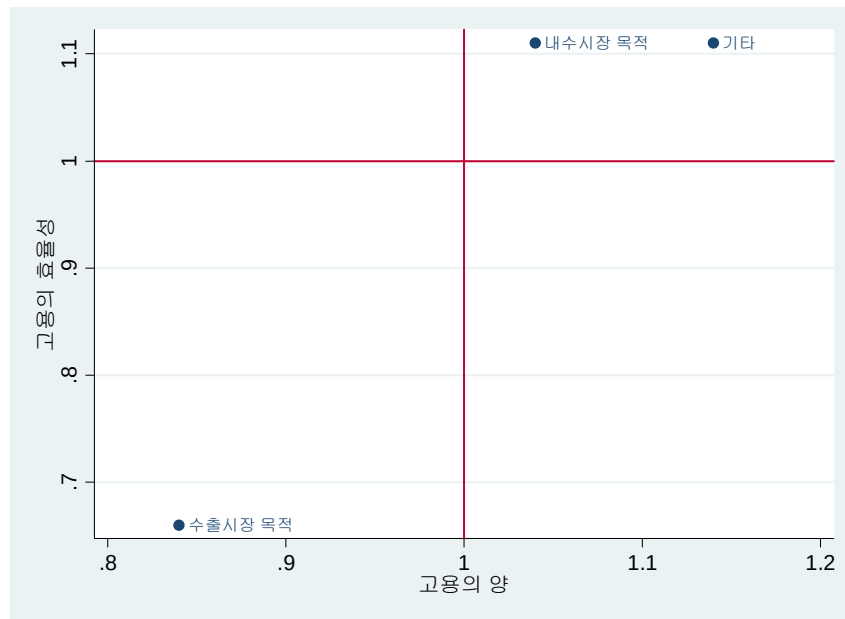
- 고용의 양, 질,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기타목적, 내수시장 목적이 높게 나타남.
- 고용의 양, 질, 효율성에서 모두 기타목적과 내수시장 목적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수출시장 목적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시장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기업 보다는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모든 면에서 고용에 우월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11> 시장요소 목적별 고용의 양과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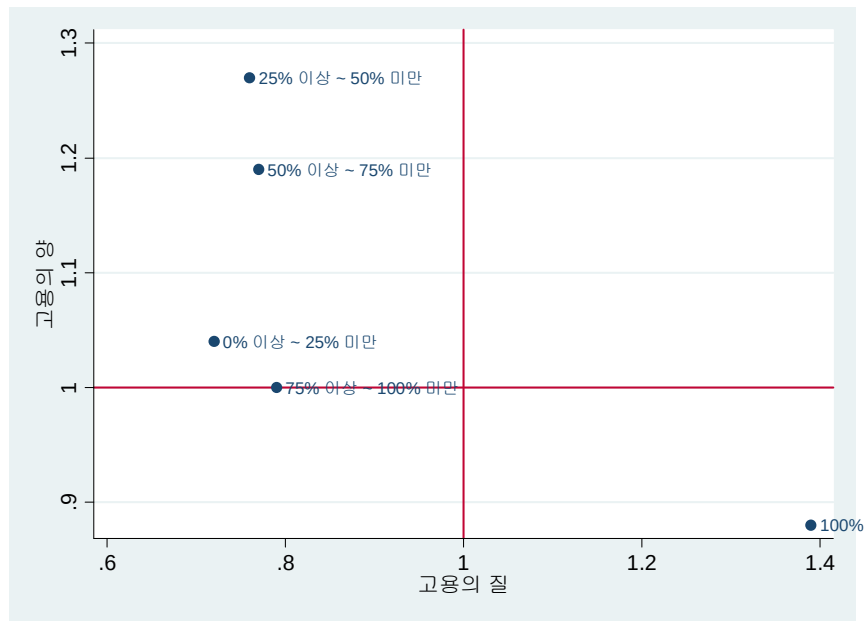
<그림 II-12> 시장요소 목적별 고용의 질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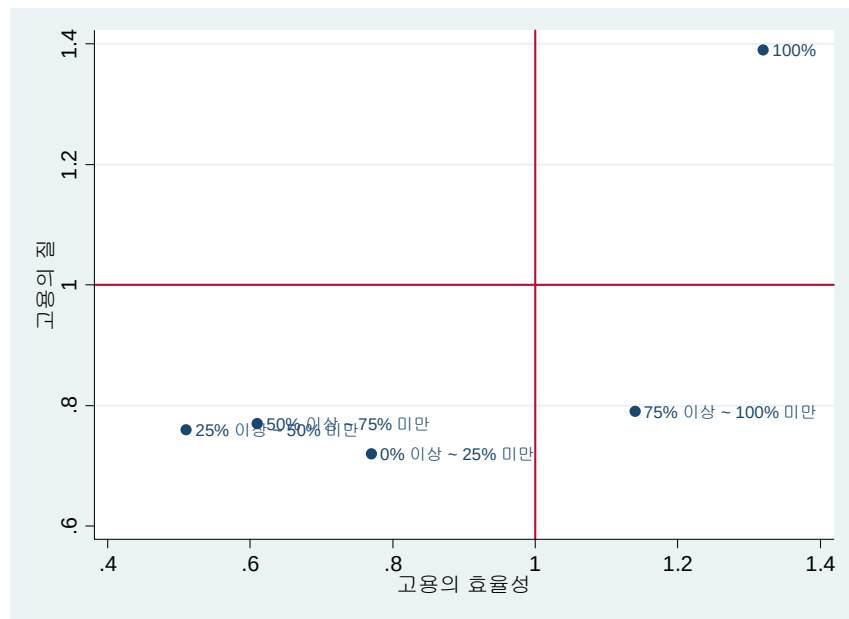
<그림 II-13> 시장요소 목적별 고용의 양과 효율성

□ 내수비중별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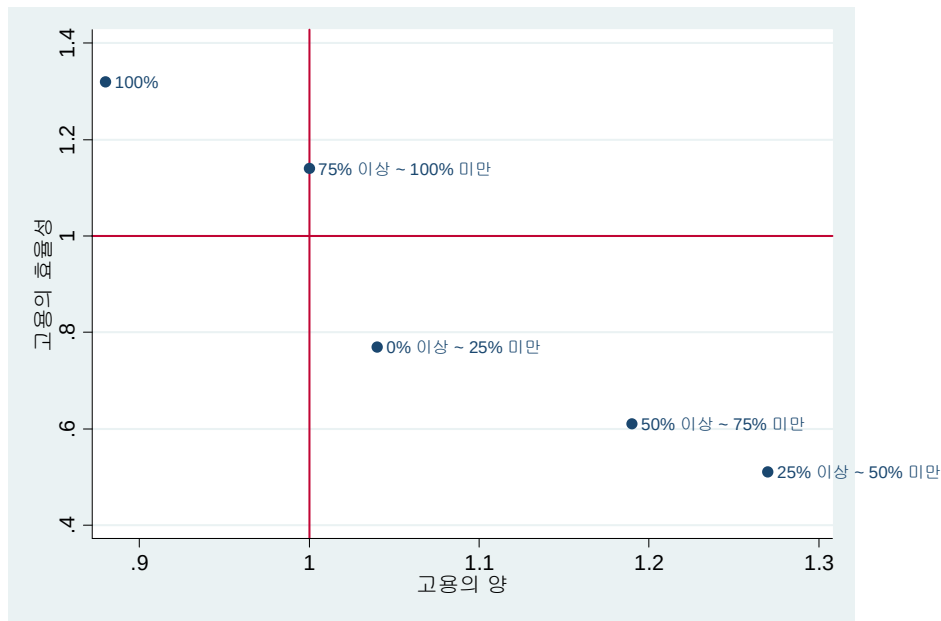
- 내수비중별로 살펴본 결과에서 고용의 양에서는 25% 이상 ~ 50%미만, 50% 이상 ~ 75% 미만, 고용의 질에서는 100% 내수비중이, 고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100% 내수비중, 75% 이상 ~ 100% 미만이 높게 나타남.



<그림 II-14> 내수비중별 고용의 양과 질



<그림 II-15> 내수비중별 고용의 질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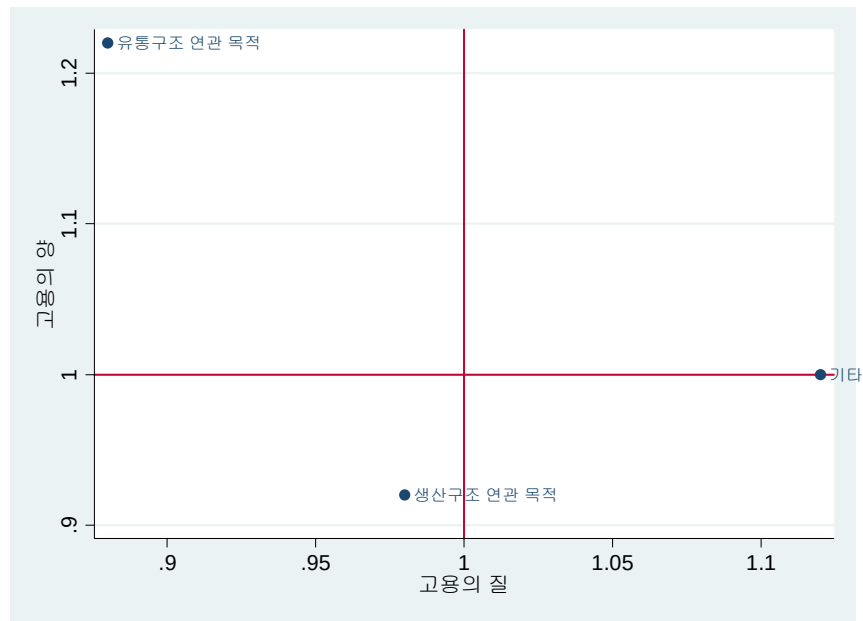


<그림 II-16> 내수비중별 고용의 양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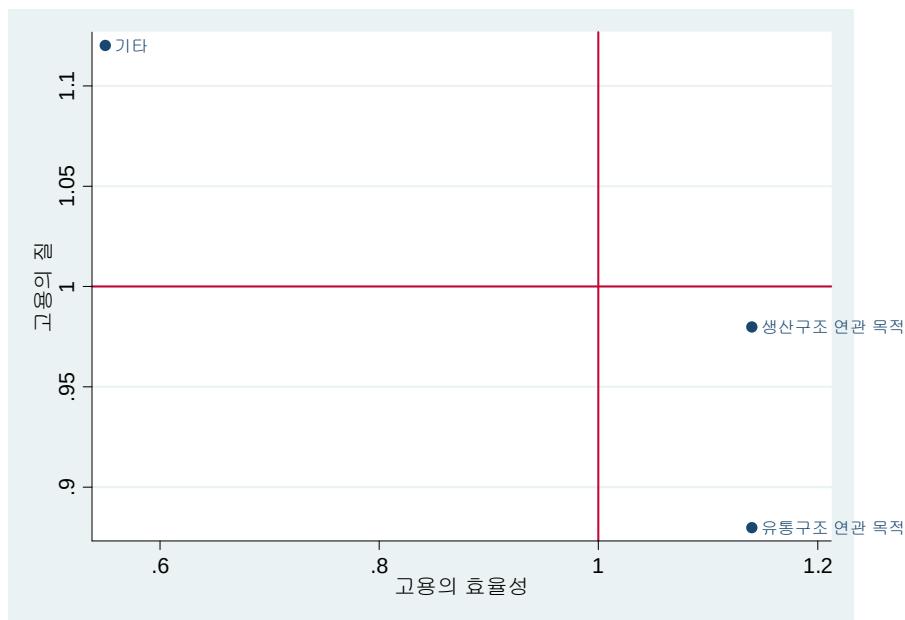
(라) 생산목적 VS 유통목적

□ 연관산업 목적별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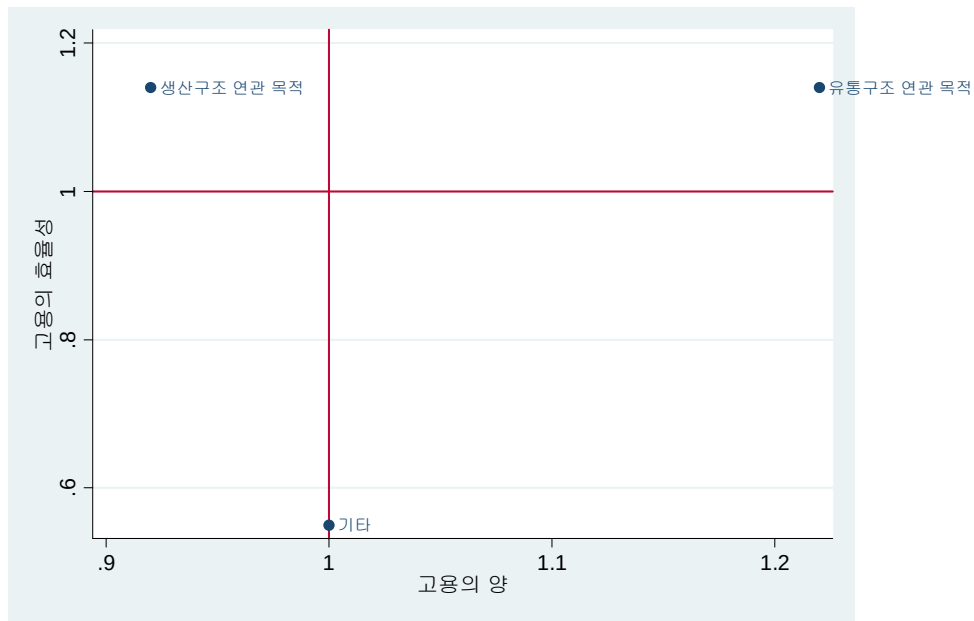
- 고용의 양에서는 유통구조 연관목적이, 고용의 질에서는 기타 목적이, 고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통구조 연관목적과 생산구조 연관목적이 높게 나타남.
- 고용의 양에서는 유통구조 연관목적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생산구조 연관목적은 낮게 나타남.
-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타 목적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유통구조 연관목적이 낮게 나타남.
- 고용의 효율성에서는 유통구조 연관목적과 생산구조 연관목적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기타목적은 낮게 나타남.



<그림 II-17> 연관산업 목적별 고용의 양과 질



<그림 II-18> 연관산업 목적별 고용의 질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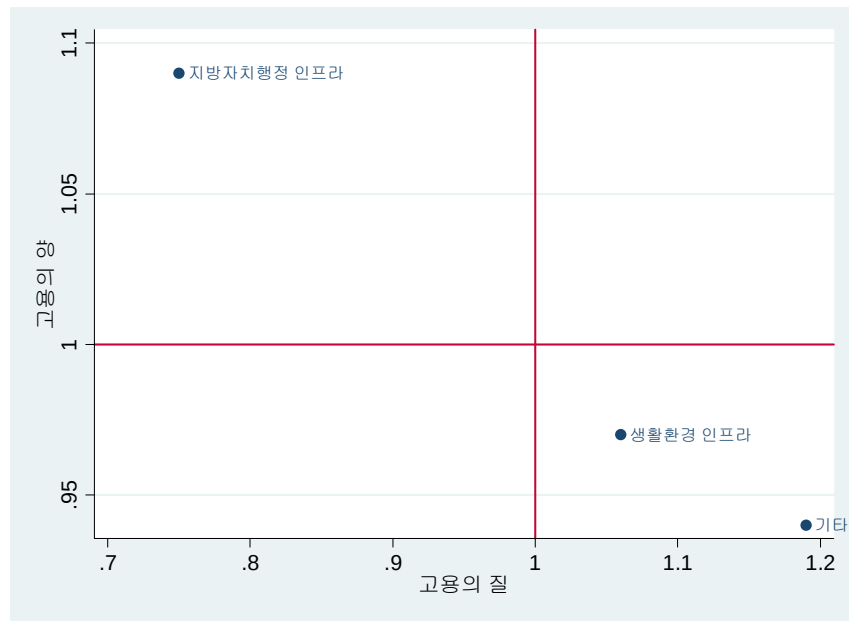


<그림 II-19> 연관산업 목적별 고용의 양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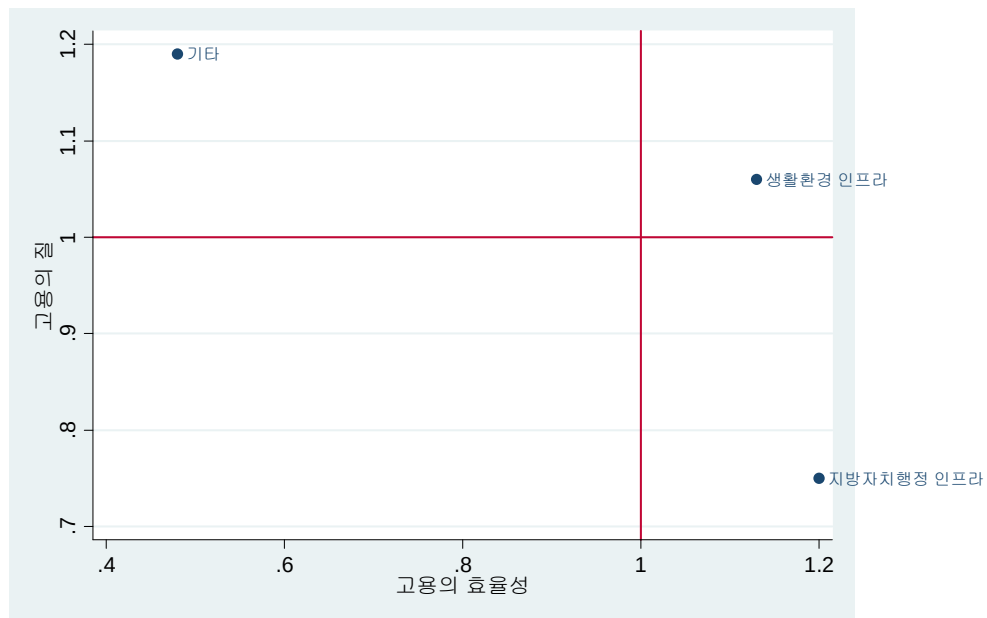
(마) 행정 인프라 VS 생활환경 인프라

□ 지역선택 동기별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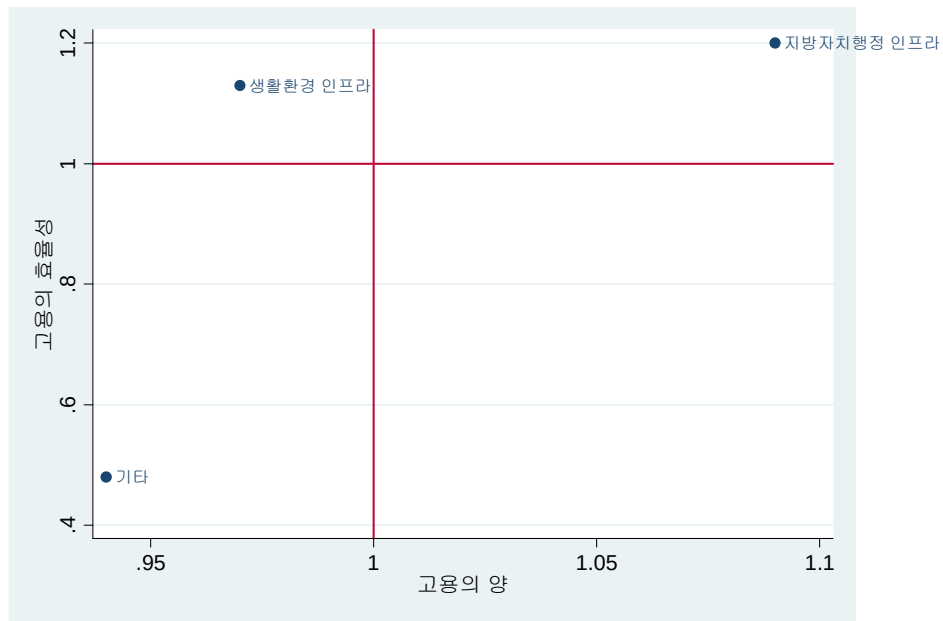
- 고용의 양에서는 지방자치행정 인프라가, 고용의 질에서는 기타와 생활환경 인프라가, 고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방자치행정 인프라와 생활환경 인프라가 높게 나타남.



<그림 II-20> 지역선택 동기별 고용의 양과 질



<그림 II-21> 지역선택 동기별 고용의 질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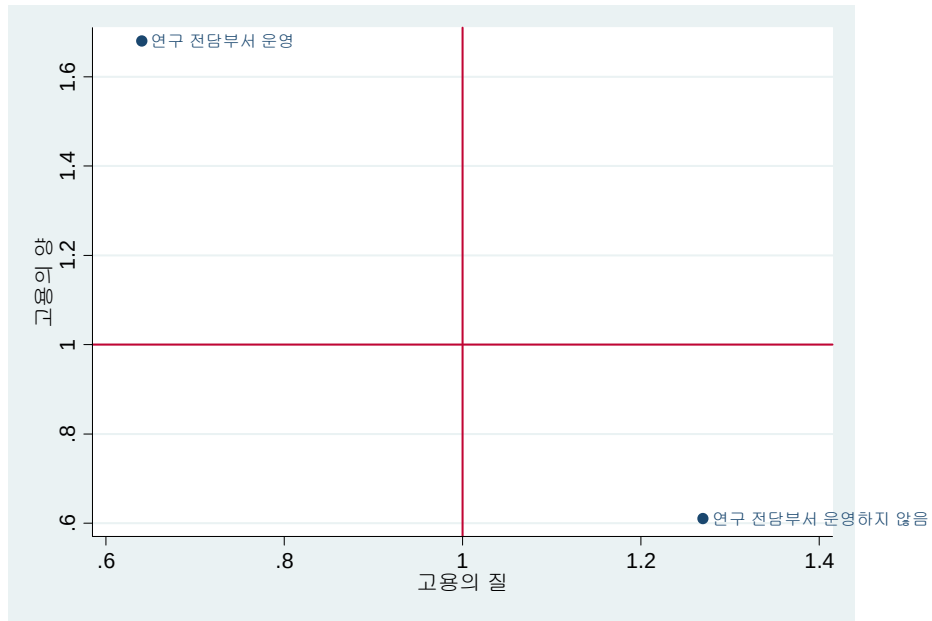


<그림 II-22> 지역선택 동기별 고용의 양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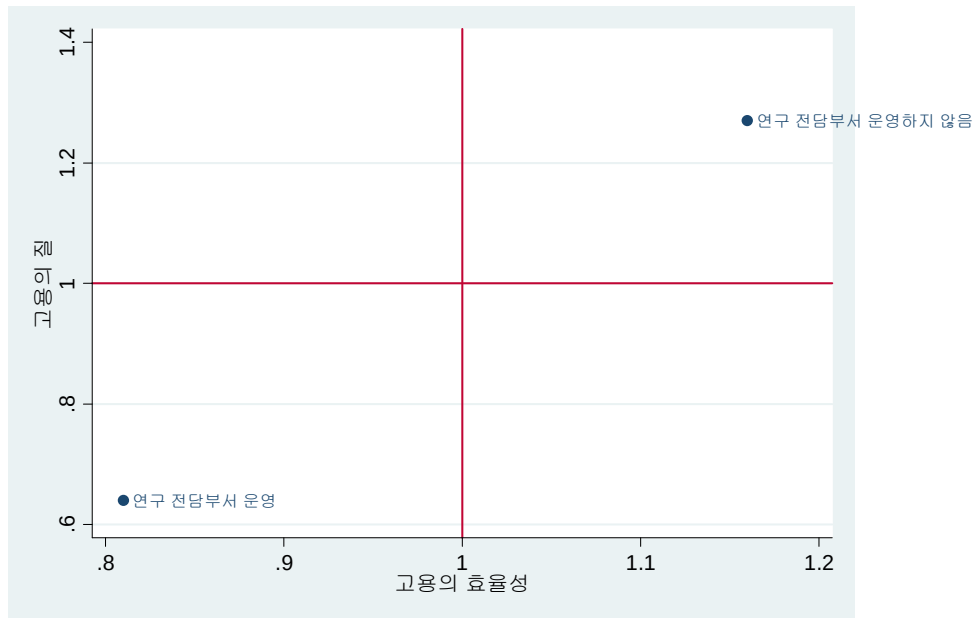
3) 연구개발 활동별

□ 연구개발활동별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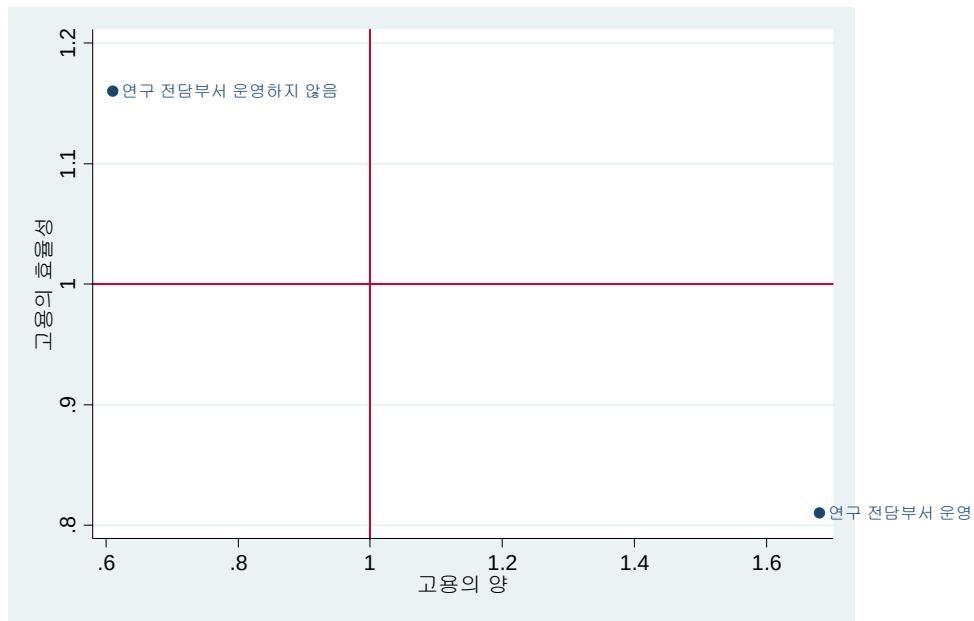
- 고용의 양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연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이, 고용의 질에서는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 높게 나타남.



<그림 II-23> 연구개발활동별 고용의 양과 질



<그림 II-24> 연구개발활동별 고용의 질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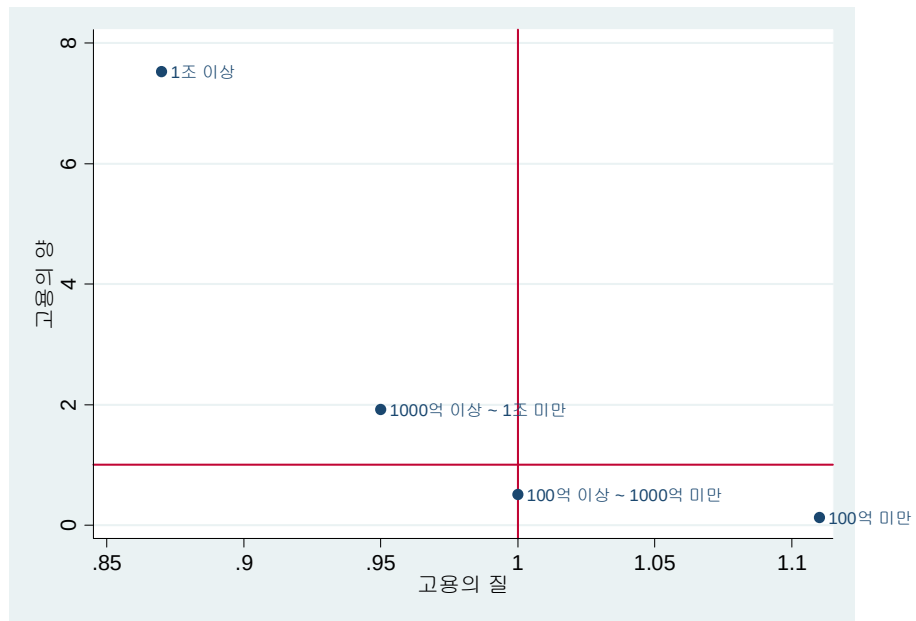


<그림 II-25> 연구개발활동별 고용의 양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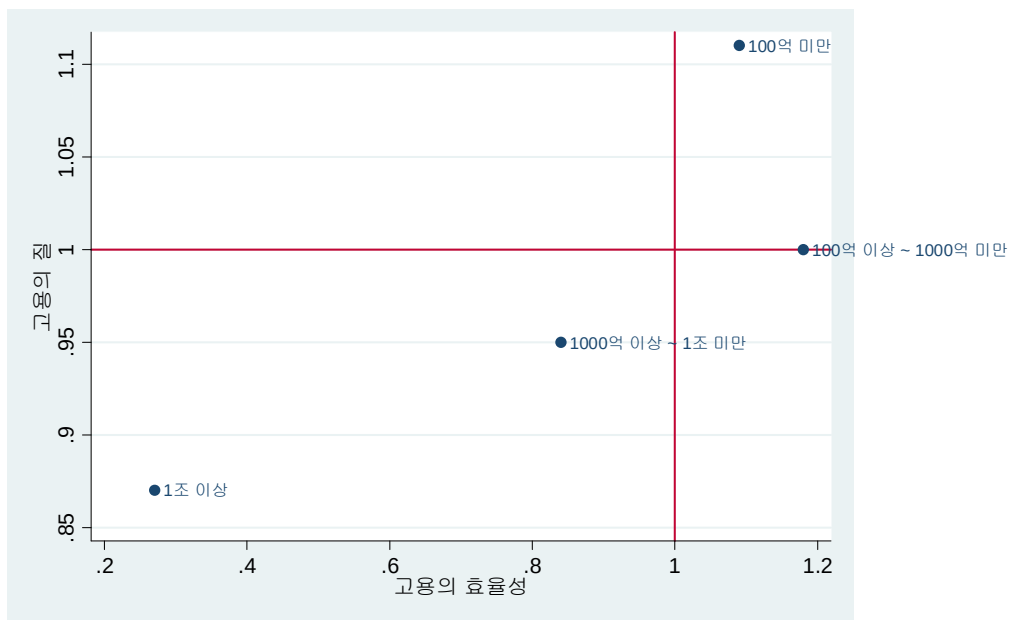
4) 기업규모별

□ 매출액 규모별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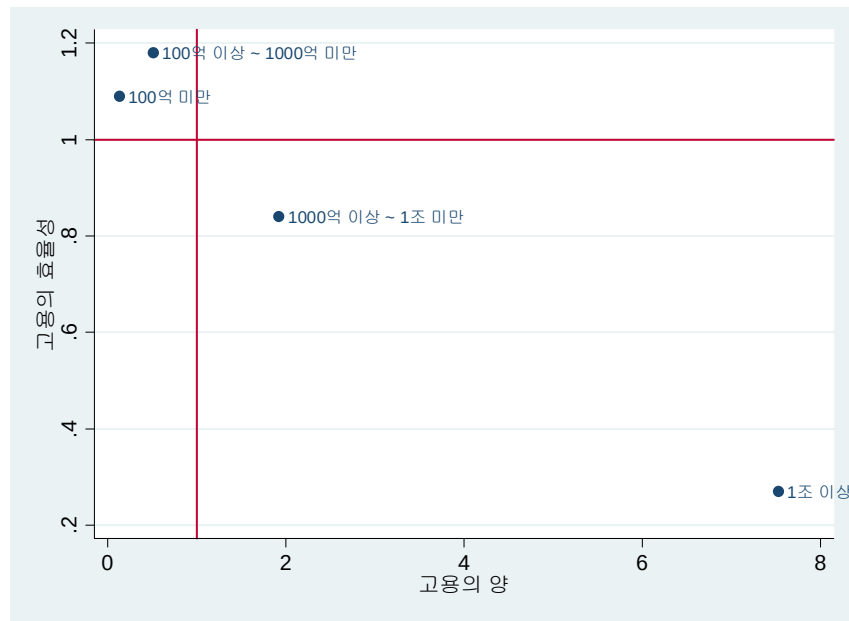
- 고용의 양에서는 매출액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고용의 질과 효율성은 대체적으로 매출액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고용의 양에서는 매출액이 높은 기업군에서 높게 나타남.
 -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매출액이 낮은 기업군에서 높게 나타남.
 - 고용의 효율성에서는 100억 이상 ~ 1000억 미만 기업과 100억 미만 기업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1000억 이상 ~ 1조 미만, 1조 이상 기업이 낮게 나타남.



<그림 II-26> 매출액 규모별 고용의 양과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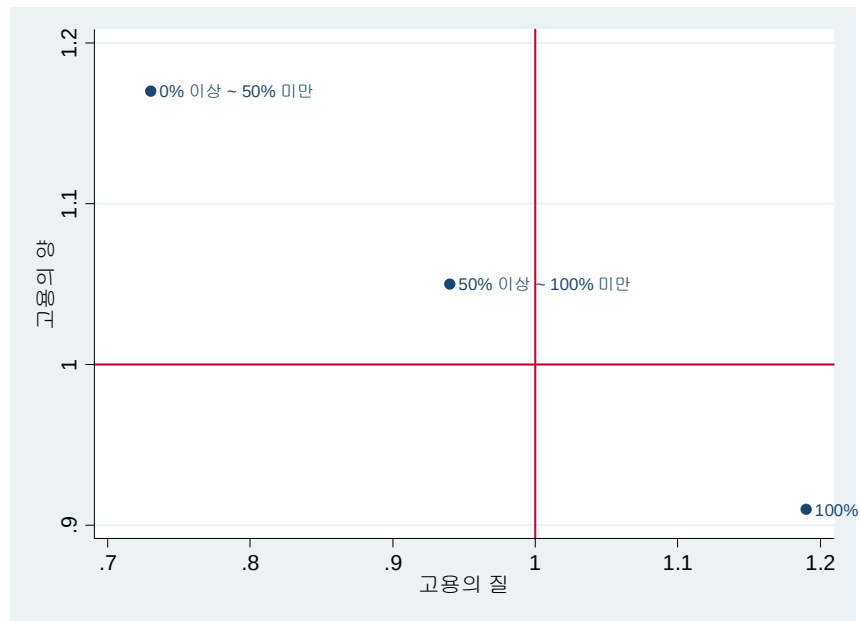
<그림 II-27> 매출액 규모별 고용의 질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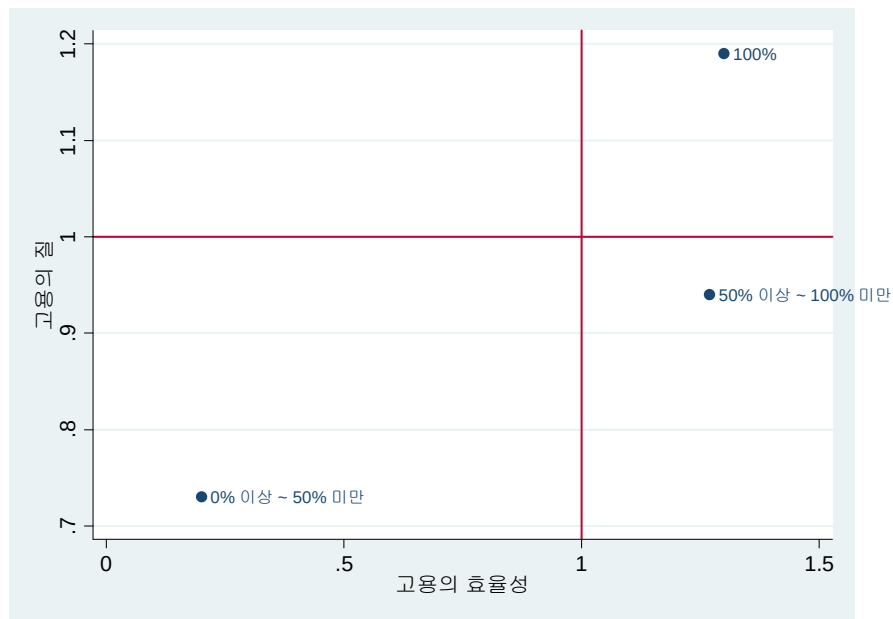
<그림 II-28> 매출액 규모별 고용의 양과 효율성

□ 직접투자율별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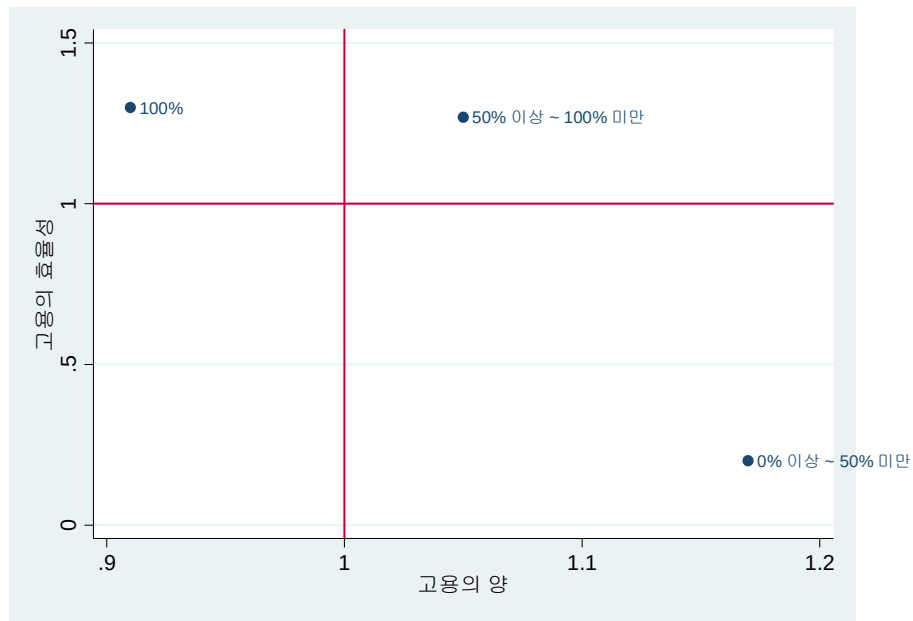
- 고용의 양에서는 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기업이, 고용의 질에서는 100% 직접투자 기업이, 고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100% 직접투자 기업, 50% 이상 ~ 100% 미만 기업이 높게 나타남.
- 고용의 양에서는 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기업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100% 직접투자 기업은 낮게 나타남.
-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100% 직접투자 기업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50% 이상 ~ 100% 미만, 0% 이상 ~ 50% 미만 기업이 낮게 나타남.
- 고용의 효율성에서는 직접투자율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II-29> 직접투자율별 고용의 양과 질



<그림 II-30> 직접투자율별 고용의 질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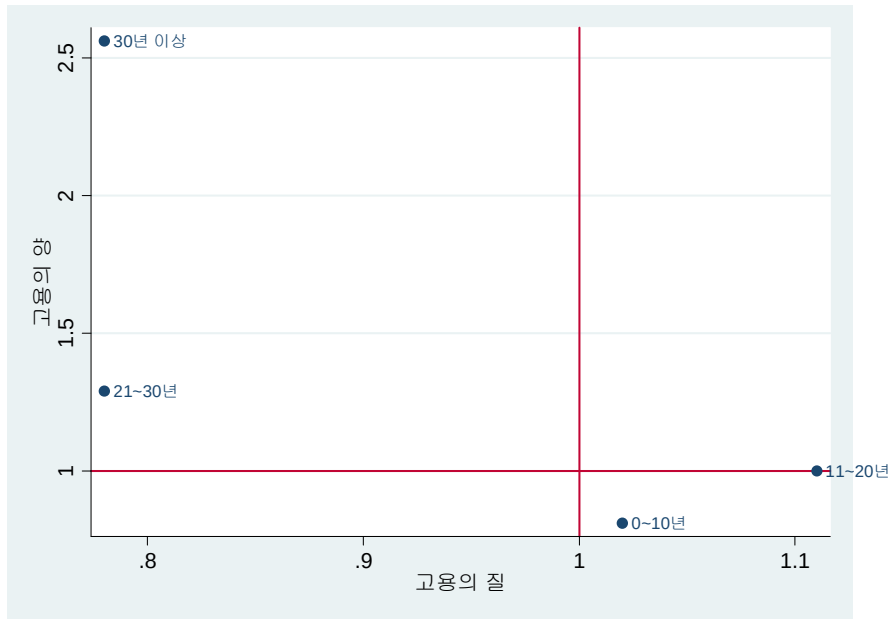


<그림 II-31> 직접투자율별 고용의 양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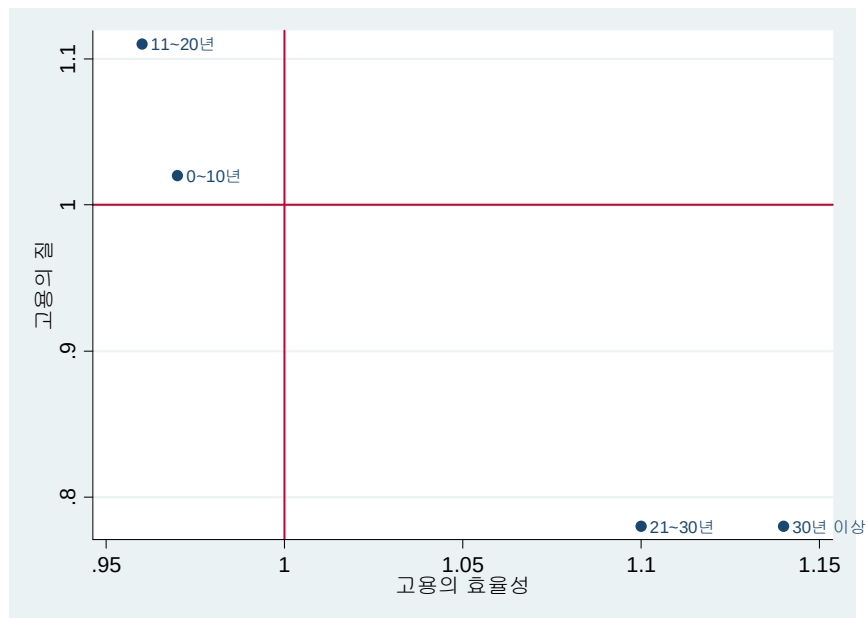
5) 투자기간별

□ 투자기간별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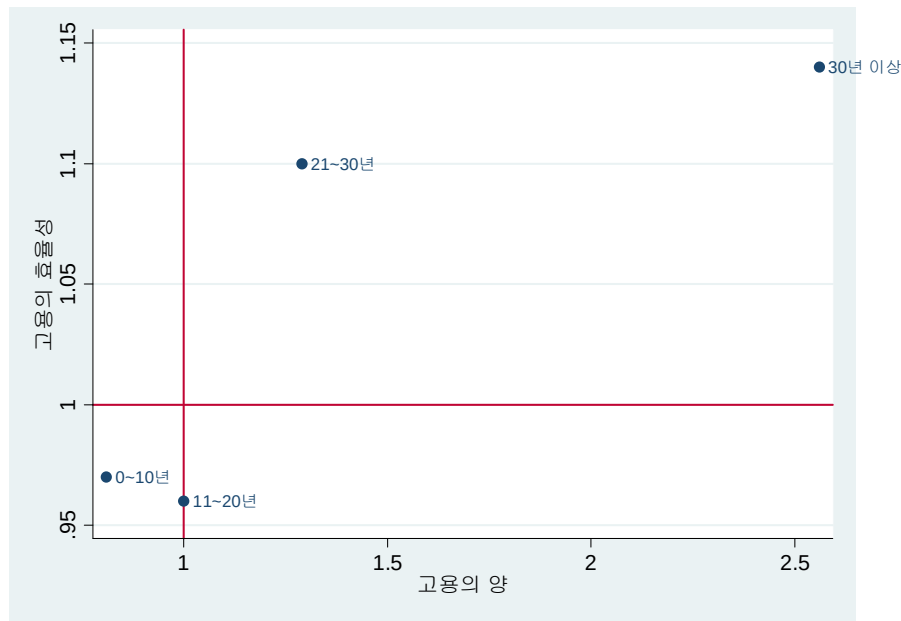
- 고용의 양에서는 투자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나며, 고용의 질에서는 11년 ~ 20년이 높게 나타남. 고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30년 이상, 21년 ~ 30년 기업이 높게 나타남.
- 고용의 양에서는 투자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남.
-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11년 ~ 20년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30년 이상, 21년 ~ 30년이 낮게 나타남.
- 고용의 효율성에서는 대체적으로 투자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II-32> 투자기간별 고용의 양과 질



<그림 II-33> 투자기간별 고용의 질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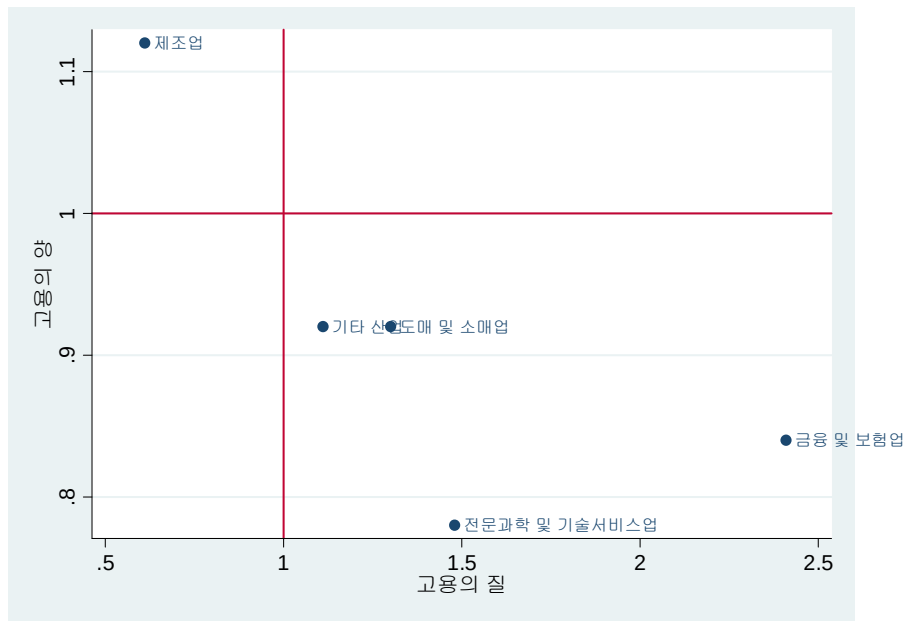


<그림 II-34> 투자기간별 고용의 양과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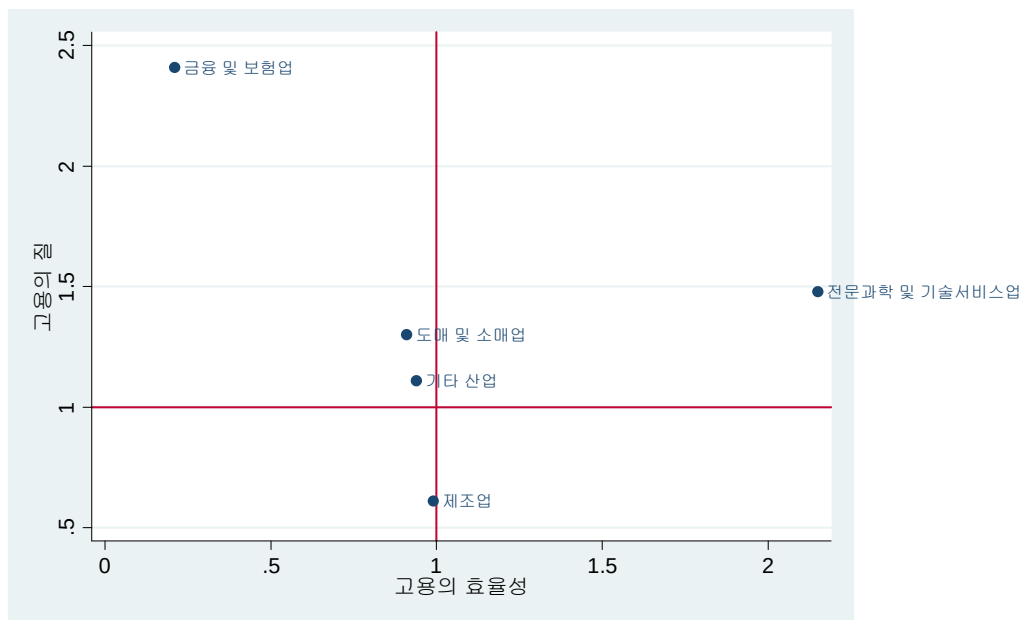
6) 기업업종별

□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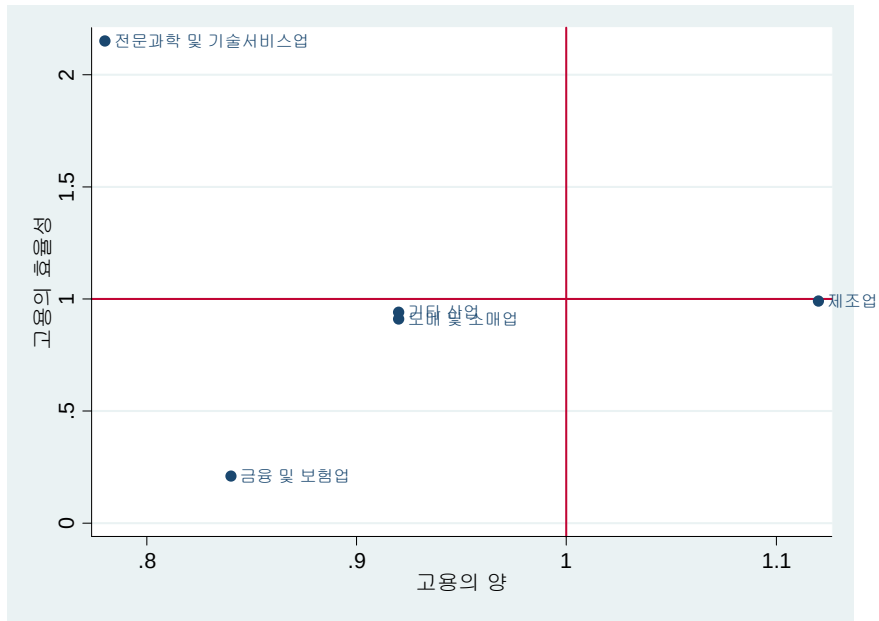
- 고용의 양에서는 제조업이, 고용의 질에서는 금융 및 보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가, 고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가 높게 나타남.
- 고용의 양에서는 제조업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금융 및 보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산업은 낮게 나타남.
-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및 기술서비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제조업이 낮게 나타남.
- 고용의 효율성에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산업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금융 및 보험 산업이 낮게 나타남.



<그림 II-35> 산업별 고용의 양과 질



<그림 II-36> 산업별 고용의 질과 효율성



<그림 II-37> 산업별 고용의 양과 효율성

6. 실증분석결과의 투자유치관련 시사점

- 지금까지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투자유치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첫째,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 업종을 여러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고용증대 관련 투자유치 대상 업종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임.
- 둘째, 업종에 관계없이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임.
- 이와 같은 특징들을 종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도출하기로 함.

6.1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업종

-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크게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 부문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기업재무 자료를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차원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됨.
- 외국인투자의 산업연관분석 및 개별기업차원의 분석 모두 업종별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업종별 외국인투자 고용효과는 두 가지 측면 - 고용의 양적인 측면 (① 외국인투자 업종별 고용창출 규모)과 질적인 측면 (② 투자금액당 업종별 고용창출 계수와 ③ 외국인투자 업종별 1인당 인건비 수준)에서 검토됨.
- 여기서 ①과 ②의 경우 산업연관분석을 통해서 도출되었으며, ③의 경우 기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출됨.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고용창출효과가 큰 투자유치 타겟업종 및 유치대상기업의 선정 작업은 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IV장의 정책제안 및 방안 도출 부분에서 자세하게 이루어짐.

<표 II-58> 외국인투자의 업종별 고용효과 분석결과의 요약

산업연관분석		기업데이터분석
외국인투자 고용규모 기준	투자의 고용유발계수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1인당 인건비 기준
도소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운수 비금속광물제품 건설 전기 및 전자기기 광산품 음식점 및 숙박 사회 및 기타서비스 목재 및 종이제품 일반기계 화학제품 금속제품 인쇄 및 복제 교육 및 보건 섬유 및 가죽제품 수송장비 전력, 가스 및 수도 제1차 금속제품 음식료품 정밀기기 농림수산물 기타제조업제품 공공행정 및 국방 석유 및 석탄제품	교육 및 보건 음식점 및 숙박 사회 및 기타서비스 도소매 건설 섬유 및 가죽제품 인쇄 및 복제 공공행정 및 국방 기타 기타제조업제품 정밀기기 운수 금속제품 일반기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 목재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광산품 수송장비 음식료품 통신 및 방송 농림수산물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석유 및 석탄제품	금융 및 보험 수송장비 통신 및 방송 정밀기기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건설 운수 및 보관 도소매 광산품 전력, 가스 및 수도 섬유 및 가죽제품 음식점 및 숙박 농림수산물 목재 및 종이제품 음식료품 제1차 금속제품 공공행정 및 국방 비금속 광물제품 일반기계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인쇄, 출판 및 복제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기타

6.2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

- ☐ 앞에서 수행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와 개별기업차원의 고용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업종에 관계없이 고용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핵심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상대적 인건비 수준보다는 우수인력 및 기술력 등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 둘째, 내수시장 확보목적의 투자. 내수비중이 높을수록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장기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투자. 투자기간이 오래될수록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중소 및 중견규모의 투자. 투자금액이 중소(100억 이하) 및 중견규모(100억-1000억)인 경우가 10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위의 네 가지 특징들은 고용창출에 중점을 둔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이와 관련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제Ⅳ장의 정책제안 부분에서 에서 자세하게 다룸.

Ⅲ. 해외사례 조사

1.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정책, 사례 등 외국 현황

1.1 영국

- ☐ 투자정책제도 개요

- 영국은 대표적인 투자인센티브제도로 SFI(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를 운영 중. 동 제도는 2008년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로 명칭 변경
- SFI는 고용과 낙후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82년 ‘산업개발법(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1982)에 근거하여 실업기금에서 지원
- 이러한 보조금은 유럽연합이 회원국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인센티브 지원조건

- SFI는 지원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Tier 1 : 최고낙후지역으로 유럽연합조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 1인당 GDP가 유럽연합 평균의 75% 이하인 지역
 - Tier 2 : 영국정부가 고용관련 지표(고용참가율, 겨여제활동인구기준 실업률 등) 또는 인구를 기준으로 선정
 - Tier 3 : 노동시장이 취약한 지역(실업률 및 고용률 기준), 광업지역, 농업개발지역 등으로 고용인 250인 이하의 중소기업만 지원
- 수혜요건은 다음의 9가지이며, 이 중 고용의 양과 질이 가장 중요
 - ① 지원지역에 투자
 - ② 보조금의 필요성 제시
 - ③ 투자내용의 적격성
 - ④ 일자리/기술 상황 향상
 - ⑤ 성공가능성
 - ⑥ 프로젝트(고용)의 질
 - ⑦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
 - ⑧ 지원금 이외 자본조달 가능성

⑨ 보조금지원 제한산업 여부(철강, 석탄, 화학섬유 등)

□ 인센티브 지원평가

- 투자프로젝트별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평가 후 인센티브를 지원. 평가 시 다음의 네 가지가 주요 사항임
 - 투자의 질(Quality of projects)
 - 고용의 질(Qualtiy of jobs)
 - 고용대체(Displacement)
 -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Regional cases)
- 지원지역 구분에 따라 지원내역이 상이하며, 투자건별로 개별 심사 후 지급
 - Tier 1 : 순적격투자비용(Net eligible project costs, 차입금을 제외한 순 투자금액)의 최고 50%까지 지원
 - Tier 2 : 순 투자금액의 최대 20%까지 지원 가능
 - Tier 3 : 최고지원금액 10만 파운드

□ 제도의 고용창출효과

- 동 제도는 핵심은 신규고용 창출 및 기존고용 유지이며, 1991~1995년까지 총 210,000명 고용에 기여하였으며, 대체 및 연관효과를 고려한 순 고용 측면에서는 약 84,000명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 동 고용유지 기간은 평균 10년으로 계산됨
- SFI는 내외국기업 구분없이 지원되며, 총 지원금액의 50%정도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지급됨

1.2 프랑스

□ 투자정책제도 개요

- 프랑스는 투자유치목표를 신규고용창출로 규정, 고용을 기준으로 현금 지원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
 - 제조업, 서비스업 : AFT(Aides a finalite regionale, 지역활성화 지역) 운영. 낭뜨, 투르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 R&D, 혁신분야 : 프랑스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

□ 인센티브 지원조건

- 제조업, 서비스업
 - 신규사업 : 25명 고용과 5백만 유로 투자 또는 50명 고용
 - 사업확장 : 50명 신규고용 또는 25백만 유로 투자
 - 인수(M&A) : 150명 고용유지, 15백만 유로 투자
- R&D, 혁신분야
 - 20명 고용창출과 7.5백만 유로 투자

□ 인센티브 지원평가

- 제조업, 서비스업
 - 1개 일자리 창출당 최대 1만5천 유로 지원
- R&D, 혁신산업
 - 1개 일자리 창출당 최대 2만5천 유로 지원
- 1인당 소득, 실업률 등을 기준으로 낙후지역, 준낙후지역, 일시적 낙후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 고용창출 인정 평가시, 투자 후 3년 동안 신규로 창출된 정규직 전일제 고용만 인정하며, 10명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 제도의 고용창출효과

- 신규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수치가 2008년의 경우 31,932명, 2009년은 29,889명으로 파악됨. 1개 프로젝트당 평균 고용창출 수는 2008년에는 50명, 2009년에는 47명임

□ 기타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 파리 및 근교지역인 일드프랑스(Ils-deFrance)를 아우르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그랑파리, 미래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20년 계획」을 추진

<표 III-1> 프랑스의 지역별 집중육성 대상 사업 및 고용창출 목표

지역	육성산업	특징	고용창출목표 (향후 15년간)
La Plain-Saint-Denis	디지털 영상이미지 산업	3D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약 15만명
La Defense	금융 및 비즈니스 산업	세계 우수기업 및 고급인재 유치 추진	-
Saclay	첨단 과학기술 산업	R&D 분야 학교, 기업, 연구소 입주 추진	약 13만명
Paris Sud	바이오기술 산업	생명과학, BT 중점지구 육성	약 10만명

2.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 사례 등 외국 현황

2.1 싱가포르

□ 싱가포르 경제와 외국인투자

- 싱가포르 경제는 외국인투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발전정책을 외국인투자에 기반하여 수립

- 2008년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전체 투자규모의 90% 가량을 차지

<표 III-2 > 싱가포르의 제조 및 서비스 산업 고정자산 투자규모

(단위 : S\$ Million)

	2006년	2007년	2008년
국내 투자	2801.3	2498.4	1863.4
외국인 투자	7555.8	14688.8	16182.6
총 합	103571.1	17187.26	18046.0

- 경제개발청(EDB)에서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투자프로젝트 완료시 예상되는 고용창출 수치를 발표(투자에서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0%가량으로 이를 분리하여 별도 집계하지는 않음)

<표 III-3> 싱가포르의 투자에 의한 예상 고용창출 규모

(단위 :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Total Employment Creation*	21,800	26,000	26,800	28,600	-
Skilled Employment	15,200	15,900	17,200	18,600	16,400

* Total employment creation: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규고용자 수

□ 고용창출을 위한 육성산업 및 성과

-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지식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 세부적으로는 의료, 제약, 바이오기술, 대체에너지, 항공우주, 교육, 물류, 전문직업 서비스 등이 포함
- 이 중 대표적인 산업이 바이오 메디컬 산업으로 2000년부터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허브’ 구축을 위한 육성 전략을 실시

- 최첨단 바이오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바이오 폴리스(Bio-polis) 건설 : 5개 이상의 세계적인 센터(연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유치로 목표로 설정
- 의료기관의 최첨단 기술 제공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 브랜드확립 추구
- 이밖에 바이오의료산업에서의 수요창출(해외환자 유치 등), 연구개발, 국내인재육성 및 유능한 인재 유치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

-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 비즈니스(EDB, Bio One Capital*), 교육(대학, 교육부), 연구(ASTR**, 정부산하 연구소), 정부(보건부) 등 4개영역에서 각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이 세부 육성방안을 마련, 실행
- 수상(Prime Minister) 산하의 국가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이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 * EDB의 자회사이며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대한 투자기관으로 기업이 싱가포르에 투자 시 지분투자 등을 통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 ** 과학연구 및 인재를 육성하는 정부기관

-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의 주요성과

- 총 4단계에 걸쳐 약 S\$ 800만을 투자하여 건립한 바이오폴리스에는 GSK, Novatis 등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R&D센터 및 정부 연구기관 등이 입주
-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대한 육성정책 실시 이후 동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의 고용창출 성과

- 본격적으로 바이오 메디컬 산업육성이 시작된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동 분야에서의 고용은 5,880명에서 12,45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

<표 III-4 > 싱가포르의 바이오 메디컬 산업에서의 성과

연도	2000	2005	2006	2007	2008
Manufacturing output(SGD billion)	6.3	17.7	23	24	19
value added (SGD billion)	3.8	9.2	13.6	13	10.6
No. of Employment opportunities	5,880	10,171	10,571	11,500	12,450

□ 고용창출 관련 기타 인센티브제도

- 혁신 및 R&D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센티브 중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이나 ‘고급인력 채용 증가’등을 수혜조건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 운영
- 기업연구 인센티브제도(RISC, Research Incentive Scheme for Companies)
 - 인센티브의 주요목적은 R&D 육성이나, 수혜조건 중 ‘연구과학자 및 엔지니어의 상당수 증가 또는 교육’이 포함
 - 인센티브 내용
 - . 인력관련 비용(인력의 월급, 항공임 및 체제비, 훈련 비용 등 포함)의 50%까지 지원
 - . 시설 및 장비 관련 비용(시설, 설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30% 지원
 - . 전문서비스(컨설팅, 계약 등) 비용의 30% 지원
 - . 지적재산권 관련비용(라이센싱, 로열티, 기술구매비용 등)의 30% 지원
 - 바이오 메디컬 산업 관련, 외국인투자자와 고용창출의 긍정적인 효과는 각종 인센티브 및 효과적인 정부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2.2 대만

□ 대만의 고용창출 육성 정책

- 대만은 ‘민간참여 6대 신흥산업’, ‘타이완 사랑 12 건설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나, 동 사업들은 고용창출이 주목적이 아닌 산업고도화를 통한 경제 발전이 궁극적인 목적임

□ 고용창출을 위한 육성산업 및 예상성과

- 타이완 사랑 12 건설사업
 - 정부투자 2조 6,500억 대만달러, 민간투자 1조 3,400억 달러 , 총 3조 9,900억 대만달러 규모의 공공건설 사업
 - GDP 2.95% 신장, 일자리 24.7만개 창출이 목표

<표 III-5> 대만의 민간참여 6대 신흥산업

산업명	육성내용	예상성과
바이오헬스케어	- 정부 예산 4년간 2배 증액	- 대만을 ‘한약 R&D센터’로 육성
메디컬케어	- 4년간 864억 대만달러 투자	- 신규고용 3만명 - 2012년까지 산업규모 3,464억 달러로 확대
문화창의	- 2009~2013년까지 280억 대만달러 투자 - 국가발전기금에서 100억 대만달러 조성, 창업대출을 통한 창업 지원	- 산업규모 1조억 이상 달성이 목표
관광여행	- 4년간 300억 대만달러 규모의 ‘관광산업발전기금’ 조성	- 2012년까지 관광수입 5,500억 대만달러 예상 - 직간접적인 취업효과 40만명 예상
그린에너지	- R&D 자금으로 200억 대만달러 투자	- 2천억 대만달러 이상의 민간투자 유도
선진농업	- 4년간 232억 대만달러 투자	- 2012년까지 생산규모 1,589억 대만달러로 확대 - 3.1만명 일자리 창출 예상

□ 고용창출 관련 기타 인센티브제도

- 산업혁신조례(産業創新條例)

- 내외국인의 투자 촉진과 산업발전을 위해 도입한 ‘산업고도화촉진조례’가 2009년말 종료되고, 2010년 5월 12일에 공포된 ‘산업혁신조례’가 이를 대체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 채용보조금 지급을 제외한 고용촉진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됨 (다른 법령에 따른 인센티브는 존속)

- 산업혁신조례 11조에 따르면, 소기업혁신, 인력구조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채용시 중앙주관부처에서 보조금을 지급. 보조금 지급의 세부사항은 중앙주관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바이오 신약 산업 발전 조례 규정(2007년 7월 6일 발효)

○ 바이오 신약 회사가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에 투자·지출하는 금액의 35%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법인세액을 공제

IV. 정책제안 및 방안 도출

1.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

1.1 해당 업종의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 및 글로벌 기업 도출

□ 외국인투자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

- 제Ⅱ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은 크게 산업별 고용규모,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산업별 1인당 인건비 등의 기준으로 세분하여 순위를 정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타겟업종을 선정해야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차원의 자료 분석의 경우 세부업종별 샘플기업의 수가 충분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타겟업종을 선정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음.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을 선정하고, 이들 업종들이 외국인투자기업차원의 1인당 인건비 분석의 경우에서도 우수한 업종들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본 연구에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외국인투자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은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인 2002년 이후 2008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위까지 보면, ① 도소매, ②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③ 통신 및 방송, ④ 금융 및 보험, ⑤ 운수, ⑥ 비금속광물제품, ⑦ 건설 ⑧ 전기 및 전자기기, ⑨ 광산품, ⑩ 음식점 및 숙박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고용유발계수(투자금액 10억원 당 고용유발인원수)에서 상위 10개 업종을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2005년을 기준으로 상위 10위를 보면,

① 교육 및 보건, ② 음식점 및 숙박, ③ 사회 및 기타서비스, ④ 도소매, ⑤ 건설, ⑥ 섬유 및 가죽제품, ⑦ 인쇄 및 복제, ⑧ 공공행정 및 국방, ⑨ 기타, ⑩ 기타제조업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에 의한 고용창출효과가 큰 타겟업종의 선정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고용효과가 높은 구체적인 세부 업종들을 잠재적인 타겟 업종으로 포괄한 다음,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업종 성격상 외국인투자 유치가능성이 높지 않은 업종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도소매, 건설과 섬유 및 가죽제품, 인쇄 및 복제 등의 경우 생산성이 낮은 분야이며, 광산품, 사회 및 기타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등의 분야는 투자유치가능성이 낮은 분야이고 통신 및 방송업은 투자제한 분야이므로 제외. 이들 업종들을 제외하면 비즈니스서비스업¹⁰⁾(부동산 임대, 경우 적극적 의미의 서비스제공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 금융 및 보험업, 교육 및 보건업, 관광업(음식점 및 숙박), 물류(운수 및 보관), 전자 및 전기기기 그리고 비금속광물제품 등 7대 업종으로 정리됨.
- 한편, 이들 업종들의 외국인투자기업 자료상 1인당 인건비 수준 기준의 순위를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17,440만원으로 1위, 통신 및 방송의 경우 10,150만원으로 3위, 교육 및 보건업의 경우 8,235만원으로 5위,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6,529만원으로 7위, 운수 및 보관업의 경우 5,101만원으로 9위 등으로 타겟업종 8개 업종중에서 5개 업종에서 1인당 인건비가 전체 외투기업 평균인 4,793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본 연구의 타겟업종 선정이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보더라도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평가됨.
- 결국, 외국인투자 중 고용창출효과가 큰 유치대상 업종은 고부가가치

10) 비즈니스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통계구분상 다시 IT서비스업, 과학서비스, 전문·기술서비스업(회계 및 경영컨설팅, 시장조사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광고업, 디자인업 등 포함) 그리고 아웃소싱서비스업 등으로 세분됨.

서비스업과 우리의 주력 제조업 분야라고 할 수 있음.

<표 IV-1> 외국인투자 고용창출 효과가 큰 투자유치 타겟 업종의 선정

산업연관분석상 외국인투자 고용창출효과 높은 업종		낮은 생산성 및 업종 성격상 투자유치 가능성이 낮은 업종 배제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7대 타겟 업종
외국인투자 고용규모가 큰 업종 상위 10위	외국인투자 고용유발계수 상위 10위		
A	B	C	D=(A+B)-C
① 도소매 ② 부동산/사업서비스 ③ 통신 및 방송 ④ 금융 및 보험 ⑤ 운수 ⑥ 비금속광물제품 ⑦ 건설 ⑧ 전기 및 전자기기 ⑨ 광산품 ⑩ 음식점 및 숙박	① 교육 및 보건 ② 음식점 및 숙박 ③ 사회/기타서비스 ④ 도소매 ⑤ 건설 ⑥ 섬유 및 가죽제품 ⑦ 인쇄 및 복제 ⑧ 공공행정 및 국방 ⑨ 기타 ⑩ 기타제조업제품	① 도소매 ② 사회/기타서비스 ③ 건설 ④ 광산품 ⑤ 섬유 및 가죽제품 ⑥ 인쇄 및 복제 ⑦ 공공행정 및 국방 ⑧ 기타 ⑨ 기타제조업제품	① 비즈니스서비스* ② 금융 및 보험 ③ 물류** ④ 관광*** ⑤ 교육 및 보건 ⑥ 전기 및 전자기기 ⑦ 비금속광물제품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통계상 비즈니스(사업)서비스업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적극적 의미의 서비스제공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타겟업종에서 제외함.

** 운수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통계상 운수 및 보관(물류)로 구분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물류업으로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 업종 명칭을 물류업으로 설정함.

*** 음식점 및 숙박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광업으로 통칭하고 있어서 타겟 업종 명칭을 관광업으로 설정함.

□ 해당 분야 투자가 많은 국가의 도출

- 위에서 도출한 투자유치 대상 업종별로 투자가 많은 국가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교육 및 보건 분야의 경우 상당 부분 투자제한 분야이며 별도의 자세한 통계도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종별로 투자 상위 5개국을 순위별로 나타낸 것임.

<표 IV-2> 고용효과가 큰 업종별* 주요 투자국

타겟업종	상위 5개국 순위 순(2010. 6까지 누적신고금액)
금융 및 보험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비즈니스서비스	네덜란드, 일본, 미국, 중국, 케이만군도
관광	호주,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 홍콩
물류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전자 및 전기기기	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비금속광물	일본,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말레이시아

- 먼저,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및 벨기에 순으로 나타남.
-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경우 네덜란드, 일본, 미국, 중국, 케이만군도 순임.
- 관광업(음식점 및 숙박)의 경우 호주,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 및 홍콩 등임.
- 물류분야의 경우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임.
- 제조업 분야인 전자 및 전기기기 분야의 경우 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 및 캐나다 순임.
- 비금속광물 분야의 경우 일본이 압도적으로 1위이고, 미국, 싱가포르 순임.

1.2 전략적 유치 타겟 지역(국가) 및 기업 도출, 선정

□ 전략적 유치 타겟 지역(국가)

- 앞서 제시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업종별로 전략적 유치 타겟 지역(국가)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크게 영미계(미국과 영국) 금융기관과 유럽대륙계(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및 독일) 금융기관 그리고 일본계 금융기관으로 전략적 타겟 지역이 정해질 수 있음. 독일과 일본의 경우 비록 현재까지의 투자순위 측면에서는 5위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이들 국가의 금융기관들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략적 국가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경우 앞서 분석에서 네덜란드, 일본, 미국, 중국, 케이만군도가 5대 투자국으로 나타났지만, 케이만군도의 경우 영국령으로 사실상 미국 및 영국 투자자들의 경유지 정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타겟으로 정할 필요는 없음. 영국의 경우 유럽에서 네덜란드 다음으로 투자가 많다는 점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따라서 비즈니스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영미계(미국과 영국) 기업, 네덜란드 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으로 타겟팅이 가능함.
- 관광업의 경우 영미국가 중 미국과 호주,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홍콩, 그리고 유럽의 경우 룩셈부르크는 유럽투자기업들의 경유지 성격이 크기 때문에 유럽에서 상당한 투자를 행한 이탈리아 및 기타 대륙계 관광분야 기업들로 타겟팅 할 필요가 있음.
- 물류분야의 경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경우 물류기업이 발전했다기 보다는 라부안을 통한 외국인 투자가 많다는 점에서 제외), 유럽의 경우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전략적 타겟 국가라고 할 수 있음.

- 전자 및 전기기기 분야의 경우 영미계 국가중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일본 등으로 타겟국가가 정해짐.
- 비금속광물 분야의 경우 실리콘이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을 타겟 국가로 정할 수 있음.

<표 IV-3> 고용효과가 큰 업종별 투자유치 타겟 지역(국가) 선정

타겟업종	투자누적금액 상위 5개국	전략적 유치 타겟 지역(국가)
금융 및 보험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영미지역, 서유럽지역, 일본
사업서비스	네덜란드, 일본, 미국, 중국, 케이만군도	영미지역, 네덜란드, 일본
관광	호주,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 홍콩	미국, 호주, 일본, 홍콩, 이태리
물류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전자/전기기기	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비금속광물	일본,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 전략적 유치 타겟 기업의 선정

- 전략적 유치 타겟 기업은 앞서 선정한 전략적 유치 타겟 지역(국가)의 타겟업종내 선도기업으로 국내에 아직 투자진출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 이 기준을 통한 타겟기업의 선정은 hoovers.com과 fdimarkets.com의 DB를 참조하여 주로 전략적 유치 타겟지역(국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선정한 것임. 정렬기준은 세부업종별 2009년 매출액(Mn\$)순임.

<표 IV-4> 고용효과가 큰 업종별 투자유치 타겟 기업

① 금융 및 보험업

연 번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수
1	Columbia Community Credit Union	Banking	미국	53,188.7	209
2	Keypoint Credit Union	Banking	미국	50,372.0	184
3	The Thomson Company Inc	Banking	캐나다	7,165.1	53,700
4	Nrw Bank	Banking	독일	4,751.4	11,705
5	Nippon Life Insurance Company	Life Insurance	일본	6,689,872. 0	67,438
6	Meiji Yasuda Life Insurance Company	Life Insurance	일본	46,650.1	40,485
7	CUNA Mutual Insurance Society	Credit Insurance	미국	2,764.0	4,500
8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Company	Property/ Casualty Insurance	미국	32,064.0	68,000
9	China Reinsurance (Group) Corp.	Reinsurance	중국	4,335.5	200
10	Toa Reinsurance	Reinsurance	일본	1,347.7	357

<표 IV-4> 고용효과가 큰 업종별 투자유치 타겟 기업(계속)

② 비즈니스 서비스업

연 번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수
1	Universal Outdoor Pty Limited	Advertising & Marketing	호주	1,201.7	5,644
2	Recruit Co, Ltd	Staffing	일본	3,571.6	7,477
3	Beijing Foreign Enterprise Human Resources Service Co, Ltd	Human Resources & Staffing, Consulting	중국	1,504.8	889
4	China International Intellectech (Shanghai) Corporation	Human Resources & Staffing, Consulting	중국	1,294.6	150
5	Worley parsons Services Pty Limited	Technical &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호주	4,471.4	32,200
6	Dekra Se	Technical &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독일	2,543.1	22,000
7	Lloyd's Register Group	consulting & risk management services	영국	1,239.0	1,812
8	The MITRE Corporation	consulting, engineering, technical research services	미국	1,263.3	7,000
9	Imtech Deutschland GmbH & Co Kg	Technical &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독일	1,080.8	4,300
10	Chenega Corpo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training, manufactu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미국	1,077.4	4,500

<표 IV-4> 고용효과가 큰 업종별 투자유치 타겟 기업(계속)

③ 관광업

연 번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수
1	Zensho Co, Ltd	Restaurants & Cafes	일본	3,742.7	5,151
2	Spotless Services Australia Limited	Restaurants & Cafes	호주	1,872.5	35,000
3	Crown Melbourne Limited	Restaurants & Cafes	호주	1,158.0	8,000
4	The Grape Management Pty Ltd	Hotel and Motel - Lodging	호주	38,955.3	--
5	Hotel Royal Limited	Hotel and Motel - Lodging	싱가포르	18,249.8	180
6	Aboutrooms Com Ltd.	Hotel and Motel - Lodging	호주	5,066.6	--
7	Swift Hotels (Management) Ltd.	Hotel and Motel - Lodging	영국	1,708.0	40,000
8	Bristol Bay Native Corporation	Hotel and Motel - Lodging	미국	1,294.9	1,022
9	Maruhan Co, Ltd	Amusement Parks & Arcades	일본	23,675.4	10,457
10	Dynam Co, Ltd	Amusement Parks & Arcades	일본	9,600.0	3,957

<표 IV-4> 고용효과가 큰 업종별 투자유치 타겟 기업(계속)

④ 물류

연 번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수
1	Toll (Fhl) Pty Ltd	Express Delivery Services	호주	2,981.3	100
2	Jfe Logistics Corporation	Express Delivery Services	일본	2,050.8	2,628
3	Purolator Courier Ltd	Express Delivery Services	캐나다	1,278.2	12,500
4	General Logistics Systems Germany Gmbh & Co Ohg	Express Delivery Services	독일	1,199.2	13,000
5	APM Terminals Management B.V.	Port, Harbor & Marine Terminal Management	네덜란드	3,118.2	120
6	PSA International Pte Ltd	Port, Harbor & Marine Terminal Management	싱가포르	2,953.4	5,000
7	Van Oord nv	Port, Harbor & Marine Terminal Management	네덜란드	2,672.4	4,500
8	Wallenius Wilhelmsen Logistics AS	Logistics Services	노르웨이	2,144.6	3,300
9	Pacific Carriers Limited	Logistics Services	싱가포르	1,308.8	200
10	Aliança Navegação e Logística Ltda.	Marine Shipping Logistics Services	브라질	1,116.1	1,200

<표 IV-4> 고용효과가 큰 업종별 투자유치 타겟 기업(계속)

⑤ 전자 및 전기기기

연 번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 수
1	Phoenix Contact GmbH & Co Kg	Electrical Products	독일	1,621.2	3,600
2	Bticino Spa	Electrical Products	이탈리아	1,199.4	3,163
3	Continental Teves Ag & Co Ohg	Electronic Components	독일	5,451.8	130,000
4	Qimonda Ag	Electronic Components	독일	4,966.4	11,802
5	Magyar Suzuki Zartkoruen Mukodo Reszvenytarsasag	Electronic Components	헝가리	2,334.0	3,917
6	Conti Temic Microelectronic GmbH	Electronic Components	독일	1,958.9	7,500
7	Wuxi Sharp Electronic Components Co , Ltd	Electronic Components	중국	1,919.6	9,430
8	Gaoxian Electronic (Shenzhen) Co , Ltd	Electronic Components	중국	1,835.9	1,200
9	Stmicroelectronics Sdn Bhd	Electronic Components	말레이시아	1,773.9	3,000
10	Diehl Stiftung & Co Kg	Electronic Test & Measurement Instruments	독일	2,729.3	12,150

<표 IV-4> 고용효과가 큰 업종별 투자유치 타겟 기업(계속)

⑥ 비금속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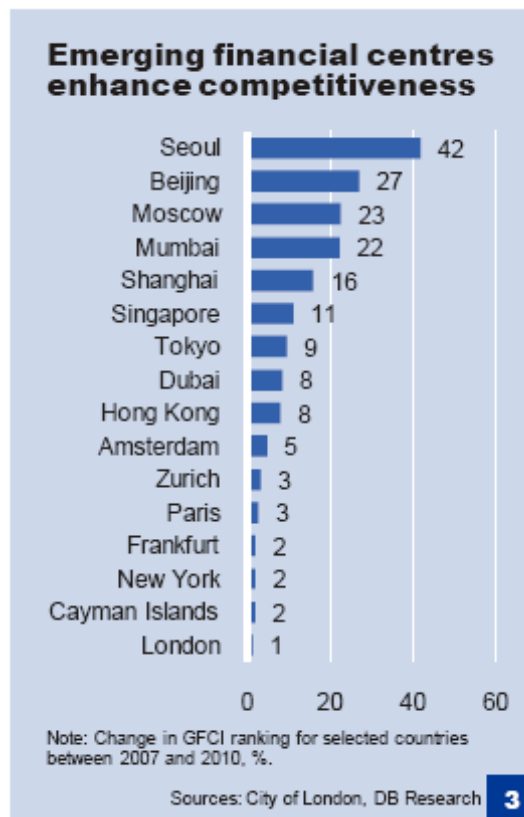
연 번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 수
1	Momentive Specialty Chemicals, Inc.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미국	6,093.0	6,800
2	Diester Industrie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프랑스	2,712.4	52
3	Duluxgroup (Australia) Pty Ltd	Paints, Coatings & Other Finishing Product Manufacturing	호주	6,209.7	3,000
4	Sasol Germany Gmbh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독일	1,355.9	1,400
5	Imerys Pigments, Inc.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미국	1,076.0	2,517
6	Tangshan Sanyou Group Co., Ltd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중국	1,006.4	70
7	Cepsa Quimica Sa	Industrial Organic Chemicals	스페인	2,489.2	1,035
8	Grupo Petrotemex, S A De C V	Industrial Organic Chemicals	멕시코	2,245.8	1,300
9	Actega Terra Gmbh	Paints, Coatings & Other Finishing Product Manufacturing	독일	1,596.5	4,789
10	Shin-Etsu Handotai Co. Ltd.	Semiconductor Equipment Manufacturing	일본	2,449.8	1,760

1.3 업종 분야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치 촉진 방안 등

□ 금융 및 보험 분야

- 금융 및 보험 분야의 경우 차별화된 투자유치 촉진전략은 우선 서울의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개선된 위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금융중심지를 대상으로 경쟁력 개선정도를 조사한 도이체뱅크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은 순위상승율에서 42%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함. 아직 절대적인 순위에서는 중간정도 그룹에 속하고 있지만,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서울의 국제금융시장 환경은 향후 높은 성장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임.

<그림 IV-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금융센터의 경쟁력 개선 순위



자료원: Steffen Kern, Global financial centres after the crisis, Deutsche Bank Research, 2010.

- 한편, 서울국제금융지구(여의도) 및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의 개발계획을 활용한 투자유치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2009년 12월 정부는 국제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확정하면서 서울의 여의도와 부산 문현 지구를 국제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관련 지구지정, 인프라 투자 및 각종 제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국제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활용하여 개발 단계별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전개하는 것이 중요함.

□ 비즈니스서비스분야

- 첫째, 비즈니스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성공의 필수적 요소는 서비스의 현지화 및 한국적 비즈니스 관행의 이해라는 점을 고려한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외국 비즈니스서비스 기업 입장에서 한국을 서비스의 현지화 및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기업 존 한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기존 한국기업의 인수를 통한 한국 시장 진출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과의 M&A 및 합작투자의 촉진하는 방향으로 투자유치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비즈니스서비스분야의 M&A와 합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매치 메이킹 기능을 IK의 투자유치 주요 기능의 하나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활용한 투자유치전략의 전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은 2010년 5월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동 제도가 추구하는 핵심유치 업종이 비즈니스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동 제도에 따른 투자여건의 개선 및 관련 인센티브를 활용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이를 활용하는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관광 분야

- 관광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분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함. 예를 들어 숙박업의 경우 객실 1개당 1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정설임.
- 관광분야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형 관광레저 산업의 발전추세를 고려한 투자유치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관광레저산업은 1인당 소득수준이 2-3만불 이상이 되면 고급화되는 경향이 강함. 한국의 경우 이미 2만불 수준이며, 향후 10년내 소득수준의 추가적인 향상이 예상되는데, 고급화된 관광레저 소비 수요증대를 고려한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인 고급 관광레저시설로는 요트 정박 및 운항여건을 보유한 마리나 리조트, 골프 레지던스, 프라이버시보장형 고급리조트, 의료관광 복합형 리조트 등을 들 수 있음. 현재, 자연 의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고급 관광레저시설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한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관광분야의 경우 잠재력이 큰 틈새 호텔분야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호텔의 제시를 통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내 호텔업은 초고급 형태와 여관 및 모텔 등 영세한 형태로 양 극단만 존재하는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음. 반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합리적인 가격의 중급 비즈니스호텔 부문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합리적 가격의 중급 비즈니스호텔에 대한 성장잠재력을 투자유치사업 모델화 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고소득 관광객에 따른 시장성장전망도 밝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물류 분야

- 물류분야의 경우 크게 이미 물류인프라 시설분야와 제3자 물류 등 부가가치 물류서비스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물류인프라 시설분야의 경우 이미 물류인프라 시설 부분의 투자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물류분야 투자유치 전략은 고용창출효과도 크고 관련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큰 제3자 물류 분야에서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제3자 물류 분야의 경우 전문적인 물류 노하우뿐만 아니라, IT, 공급망 관리, 경영컨설팅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사업 분야라는 점에서 외국 제3자 물류기업과 관련 국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M&A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한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전자 및 전기기기 분야

- 전자 및 전기기기 분야의 경우 국내 기업과의 사업연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기회의 발굴을 통한 투자유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전자 및 전기기기 분야의 경우 이미 상당수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삼성이나 LG와 같은 글로벌 전자제품 생산 기업과의 사업적 관계 때문에 국내에 투자를 실행한 상태임. 즉, 전자 및 전기기기 분야의 기존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외국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투자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전자분야 외국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투자자 발굴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투자유치기관이 전자 및 전기기기 분야의 글로벌 산업발전 추세를 예

의 주시하면서 국내 글로벌 전자기업들의 새로운 사업기회의 모색 및 기존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및 아이디어 보유 외국기업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그리고 이들 잠재적 협력 가능 외국기업들과 국내 대기업을 연결시켜주어 상호 윈윈의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하고, 이러한 협력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함.

□ 비금속광물 분야

- 비금속광물(비금속가공도 포함) 분야는 대표적인 소재산업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했듯이 고용창출효과도 크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해야 함.
- 비철·비금속광물 분야는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 우리나라의 현 주력 제조업의 핵심 소재와 관련되고, 신성장동력 분야인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가장 중요한 소재 공급과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고도화된 비즈니스모델을 모색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비철·비금속광물 가공분야에서 최적의 투자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활용한 투자유치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예를 들어 원재료 생산지(러시아 및 중국 등)와의 인접성, 시장수요(국내 전자 및 자동차 산업, 신성장동력 산업육성 정책 등)의 확보, 발전된 연구개발 인프라, 발달된 물류 시설 등을 결합하여 유망한 사업기회를 홍보할 필요.

□ 지금까지 제시한 타겟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투자유치 촉진방안을 정리하면, <표 IV-5>와 같음.

<표 IV-5> 업종 분야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투자유치 촉진 방안 요약

타겟업종	업종별 차별화된 투자유치 촉진 방안	근거 및 관련 사항
금융 및 보험업	- 서울의 국제금융지로서의 개선된 위상 활용	- 세계 금융중심지 경쟁력 개선 1위(도이치뱅크)
	- 서울국제금융지구(여의도) 및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의 개발계획 활용	- 2009년 12월 정부의 개발계획 확정 발표
사업 서비스업	- 글로벌서비스기업과 국내 관련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여 투자유치	- 비즈니스서비스기업의 성공요인은 서비스의 현지화 정도와 관련
	- 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 활용	- 2010년 5월 입법: 비즈니스서비스업 관련 투자여건개선에 초점
관광업	- 고급화된 관광레저 수요증대를 고려한 투자유치전략의 수립	- 마리나리조트, 골프레지던스, 프라이버시보장형 리조트 등
	- 잠재력이 큰 틈새 호텔분야 비즈니스 모델의 제시를 통한 투자유치	-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합리적 가격의 비즈니스호텔분야
물류	- 물류인프라 부문보다는 제3자물류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집중	- 제3자 물류의 경우 고용 및 관련 산업의 생산성 제고효과가 높음
	- 국내 관련기업과의 전략적 제휴형 투자유치	- 물류노하우, IT, 공급망관리, 경영컨설팅 등 국내 관련 기업과 협력
전자/전기기기	- 국내 전자기업의 신사업기회 모색 차원에서 잠재적 글로벌 협력기업 유치	- IK가 글로벌 산업추세와 주요 신기술 개발 외국기업의 발굴
비금속광물	- 소재산업의 핵심부분이기 때문에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한 투자유치	- 원료생산지(러시아 및 중국), 시장의 인접성과 인프라를 연계

2.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의 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및 환경 개선 등 여건조성 방안

- 위에서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별로 필요한 투자유치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투자유치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종의 규제개선 및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한 여건조성이 중요함. 이와 관련, 두 가지 접근방식이 필요함. 하나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제 및 투자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업종별로 규제 및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이 방안들은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이에 바탕을 둔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제시됨.

2.1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의 유치 촉진을 위한 전반적 환경 개선 방안

□ 국제 전략적 제휴 중개기능의 활성화

-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에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서비스의 현지화를 도울 수 있는 국제적 전략적 제휴의 확대임. 이는 외국 서비스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자본출자를 포함한 전략적 제휴로 크게 보면 외국인투자유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전략적 제휴는 단순한 기술 및 노하우 공여계약에서부터 시작하여 합작법인의 설립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전략적 제휴가 발전하면 직접적으로 FDI 증가로 나타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국내기업과 외국 서비스기업의 전략적 제휴는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IK와 같은 투자유치기관이 광범위한 투자유치 기능의 범위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주선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활동이 IK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록 단기적으로 투자 금액이 수반되지 않는 제휴 중개 활동의 경우에도 준 투자유치활동으로 보고 이를 업무 성과로 인정하고 투자유치담당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핵심 투자유치 대상 업종별로 잠재적 외국기업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국내 관련 기업과의 사업협력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하는 전담 조사 요원들을 IK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그리고 투자유치상담회와 같은 직접적인 투자유치 목적의 투자로드쇼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국제협력사업 상담회를 개최하는 노력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M&A 시장의 활성화

-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국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의 한 형태로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M&A형 투자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M&A형 외국인투자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M&A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M&A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는 자본시장 자체가 다양한 M&A 기법이 가능하도록 할 정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LBO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도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다양한 M&A 활동에 따른 조세가 중립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김준동 외,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2009). 또한 M&A 중개서비스도 잘 발달되지 않은 상황으로 특히 중소기업 M&A의 중개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 M&A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이 필요하고 M&A 관련 세제 중립성의 제고, M&A 중개서비스의 활성화 등의 정책

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김준동 외, 2009). 국내 자본시장 육성과 관련해서는 LBO 방식의 M&A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법적으로 LBO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고개선이 필요함. M&A 관련 세제의 경우 법인 보유 타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과 과세이연이 이루어지는 과세특례합병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또한 M&A 중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M&A 수수료에 관한 공정기준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식 비즈니스 브로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국경간 M&A의 경우 언어문제, 글로벌 네트워크 문제 등이 중요하므로 국경간 M&A 전문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서비스분야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 촉진

- 앞서 제시된 고용효과가 큰 타겟 업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및 관련 지원분야에서 풍부한 국제적 전문인력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금융서비스, 멀티미디어, 비즈니스서비스, 제3자 물류 서비스,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가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풍부해야 함. 특히 이러한 전문인력은 단순한 업종내 전문성과 함께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나고 여기에 문화적인 다양성도 추구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력이어야 함.
-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국제적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국제화 촉진과 함께 국제적인 전문 고등교육기관의 활성화 및 외국대학의 유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국제물류 및 미디어 분야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유치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지만 국제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크게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국제금융중심지, 디지털미디어시티 등 다양한 서비스분야 클러스터 개발 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 및 국내 교육기관의 유치 노력을 전개하며,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생활환경의 개선

- 고용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분야 업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해당 외국기업에 종사할 외국인상사주재원의 국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그동안 의료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아직도 미비한 여러 측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외국인상사주재원을 위한 동남아 가사도우미 인력에 대한 관리, 외국인 상사주재원의 주거와 관련하여 2년분 월세의 일시납 조건의 임대 관행 문제, 국내 교육 및 의료서비스 이용상 불편함 등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작은 사항들을 인식할 수도 있으나, 외국인 상사주재원의 한국행에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또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동남아 가사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어서 싱가포르 체류 상사주재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년분 월세의 일시납 조건의 임대 관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외국인용 주택을 구입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전세방식으로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외국인의 국내 공공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립학교에 한국인과 외국인 자녀로 구성된 국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시범학교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저렴하면서 우수한 서비스를 외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 통역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2.2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의 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및 환경 개선방안

□ 금융 및 보험 분야

-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의 ‘금융관련 FDI 유치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분야의 경우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외국인투자 사전승인제도, 임원의 국적제한 등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제2금융권 및 보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일부 규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들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외환거래시 거래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나 재보험사의 국내 영업상 현지법인 또는 지점 설치 기업과 국내에 거점을 두고 있지 않은 기업간에 역차별 문제 등이 있음(김준동 외, 2009).
- 금융분야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시장에서 국내외 금융기관간 공정경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비즈니스서비스분야

- 비즈니스서비스분야의 경우 일부 서비스의 경우 추가적인 개방 문제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활용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의 환경개선방안 추진이 가능함.
- 추가개방과 관련, 법률·회계·세무 서비스는 한미FTA에서 단계별 개방 일정이 합의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회계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 공법 및 자격 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임. 따라서 이들 분야의 경우 이 개방계획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한미FTA의 비준노력이 필요함.

- 한편, 국제화된 고급기술인력 및 전문 인력의 효과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환경개선 노력과 함께 해외인력 활용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한·인도 CEPA협정을 활용하여 인도의 고급 IT 인력을 확대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인도 등에서 국내로 유학 온 외국학생들의 졸업 이후 국내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비즈니스서비스 외국인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가 비즈니스서비스분야에 집중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수도권 인접 경제자유구역을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중점 육성지역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관광 분야

- 관광분야의 경우 고급 관광레저시설 및 수도권 내 합리적인 가격의 중급 비즈니스호텔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
- 고급 관광레저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수요의 계절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비용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저렴한 용지의 공급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 고급 관광레저분야 외국인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지구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인프라 개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 또한 합리적 가격의 고급 숙박시설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마련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능한 방안은 관광업 투자로 개별형 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현행 2천만불에서 1천만불로 하향조정하는 것임.

□ 물류 분야

- 물류분야의 경우 제3자 물류 분야의 육성을 위한 정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는 이미 제3자 물류 전문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서 국내 제3자 물류기업들을 육성하되, 이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의 전문 물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의료분야 분야

- 향후 우리나라 의료분야는 고급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 및 중국인의 의료관광 수요 확대 등의 새로운 기회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정체 산업분야로 남을 수도 있음. 미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한 분야가 의료분야임.
- 의료분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상업적인 고급의료서비스 부분과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으로 의료보험제도 등을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 경제자유지역 제도내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FEZ를 활용한 외국병원 유치 등을 통해 고급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경쟁력 제고와 병원설립에서 영리법인의 허용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김준동 외, 2009).
- 의료인력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관련 면허관리체계의 정비를 통해서 면허취득후 의료활동에 대한 감독과 지속

적인 재교육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제고의 노력이 있어야 함.

- 한편, 영리법인 허용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등의 제고를 통해서 공공적 의료서비스 부문이 상업적 의료서비스 부문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능과 가격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

□ 교육 분야

- 교육분야의 경우 외국대학의 경우 국내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재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김준동 외, 2009). 이 조항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이외의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대학의 경우 퇴출시 투자재산의 회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 한편, 외국대학 등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제한의 문제는 교육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악용하는 경우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수준에서 잔여재산 회수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최초 투자 재산과 자산가치의 정상적인 상승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하는 특수목적의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제한조치를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지금까지 제시한 타겟 업종별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규제 및 환경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표 IV-6>과 같음.

<표 IV-6> 업종별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규제 및 환경 개선방안

타겟업종	업종별 규제 및 환경개선 방안	근거 및 관련 사항
금융 및 보험업	- 제2금융권 및 보험 분야 일부 규제 완화	- ‘금융관련 FDI 유치방안 보고서(자본시장연구원)’
	-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내외 금융기관간 공정경쟁 제고	- 외환거래시 거래원본 제출 부담 등
사업 서비스업	- 법률, 회계, 세무 서비스의 추가개방	- 한미FTA의 비준 조속 추진
	-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 한·인도 CEPA 협정을 활용한 인도의 고급IT인력의 확대도입
관광업	- 중급 비즈니스호텔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 관광업 개별형 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1천만 투자로 하향조정
	- 고급관광레저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용지 공급 등 투자여건 개선	- 투자유치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 확대
물류	- 제3자 국제물류전문기업의 육성정책 추진	- 외국의 전문물류기업과 국내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적극 지원
의료	- 의료산업화 촉진을 통한 개방 노력 전개	-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의료인력의 경쟁력 제고 -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제고
교육	- 외국대학의 투자재산 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상적인 재산상승분을 인정하는 방안 검토	- 특수목적의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제한 완화 추진

3.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 유지와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치 관리방안

3.1 장기적인 비즈니스기회 발굴형 투자유치전략 수립

- 앞서 제II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고용효과가 높은 투자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첫째, 상대적 인건비 수준보다는 우수인력 및 기술력 등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 둘째, 내수시장 확보목적의 투자. 내수비중이 높을수록 고용효과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장기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투자. 투자기간이 오래될수록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통한 고용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

- 위 세 가지 특징을 종합하면, 고용효과가 가장 큰 외국인투자는 해당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유망한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의 투자라고 할 수 있음.
- 즉, 현재 IK의 업종별 투자유치조직의 운영에 추가하여 여러 업종에 걸쳐 (cross-cutting) 한국이 보유한 우수인력 및 기술력을 활용하여 한국을 거점으로 장기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전략적 투자유치 기능을 IK 투자유치 조직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 (외국인투자정책연구센터의 핵심 업무로 포함시킬 수 있음).

3.2 투자유치 성과관리체계를 투자금액에서 고용유발효과 중심으로 개편

□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투자금액과 고용유발효과의 관계에서 투자금액이 중소(100억 이하) 및 중견 규모(100억-1000억)인 경우가 1000억 이상의 투자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록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규모 이하의 투자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 및 중견규모의 투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투자금액 위주의 투자유치 성과관리 시스템을 고용유발효과 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IK의 투자유치 실적목표에서 금액목표의 비중을 크게 줄이거나 폐지하는 대신, 고용 창출과 유지 실적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목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
- 요약하여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 유치와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치 관리방안을 정리하면, <표 IV-7>과 같음.

<표 IV-7>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 유치와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관리방안

구분	장기적 비즈니스기회 발굴형 투자에 대한 유치전략	투자금액에서 고용유발효과로 투자유치 성과관리체계의 개편
고용효과가 높은 투자의 특징	- 우수인력 및 기술력 활용투자 - 내수시장 확보목적 투자 - 투자기간이 긴 투자	- 소규모(100억 이하) 및 중견규모(100억-1000억)의 투자가 10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보다 고용효과 더 높음
투자유치 관리방안	- IK에 업종에 관계없이 한국을 거점으로 장기적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조직을 설치하여 투자유치전략 수립	- IK의 투자유치 실적목표에서 금액목표의 비중을 축소하고 고용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목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개편

4. 고용창출 효과에 따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방안

4.1 현행 외국인투자지원제도상 고용에 대한 고려

1) 현금지원

- ☐ 1천만불 이상의 투자로 대규모 신규고용창출 투자를 현금지원대상으로 포함(2009년 7월 30일 도입). 연구개발분야로 10인 이상의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됨.

<표 IV-8> 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

표준산업분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C B F H J N Q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A D G I K M R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E P 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 현금지원의 지원내용 및 용도와 관련, 공장시설 등 자본적 지출이외에 교육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지급

- 교육훈련보조금: 20인이상(연구개발분야의 경우 10인 이상) 고용시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최대 6개월까지 지급가능.
- 고용보조금: 20인이상(연구개발분야의 경우 10인 이상) 고용시 초과고용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최대 6개월까지 지급가능.
- 예를 들어 현금지원대상 제조업 외투기업이 100인을 고용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 $100\text{인} \times 100\text{만원} \times 6\text{개월} = 6\text{억원}$, 고용보조금 $80\text{인} \times 100\text{만원} \times 6\text{개} = 4\text{억}8\text{천만원}$ 등 총 10억8천만원 지원가능

(2) 조세감면

□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개별형 외투자기업으로 연구개발분야 2백만원 이상의 투자에 연구원 10인 이상인 경우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임.

4.2 고용창출 효과에 따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방안

□ 조세감면제도에 고용요소를 반영

-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감면요건을 고용요소를 포함하는 방안으로 변경.
- 조세감면 기간 및 수준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투자실행내용과 고용창출에 따라 조세감면수준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
- 현재 7년 감면방식과 5년 감면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조세감면내용의 확정적 기간 및 수준을 최장 10년 또는 7년까지 감면하다는 ‘최대한도’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세감면 여부 및 수준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평가하여 결정.

- 그리고 조세감면에 대한 결정과 투자이행의무를 구체적인 투자 및 고용내용과 연계시키는 것임.
-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평가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에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그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 기간과 수준을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함.
- 조세감면제도에 고용요소를 첨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행 제도상 조세감면의 기간 및 수준은 그대로 적용하되, 조세감면을 받는 기업의 조세감면한도액을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투입된 인력의 연간인건비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조세감면대상 외투기업의 2010년도 조세감면금액이 20억원으로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대상사업의 연간인건비가 10억원이면 조세감면을 10억원까지로 제한하는 것임.

□ 2010년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문제점

-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투자금액과 연동된 한도액을 설정하는 대신,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감면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의 제도가 제안됨.

<표 IV-9> 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내용

① 지원한도의 설정

- 외투기업의 총 세제감면 수혜 규모를 투자 금액의 50%수준으로 한정. 다만, 감면기간이 7년인 외투기업은 70%수준으로 한정.

② 고용인센티브

- 고용요건 충족시 투자금액의 20%까지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하여 외투기업의 고용증대 유도
- 이때 적용되는 고용기준은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임. 고용인센티브의 세액감면 한도는 투자금액의 20%임

- 동 제도는 조세감면이 주어지지 않아도 되는 투자에까지 조세감면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반영하고 고용요소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전략적 외국인투자의 확대에 필요한 투자인센티브의 확대 및 유연성 제고라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크게 훼손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존 조세감면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조세감면 가능성은 기존 제도의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되, 앞서 본 연구가 제시한 고용요소를 추가로 반영하는 형태의 제도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됨.

□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 실효성 제고

-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과 관련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안)이 최근 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과정 중에 있음.

- 동 시행령(안)의 내용을 보면 대상업종을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금융 및 보험업, 2.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

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5.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은 제외) 등으로 정하고 있음.

- 한편,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별도의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에 대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입주비율은 50%로 정함. 입주비율을 지정시점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정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주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장 1년의 범위내에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정이 해제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촉법 시행령(안)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등 관련 법령에서 몇 가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 첫째,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형태가 광역형이든 건물형이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자유인책으로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현재까지 제시된 유인책으로는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조성원가의 1%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것이 유일함. 이러한 저렴한 임대료 제공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외국인투자지역내 민간이 보유한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서비스업 외투자지역의 지정이 아니더라도 저렴한 임대료 제공은 지자체의 기존 조례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렴한 임대료는 실효성 있는 투자유인책이라고 할 수 없음.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유인책은 서비스업 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기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조세감면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대상 서비스업 투자에 대해서 투자금액이 5백만불 이상이고 고용 100명 이상인 경우 5년(3년 100%, 2년

50%)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기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에 도입되어 있는 임대료 감면도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및 고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과 같은 지원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서비스업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소재하는 민간소유 건물주들이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서비스업 외투기업 입주비율에 따른 건물관련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외투기업의 입주 50%의 준수와 관련, 시행령(안)은 외투지역 지정전 요건충족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정후 일정기간 이내에 입주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표 IV-10> 고용창출효과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구분	개선방안	필요사항
1. 조세감면제도에 고용요소 반영	- 확정적 감면보장 방식에서 “최대한도”방식으로 변경: 최장 10년, 그 수준은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여 외투위원회 결정 - 조세감면 결정을 투자 및 고용창출 이행의무와 연계	-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인센티브 평가조치를 IK에 설치
2.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에 고용요소와 투자금액 요소를 결합한 조세감면제도를 도입	- 금융업을 제외한 입주대상 서비스업에 대해서 투자금액 500만불, 고용 100인 이상의 경우 5년 조세감면 제공
3. 2010 세계개편안에 제시된 외투인센티브 고용요소 관련 사항	- 조세감면한도를 투자금액의 최대 70%까지 한정하고, 고용창출효과가 크면 최대 90%까지 제공하는 방안은 고용요소를 고려했다기 보다는 투자인센티브 제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상기 1호의 경우처럼 개선하는 것이 필요	

참고문헌

국문자료

- 강성진·서상원, 2005,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전략적 유치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227호.
- 김동석, 2004, 『산업부문별 성장요인 분석 및 국제비교』, 한국개발연구원.
- 김창규·이원희·장감찬, 2002, 『외국인직접투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애드코아.
- 김현정, 2006,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분석”, 『금융경제연구』, 254호.
- 산업자원부, 2006,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원제도』.
- 연태훈, 2004,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613-641.
- 연태훈, 2003,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 시리즈 2003-2005』, 한국개발연구원.
- 이근영·이대기, 2005, 「금융허브로의 발전과 금융 FDI의 역할」, 한국은행.
- 이병기, 2002,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연구 02-21.
- 이성봉·김종근·이형근, 1998,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투자 자유지역”, 대외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8-10.
- 이우채·김효선, 2003,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세 학회지』, 제4권 제2호, 93-111.
- 재정경제부, 2005,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
- 한국은행, 2004, 『산업연관분석 해설』.

영문자료

- Berman, E., J. Bound and Z. Griliches, 1994, “Changes in the Demand for Skilled Labor With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 Evidence from the Annual Survey of Manufactur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2), 367-397.
- Blomström, M., 1991, “Host Country Benefits of Foreign Investment,” NBER Working Paper, No. 3615.
- Fixler, D.J. and D. Siegel, 1999, “Outsourcing and Productivity Growth in

- Service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10, 177–194.
- Kang, S.J. and H. Lee, 2006, “The Determinants of Location Choice of South Korean FDI in China,” *Japan and the World Economy*, forthcoming.
- Kern, S. *Global Financial Centres after the Crisis*, *Deutsche Bank Research*, 2010.
- Rowthorn, R., 1994, “Unemployment, Trade and Capital Formation in the OECD,” mimeo, Faculty of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 Sachs, J.D., and Howard J., Schatz, 1994, “Trade and Jobs in U.S. Manufacturing,”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994, 1–84.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UN.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World Health Report 2000*, Geneva, Switzerland.
- Wood, A., 1994, *North South Trade, Employment and Inequality: Changing Fortunes in a Skill-Driven World*. Oxford: Clarendon Press.
- Wood, A.. 1995, “How Trade Hurt Unskilled Worker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3)

[부록]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및 생산유발효과

□ 산업연관분석의 구조 및 산업간 연쇄효과

-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해서는 원재료 및 연료 등의 중간투입물과 노동 및 자본 등의 본원적 투입물을 사용
 - 각 산업부문이 해당부문의 재화나 서비스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및 연료 등의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이 투입계수임
-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부록 표 1>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 <부록 표 1>에서 제1열, 제1산업의 중간투입내역 $x_{11}, x_{21}, \dots, x_{n1}$ 을 총투입액 X_1 으로 나눈 값을 $a_{11}, a_{21}, \dots, a_{n1}$ 이라하면 이는 제1산업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산업부문 생산물 크기를 나타내는 투입계수임
 - 반면에 제1행, 제1산업의 경우를 보면 $x_{11}, x_{12}, \dots, x_{1n}$ 을 총산출액 X_1 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a_{11}, a_{12}, \dots, a_{1n}$ 라 하면 이들은 1산업의 산출액이 각각의 산업에 배분된 정도를 의미
 - 따라서 아래의 <부록 표 1>에서 세로 방향(列)은 각 산업부문의 비용구성인 투입 구조를 나타내며, 가로 방향(行)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 판매인 배분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은 총체적으로 보면 각 산업부문의 총산출액과 총투입액은 항상 일치함

<부록 표 1> 산업연관표 형식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산출액
		1	2	...	...	n		
중 간 투 입	1	x_{11}	x_{12}	...	...	x_{1n}	y_1	y_1
	2	x_{21}	x_{22}	...	...	x_{2n}	y_2	y_2
	⋮						⋮	⋮
	n	x_{n1}	x_{n2}	...	...	x_{nn}	y_n	y_n
부가가치		V_1	V_2	...	...	V_n		
총투입액		X_1	X_2	...	...	X_n		

- <부록 표 1>에서 각 산업부문의 수급관계를 살펴보면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은 총산출액과 일치하므로 아래와 같은 연립식을 이용하여 식 (1)과 같은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음

$$\begin{aligned}
 a_{11}X_1 + a_{12}X_2 + \dots + a_{1n}X_n + Y_1 &= X_1 \\
 &\vdots \\
 a_{n1}X_1 + a_{n2}X_2 + \dots + a_{nn}X_n + Y_n &= X_n
 \end{aligned}$$

$$AX + Y = X. \quad (1)$$

- 여기서 A는 투입계수 행렬, X는 총산출액 벡터, Y는 최종수요벡터를 나타내며 이를 전개하여 X에 대해 풀면 식 (2)와 같음

$$X = (I - A)^{-1}Y. \quad (2)$$

- 식 (2)에서 $(I - A)^{-1}$ 를 레온티에프 역행렬(Leontief inverse)라고 부르며 각요소는 식 (3)과 같이 구성됨.

$$(I-A)^{-1} = \begin{bmatrix} \alpha_{11} & \alpha_{12} & \cdots & \alpha_{1i} & \cdots & \alpha_{1n} \\ \alpha_{21} & \alpha_{22} & \cdots & \alpha_{2i} & \cdots & \alpha_{2n}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ddots & \vdots \\ \alpha_{n1} & \alpha_{n2} & \cdots & \alpha_{ni} & \cdots & \alpha_{nn} \end{bmatrix}, \quad (3)$$

단, $\alpha_{ij} = \frac{\partial X_i}{\partial Y_j}$, i 는 투입, j 는 수요산업.

- 식 (3)에서 레온티에프 역행렬의 계수 α_{ij} 는 최종수요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직·간접 생산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유발계수라고 부름

□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유발효과 측정

- 소비, 투자, 수출로 이루어진 최종수요에서 다른 부문의 최종수요는 변동이 없고 오직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최종수요만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식 (2)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음^{11),12)}

$$\Delta X = (I - A)^{-1} \Delta I_{fdi} \quad (4)$$

- 위의 식에서 ΔI_{fdi} 는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을 28개 산업분류로 나타낸 벡터로 정의될 수 있음. 기본적으로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세분화 하는데, 분석과 해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대분류 기준인 28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임
- 식 (4)을 이용하면 최종수요인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 한 단위가 변할

11) I_{fdi} 는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해 국내기업의 투자가 구축(crowding-out)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

12) 여기에서 소비, 투자, 수출로 이루어진 최종수요에서 다른 부문의 최종수요는 변동이 없고 오직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최종수요만 변화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인해 식별(identification)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최종수요의 변화가 소비, 투자,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중 어느 부문에서 오는지를 엄밀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의 변동을 모두 제어한 후 외국인직접투자자와 해외직접투자자만 변화하였을 경우를 실증분석 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강성진, 이흥식 (2006) 참조.

때 산출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또한 식 (4)을 이용하여 산출량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전방연관효과와 후방연관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부록 표 2> 생산유발계수표

	1산업	2산업	3산업	행 합계
1산업	r_{11}	r_{12}	r_{13}	S_1
2산업	r_{21}	r_{22}	r_{23}	S_2
3산업	r_{31}	r_{32}	r_{33}	S_3
열합계	R_1	R_2	R_3	

- <부록 표 2>은 생산유발계수표를 3가지 산업으로 간단히 줄인 것이며 표의 각 요소가 지니는 의미를 가지고 전후방 연관효과를 계산 할 수 있음
- 첫째 열의 r_{11} 은 제1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함에 따라 제1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과급효과를, r_{21} 은 제2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과급효과를, 그리고 r_{31} 은 제3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과급효과를 각각 나타냄.
- 따라서 열합계인 R_1 은 제1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함에 따라 전체 산업부문에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과급효과를 나타낸다.
- 따라서 생산유발계수표의 첫 번째 열 합계와 제1산업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를 곱한 값은 제1산업에 의해 유발된 후방연관효과에 따른 산출액임
- 따라서 R 을 열합계로 이루어진 대각행렬이라 하고 I_{fdi} 를 외국인직접투

자를 통한 산업별 유입액 벡터라고 할 때, 최종수요벡터를 외국인직접 투자 유입액으로 놓고 식을 다시 정리하면 식 (5-4)와 같다.

$$\Delta X_{bw} = R \Delta I_{fdi} \quad (5)$$

- 산유발계수표를 행으로 보면, r_{11} 은 전체 산업에 각각 1단위가 생산되었을 때 제1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고 r_{12} 는 제2산업부문 생산 과정에 배분된 정도, 그리고 r_{13} 는 제3산업부문에 대한 배분의 정도를 나타냄
- 생산유발계수표의 첫 번째 행렬의 합과 각 산업에 유입된 최종수요를 곱하면 전방연관효과에 따라 전체 산업에 1단위의 산출량이 증가하였을 때 제1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 따라서 최종수요벡터를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벡터로 놓고 식을 다시 정리하면 외국인직접투자의 전방연관효과를 식 (6)과 같음

$$\Delta X_{fw} = (I - A^d)^{-1} \Delta I_{fdi} \quad (6)$$

□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유발효과 측정

-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그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노

13) 3개의 산업으로 X_{bw} 를 계산한 행렬 계산식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begin{pmatrix} \Delta X_1 \\ \Delta X_2 \\ \Delta X_3 \end{pmatrix} = \begin{pmatrix} R_1 & 0 & 0 \\ 0 & R_2 & 0 \\ 0 & 0 & R_3 \end{pmatrix} \begin{pmatrix} \Delta I_1 \\ \Delta I_2 \\ \Delta I_3 \end{pmatrix}$$

14) I_{fdi}^i 를 i 산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합이라 가정하면, 3개의 산업으로 X_{fw} 를 계산한 행렬 계산 식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begin{pmatrix} \Delta X_1 \\ \Delta X_2 \\ \Delta X_3 \end{pmatrix} = \begin{pmatrix} r_{11} & r_{12} & r_{13} \\ r_{21} & r_{22} & r_{23} \\ r_{31} & r_{32} & r_{33} \end{pmatrix} \begin{pmatrix} \Delta I_{fdi}^1 \\ \Delta I_{fdi}^2 \\ \Delta I_{fdi}^3 \end{pmatrix}$$

동유발효과 분석과 생산 활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음

-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을 노동계수라고 하는데, 노동계수는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로 구분됨¹⁵⁾
- 본 논문에서는 노동량 산출에 있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주 및 무급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한 취업계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취업계수(l_w)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7)과 같고 L_w 는 취업자 수, X 는 산출액을 나타냄

$$l_w = L_w / X \quad (7)$$

- 위의 식 (7)를 산출액 증가에 따른 취업자 수의 변화의 관계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 (8)과 같음

$$\Delta L_w = l_w \Delta X \quad (8)$$

- 위의 식 (8)에 식(4)를 대입하면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업종별 산업별 취업유발인원을 파악할 수 있음

$$\Delta L_w = l_w \Delta X = l_w (I - A^d)^{-1} \Delta I_{fdi} \quad (9)$$

- 식 (9)의 의미를 살펴보면, j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한 단위 증가하는 경우($\Delta I_{fdi} = [0 \ 0 \ 0 \ \dots \ 1 \ \dots \ 0]$), 각 산업에서 생산유발계수($(I - A^d)^{-1}$)만큼의 생산량이 필요하며, 필요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l_w (I - A^d)^{-1}$ 만큼의 취업이 늘어나야함을 의미함

15) 노동량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노동계수를 취업계수라 하고, 노동량에 임금근로자만 포함한 노동계수는 고용계수라고 한다.

□ 생산유발효과

- <부록 표 3>은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생산유발액을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산업별로 결과임
-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1차 산업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외국인직접투자액이 동기간 서비스업에서 더 많은 것과 관련됨. 자세히 살펴보면 2002-2008년 기간동안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서비스업의 생산유발액의 비중이 59.75%로 오히려 제조업의 비중 36.4%보다 크게 나타남
- 기간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1기(1990~1995년)에는 약 9조 7,3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52.98%(5조 1,600억원)는 서비스업에서 유발된 효과이고, 제조업은 45.58%(4조 4,390억원), 1차 산업은 1.44%(1,400억원)의 비중을 차지함.
- 2기(1996~2001년)에는 약 52조 9,08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으며, 1기와는 달리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남. 2기 전체의 생산유발액 가운데 47.15%(24조 9,470억원)이 제조업분야에서 유발된 효과이며, 서비스업은 45.68%(약 24조 1,690억원), 1차 산업은 7.17%(3조 7,930억원)의 비중을 차지함.
- 3기(2002~2008년)에는 약 93조 7,94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유발효과가 다시 가장 높게 나타남. 3기 전체의 생산유발액 가운데 59.75%(56조 380억원)가 서비스업에서, 36.40%(34조 1,400억원)가 제조업에서, 3.85%(3조 6,150억원)가 1차 산업에서 유발된 생산유발효과임.

<부록 표 3>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유발액

	1990~1995	1996~2001	2002~2008
1차 산업	140 (1.44)	3,793 (7.17)	3,615 (3.85)
제조업	4,439 (45.58)	24,947 (47.15)	34,140 (36.40)
서비스업	5,160 (52.98)	24,169 (45.68)	56,038 (59.75)
계	9,739	52,908	93,794

주: 단위는 10억 원이며, ()는 전체에서의 비중으로 %임.

□ 생산유발효과

-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에서 높은 생산유발효과
- <부록 표 4>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냄.
-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생산유발을 살펴보면, 각 기에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산업은 동일하게 나타남.
- 기간별로 살펴보면, 1기에는 약 9조 7,390억원으로 나타나며, 이 중 통신 및 방송 산업, 금융 및 보험 산업,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 높은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남.
- 2기에는 52조 9,08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남.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을 살펴보면, 비금속광물제품 산업,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산업에서 높은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남.

- 3기에는 93조 7,94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남. 통신 및 방송 산업, 비금속광물제품 산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에서 높은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남.
-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기에 비해 3기에는 약 9.6배 가량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제조업 보다는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남.

<부록 표 4>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단위: 10억 원)

산업명	1기 (1990년-1995년)	순위	2기 (1996년-2001년)	순위	3기 (1990년-1995년)	순위
농림수산물	51	23	543	22	354	25
광산물	89	20	3,250	6	3,261	9
음식료품	92	19	425	24	628	23
섬유 및 가죽제품	532	8	2,123	12	771	22
목재 및 종이제품	614	5	2,544	9	2,439	12
인쇄 및 복제	64	22	790	20	948	21
석유 및 석탄제품	381	9	3,111	7	3,457	8
화학제품	327	11	3,090	8	3,242	10
비금속광물제품	593	6	5,268	1	8,422	2
제1차 금속제품	380	10	1,318	15	2,471	11
금속제품	130	18	697	21	1,510	17
일반기계	313	12	1,997	13	2,132	15
전기 및 전자기기	941	3	2,486	10	6,449	5
정밀기기	15	27	125	26	243	26
수송장비	36	24	896	18	1,266	18
기타제조업제품	21	26	77	27	162	27
전력, 가스 및 수도	163	16	1,023	17	2,240	14
건설	686	4	1,887	14	2,338	13
도소매	158	17	3,300	5	6,299	6
음식점 및 숙박	221	14	812	19	1,231	19
운수	279	13	2,314	11	5,732	7
통신 및 방송	1,577	1	4,476	2	18,459	1
금융 및 보험	1,195	2	4,274	3	8,010	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49	7	4,108	4	8,334	3
공공행정 및 국방	7	28	7	28	79	28
교육 및 보건	81	21	434	23	441	24
사회 및 기타서비스	36	25	294	25	1,094	20
기타	208	15	1,240	16	1,781	16
합계	9,739		52,908		93,794	

<부표 1> 산업연관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산 업	산업연관표	한국표준산업분류
농림수산물	01	01, 02, 03, 05,
광산물	02	06. 07. 08, 10, 11, 12.
음식료품	03	15, 16
섬유 및 가죽제품	04	13, 14, 17, 18, 19
목재 및 종이제품	05	20, 21
인쇄, 출판 및 복제	06	22
석유 및 석탄제품	07	23
화학제품	08	24, 25
비금속 광물제품	09	26
제1차 금속제품	10	27
금속제품	11	28
일반기계	12	29
전기 및 전자기기	13	30, 31, 32
정밀기기	14	33
수송장비	15	34, 35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6	36, 37
전력, 가스 및 수도	17	40, 41
건설	18	42, 45, 46
도소매	19	47, 50, 51, 52
음식점 및 숙박	20	55, 56
운수 및 보관	21	60, 61, 62, 63
통신 및 방송	22	64
금융 및 보험	23	65. 66. 6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4	58, 68, 69, 70, 71, 72, 74, 75
공공행정 및 국방	25	38, 76, 84, 96
교육 및 보건	26	80, 85, 86, 73
사회 및 기타서비스	27	59, 87, 88, 90, 91, 92, 93, 95
기타	28	99

<부표 2> 산업별 목적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전체)

(단위: 미화 백만 불)

산업명	1기(1990년-1995년)		2기(1996년-2001년)		3기(2002년-2008년)	
	M&A	Greenfield	M&A	Greenfield	M&A	Greenfield
농림수산물	0.0	0.0	0.6	223.9	0.1	2.7
광산물	0.0	6.1	17.0	1,954.2	624.4	1,748.4
음식료품	0.0	4.9	9.8	24.7	8.1	4.3
섬유및 가죽제품	0.0	536.1	685.5	517.3	83.1	318.1
목재및 종이제품	0.0	521.1	844.2	359.2	167.3	1,066.8
인쇄 및 복제	0.0	5.2	338.6	74.7	44.3	499.2
석유및 석탄제품	0.0	331.6	427.9	959.4	312.7	380.5
화학제품	0.0	38.4	262.0	587.5	309.6	376.7
비금속광물제품	0.0	516.8	1,891.9	1,557.7	1,498.5	4,790.3
제1차 금속제품	0.0	73.5	29.8	23.4	68.0	59.1
금속제품	0.0	49.7	113.8	89.2	291.6	253.4
일반기계	0.0	274.7	309.0	766.9	389.1	723.1
전기및 전자기기	0.0	882.0	411.5	1,021.4	1,274.6	2,368.5
정밀기기	0.0	3.9	15.3	29.0	23.0	64.7
수송장비	0.0	0.0	126.1	206.2	171.7	157.7
기타제조업제품	0.0	0.0	0.0	0.0	0.1	0.1
전력,가스및수도	0.0	17.8	8.3	1.2	463.1	0.0
건설	0.0	818.4	45.6	1,352.1	714.8	1,086.4
도소매	0.2	12.9	214.2	1,763.4	1,191.3	2,279.2
음식점 및 숙박	0.0	257.0	23.1	191.8	7.9	370.3
운수	0.0	177.9	114.3	1,494.7	1,626.0	1,315.8
통신 및 방송	0.0	1,918.4	890.5	1,797.7	1,611.4	11,743.4
금융 및 보험	0.0	1,230.0	603.7	1,399.4	2,689.7	1,885.6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	81.8	260.2	1,018.9	565.9	1,768.6
공공행정 및 국방	0.0	9.5	2.0	4.1	6.7	12.5
교육 및 보건	0.0	4.7	8.0	16.1	42.6	79.0
사회및 기타서비스	0.0	14.9	0.5	75.4	13.7	190.5
기타	0.0	0.0	0.0	0.0	0.0	0.0
합계	0.2	7,787.3	7,653.4	17,509.5	14,199.2	33,545.0